

잠언 미: 솔로몬의 잠언 소개와 잠언의 구조

지금까지 대다수 성경 책들 강해, 맥잡기, 지혜문학과 시가서: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서

앞으로 금요일에 20여 회에 걸쳐 잠언 강해, 주일 오후 50여회에 걸쳐 시편 강해

1. 텍스트 메인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미국 Holman Commentary, 저자 맥스 앤더스
2. 위어스비 잠언 주석 등

저자와 연대

잠언은 총 31장, 잠22:17-24:34, 30-31장을 빼고는 다 솔로몬의 작품

솔로몬: BC 1000년경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많이 줌(왕상 3:5-15)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타락한 시절이 있었다.

그의 인생 후반부, 이방 신들을 섬기며 타락하고 자기가 지은 잠언들을 따르지도 못함

아마도 잠언은 그의 타락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보여 주므로 잠25:1,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베껴 썼다는 것을 통해 잠언은 주전 700년경 히스기야 시대에 완전한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잠언이라는 말과 기록 목적

잠언이라는 히브리말: 기본뜻은 비교하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는 비교가 많다(11:22; 25:25 등)

잠언의 목적: 솔로몬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지혜로움(왕상4:30)

잠언은 짧은 경구 혹은 핵심들을 모은 모음집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됨

대다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기억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잠언과 같이 짧은 글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데 유용하였다.

왜 토픽 별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성령님께서 매일 원하시는 대로 토픽을 주신다.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만화경이다. 전체 성경도 마찬가지

잠언의 구성

1. 1-9장, 지혜와 어리석음 두 여인, 지혜는 여성 명사
2. 10-15장, 대조 비교(지혜와 어리석음,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
3. 16-31장, 여러 가지 조언

잠언에 많이 나오는 말: 지혜

히브리어 지혜: 삶의 기술(예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전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을 살게 해 주는 것

지혜 안에는 지식, 분별, 이해력, 순종 등이 포함된다.

잠언 해석 시 주의해야 할 점

지혜 문학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1. 잠언은 일반적인 진리 진술, 때로는 모든 상황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잠22:29,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이 다 왕 앞에 서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 시대는 왕이 없다.

의미: 자기 일에 열심을 내어 전문가가 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뜻

다수의 잠언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2. 잠언은 축약된 진리 체계, 최대의 감화 유발

“하루 하나의 사과는 의사를 필요 없게 만든다.” 정말 그런가? 이 말은 잘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최대한 간결하게, 오래 기억에 남게 보여 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진리를 축약한 말은 너무 간단해서 그것과 관계된 잠재적 예외 사항들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 설명하려 하면 그것은 이미 간결하지 않아 축약된 진리가 되지 않는다.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고 다른 신선한 과일들을 먹는다고 해서 항상 의료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건강에는 좋은데 이것은 설익은 사과나 살충제가 남아 있는 사과를 먹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것은 이미 잠언이 아니다.

3. 잠언을 읽을 때는 잠언이 모든 상황에 관련된 모든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즉 잠언은 약속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 잠22:6,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는 어떤가?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자식들이 자라서 믿음을 버린다.

네 딸을 둔 목사 부부, 인품이 좋은 분들, 세 딸은 훌륭하게 자라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

넷째 딸은 안 그렇다. 부모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엡6:4)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잠22:6은 잘못된 말일까? 아니다. 잠22:6은 포괄적인 약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이다.

부모가 좋은 믿음을 가질 때 대개는 그들의 자녀들 역시 좋은 믿음을 가진다.

미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 18살에 성인이 되기 전에 대개 그리스도인 된다. 좋은 부모로 인하여

4. 또한 잠언은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

잠6:27-29, 27 사람이 불을 자기 품에 품고 있는데 그의 옷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28 사람이 뜨거운 솥을 밟고 가는데 그의 발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29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 마지막 윤리 기준은 불투명해졌다. 예를 들어,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하면서 다른 남자의 아내와 우연히 손이 닿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또한 육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마음으로 간음을 행한 사람들은 모두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이러한 해석은 요점에서 빗나간 것이다. 잠언은 비유적인 어법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구체적이기보다는 개략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잠언에서 얻어야 할 요점은 간음하는 것은 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 점을 주목하실 것이다. 이생이나 내생에서 간음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끝 부분의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이란 구절도 만약 성령님에 의해 영감된 말씀이 왜곡되어 해석되지 않는다면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전7:1 참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잠언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받아들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5. 잠언은 문화적으로 현대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잠언은 왕정 시대에 기록되었다.

잠22:11,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여기의 왕은 지도자로 해석하면 된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덕 있는 말을 하면 우리는 정직하고 덕이 있는 말에 대대 좋은 인상을 갖는 지도자들과 여러 책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6. 잠언은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상징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그림이 떠오른다.

잠20:26, 지혜로운 왕은 사악한 자들을 흠으며 그들 위로 바퀴를 가져오느니라.

실제로 왕이 타작해서 흠으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 사람 위에 굴리는 일은 없다.

요점: 지혜로운 왕은 악을 발견했을 때 그냥 못 본체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즉 자신의 왕국에서

악을 발견하면 그는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7. 잠언에는 종종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그것들은 비유적 표현, 일반적인 원리를 나타낸다.

잠언의 현격한 대비, 강한 확신, 의사소통의 진리,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준다

요점 정리

기록자: 솔로몬, 아굴, 르무엘 등, 기록 시기: 주전 1000-700년경

성격: 지혜 문학, 수신자: 솔로몬의 아들과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책의 히브리어 책명은 '솔로몬의 잠언'이었는데 여기서 '잠언'은 '다스리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책으로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법칙을 담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잠언'이라는 우리말 책명은 중국어 성경에서 온 것으로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을 뜻한다.

주제: 경험으로 얻는 지혜, 지혜 혹은 지혜롭다 125회

지혜문학: 율, 잠언, 전도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과 씨름함, 성도라고 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 안하고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엡5:15).

고대 중동에서는 지혜가 아주 소중한 것, 왕들은 지혜자들을 조언자로 두었다.

성경의 지혜: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잔피가 아니다. 관계, 책임 면에서 기교가 있어서 성공하는 것, 창조자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다. 하나님, 창조 세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

목적: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지혜를 주는 것(1:1-6)

내용: 잠언은 히브리 지혜 문학의 일부로서 지혜의 말들과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 잠언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도덕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이다. 잠언에는 두 가지 주제 즉 이 세상의 도덕 체계와 도덕적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의무가 담겨 있다. 잠언에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자기 의지대로 살려는 어리석음이 대조되어 있는데 전자는 번영과 형통의 근간이며 후자는 고난과 사망의 원인이다. 잠언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에 맞는 지혜와 함께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 있다: 분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 우정, 탐닉, 교만, 갈등, 절제, 말하는 것, 부와 재물 등. 잠언은 31장, 915절, 15,038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8장(잠언의 가치), 핵심 절: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4:23), 핵심 단어: 지혜와 명철

핵심 구: '주를 두려워하는 것'(1:7). (1:7,29; 2:5; 3:7; 8:13; 9:10; 10:27; 14:2,26-27; 15:16,33; 16:6; 19:23; 22:4; 23:17; 24:21; 31:30).

잠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8:12; 8:22-31)

영적 교훈: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라.

중요한 말들: 1. 내 아들이(1:8,10,15; 2:1; 3:1,11,21; 4:10,20; 5:1,20; 6:1,3,20; 7:1; 19:27; 23:15,19,26; 24:13,21; 27:11), 아버지로부터 얻는 교훈

2.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1:8; 4:1,10; 5:7; 7:24; 8:6,32-33; 19:20; 22:17; 23:19,22)

3. 명철(understanding), 지혜와 명철(잠2:2), 잠언에만 명철 54회, 총 160회

understanding: 지식을 건전하게 적용하는 것, 분별, 지혜 문학에 많이 나온다.

명철, 깨달음, 이해력, 지각

원래 뜻은 '두개 사이의'(between), 구분하는 것

욥28: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영역

욥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명철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연구하는 것에서 생긴다.

(시119:104)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으므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깨달음, 명철(명철하다의 어근), 명철하다: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과 연구를 통해 얻는 풍성한 지식

그러면 무엇을 분별하고 구분해서 알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사43:10),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신약성경 막12:33, 지각을 다하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태우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매

잠언 1:1-7, 22:17-21

지난주부터 잠언 강해, 오후에는 시편 강해

1. 텍스트 메인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미국 Holman Commentary, 저자 맥스 앤더스
2. 위어스비 잠언 주석 등

잠언은 총 31장, 전체를 다 강해할 수 없으므로 맥스 앤더스가 구분한 대로 하루에 한 개 혹은 30분짜리 2개 정도를 강해하려고 한다.

잠언의 목적과 효과

1장 1-7절은 잠언의 전체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 저자가 누구지에 대해 알려주며 이 책을 통해 지혜와 지식과 통찰 그리고 현명함을 얻으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혜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다음 22장 17-21절은 잠언의 효과를 보여 준다. 우리가 잠언 연구에 최선을 다한다면 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이며 삶의 여러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잠언의 주저자

솔로몬: 잠언 3000개(왕상4:32),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 그는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부귀나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수준의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바로 잠언서의 기록자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할 때 우리는 바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메인 아이디어: 지혜의 근원

지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마음을 쏟아보라. 그러면 유익을 얻을 것이다.

A. 잠언의 목적(1:1-7)

잠언의 내용들은 사람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 쓰였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1:1 잠언(proverb)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영어의 전통적인 의미(격언)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대조나 간단명료한 말이나 교훈적인 말을 의미한다. 이 문맥에서 잠언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통찰력 있는 교훈 혹은 깨달음을 뜻한다.

1장 1절에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솔로몬 이외의 다른 저자들이 이 책의 일부를 기록하였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모아진 것들이다. 솔로몬의 이름은 이 책에서 세 번 언급되는데(1:1, 10:1, 25:1) 그때마다 이 책의 내용이 그의 기록임을 말하고 있다. 1장 1절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1장 1절부터 9장 18절까지가 그의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 10장 1절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내용 역시 그가 쓴 것으로 보인다. 25-29장의 내용도 그가 쓴 것임을 25장 1절이 밝히고 있다.

1:2 2절은 잠언서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우선 사람이 지혜를 얻고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였다!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말은 호크마(hokimah, 스트롱 번호 2451)인데 이는 삶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략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문적인 목수 일이나 음악적인 일이나 중재자의 일에 숙달되면 그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 사람이다. 잠언의 목표는 이렇게 각 사람이 삶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 지혜는 여성 명사이다. 그래서 그녀, 그녀의 등으로 불린다(잠1:20; 3:16).

훈계란 말은 '도덕적인 훈계, 가르침 혹은 징계'를 의미한다. 즉, 기술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명철이라는 말은 분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 여성 명사이다.

잠언의 목표는 독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예술)을 얻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올바른 길을 구별하게 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1:3 3절은 2절의 설명을 더욱 확대하고 훈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잠언은 공평과 정직함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는 훌륭한 판단을 하게 해 준다. 판단의 공의: 판단을 공의롭게

1:4 솔로몬은 단순한 자들과 젊은 자들에게 민감함을 주고 지식과 분별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단순한 자는 훈계를 받지 않고 원초적 본능에 이끌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가 지성적으로 한계가 있거나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연륜이 짧아 경험이 부족하거나 지혜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1:5 잠언의 대상 독자는 단순한 자나 젊은 자만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도 대상이다. 그들도 잠언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다 살아가는 동안 지식과 이해와 지혜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야만 한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한다든지 혹은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6 잠언 연구를 통해 지혜로운 자들과 명철한 자들은 잠언, 해석,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분별해서 알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해석은 잠언의 해석, 은밀한 말들(dark sayings 예 1:17), 간단히 이해되지 않는 말들, 많이 생각해야 하는 말들(시49:4)을 뜻한다(잠 18:1).

1:7 이제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경외함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다(맥스 앤더스 등 현시대 주석가들).

아니다, 1차적 뜻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마10:28, 지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의 특징: 그분을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에게 정당한 위치를 돌려드린다. 이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어서 솔로몬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무시한다. 여기서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것(민15:31; 느 2:19)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이다. 인간은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넘어설 수 없다. 이 법칙을 어기면 이 법칙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뿐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어떤 중도적인 입장은 없어 보인다.

B. 잠언의 효과(22:17-21)

우리가 잠언을 연구한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22:17 이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지식을 연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말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막4:9)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하다. 즉, 이 말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러나가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말씀을 받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라는 의미이다.

22:18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두는 것(17절)은 즐거움(혹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즉 지혜자들의 말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면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네 입술에 꼭 맞게 된다는 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 성경 연구, 강해 등의 즐거움

22:19. 솔로몬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자기에게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의 말과 비슷하다(딤펴1:5). 바울과 솔로몬 등 성경 기록자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친다.

22:20-21.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위에서 기록한 교훈들과 지혜의 말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것은 진리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며, 성실히 배우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사람을 보낸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전12:10-11).

복습

지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마음을 쏟아보라. 그러면 유익(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요 단어 연구

A. 주를 두려워하는 것(fear of the Lord) 성경 전체 30회, 잠언에만 14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fear of God), 8

B. 지혜: 히브리어로 지혜를 의미하는 호크마(Hokmah)는 때로 기술자, 가수, 음악가, 선원, 상담가 그리고 그 외 여러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기술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원리들을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 능숙하게 항해하는 선원의 모습이나 금속을 기교적으로 다루는 금속 노동자들에 대해 능숙하게 일을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혜로 인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달려 있다. 누군가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워지고자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다(약3:13-16).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따를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세상적인 것).

교회에서의 많은 분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오는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난다.

C. 어리석은 자

잠언서의 많은 내용들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해서 설명한다. 즉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즉 세상일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삶의 기술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 그래서 단순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동일시되고 있다(잠1:22).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잠1:7). 잠언에 서는 세 가지 히브리 단어가 어리석은 자로 번역되고 있다.

첫 번째는 케실(kesil)인데, 이는 생각이 딱 막힌 완고하고 고집 센 사람을 의미한다(잠1:22).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지식과 조언을 거부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잠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의미이다. 잠1:22

두 번째 단어는 나발(naball)인데, 이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잠언에서 3번 사용되었다(잠17:21: 30:22). 이 단어는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삼상 25장)과도 동일하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식량과 음료를 요청했던 다윗의 부탁을 모욕적으로 거절하였다. 다윗은 그의 태도로 인해 그에게 분노하였고 복수하기 위해서 살육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하들을 위해서 식량과 음료를 준비하였고 그에게 나아가 그의 분노를 달랬다. 그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 (삼상 25:25).

어리석은 자를 지칭하는 세 번째 단어는 에윌(ewil)이다. 이 말은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며 강박한 사람을 뜻한다. 이 말은 잠언에서 19번 사용되었고, 다른 데서도 7번 사용되었다. 잠10:21 참조, 이것은 잠언 1장 7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교만하고 난폭하며 행사가 강박한(괴팍한)

자, 즉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멸시한다. 잠언 1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단순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다.

결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1:7),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으로, 지혜와 인내와 근신으로 인도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22:18),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식과 지혜와 인내와 근신의 삶에서 이탈하지 말라.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따르라. 그러면 당신은 복된 삶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의 교훈이다.

잠언1:8-19, 악한 친구들을 피하라

1. 악한 길에 있나 보라. 2. 시험에 빠지지 말라. 시험과 유혹은 함정으로 이끈다.

17절, 어찌면 첫 번째 잠언, 새는 뻥히 함정이 있는 것을 보면 절대 먹이를 먹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새보다 나아야 한다.

3. 남을 해치려 하면 결국 자기가 상한다(18-19).

1:20-33, 지혜의 외침

32절, 다른 성경 퇴보, 배반,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켜서 떠나감

잠언 13: 금광을 찾듯 지혜를 찾으면 큰 유익이 있다(지혜의 유익과 가치)

잠2:1-22, 3:13-24

지난주, 잠언의 목적과 효과, 오늘 잠언의 지혜가 주는 유익과 가치

지혜는 인생을 사는 기술, 명철은 분별하는 것

오늘: 지혜와 명철을 보물을 구하는 것같이 구해야 한다.

잠언 기자: 인생을 여행하는 것으로 표현함.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올바른 행로를 취해야 한다. 잠언의 핵심

들어가는 글: 샘 맥기의 화장(火葬)

로버트 W. 서비스(Robert W. Service, 1874-1958)는 자신의 시 '샘 맥기의 화장(The Cremation of Sam McGee)'에서 금을 찾기 위해 알래스카에서 샘 맥기와 그의 동료 캡(Cap)이 겪는 괴로움, 추위,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 등을 절실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시는 미국의 100대 시 중 41번째 시

알래스카: 미국의 49번째 주, 1867년 러시아가 판매함, 그 뒤 1897년 금광 발견, 골드러시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알래스카에 갔다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

샘 맥기의 화장은 당시 상황을 시로 표현한 것

금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한밤중의 태양 아래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금광을 찾아 해매는 사람들에게;

북극으로 가는 길목마다 기이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뜨거운 피까지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는 이야기이다.

북극성이 이상한 빛을 발하던 날

그 중에서 가장 괴이한 일이

그날 밤 레바지 호수에서 일어났다. 내가 샘 맥기를 화장하던 그 날이었다.

샘은 따뜻한 남부 테네시 출신이어서 추위를 너무나 싫어했다. 오직 금광에 대한 소망만이 그가 알래스카에서 금을 찾아다니는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 있게 해 준 유일한 힘이였다. 극한의 상황은 그를 짓눌렀고,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났다. 그는 서서히 얼어 죽어 갔다. 그의 동료였던 캡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아, 그가 너무 진지해서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지독히도 추운 날이구나. 너무나 추워서 뺨속까지 얼어붙어버리는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내가 꿈쩍이도 싫어하는 것은 얼음으로 된 무덤 속에 영원히 묻히는 거야. 그래서 자네에게 내 목숨을 걸고 간절히 부탁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시신을 화장해 주게."

그래서 절친한 동료였던 캡은 샘의 시신을 썰매에 싣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마침내 얼어붙은 호수에서 반쯤 잠겨 있는 오래된 증기선을 발견하였다. 캡은 증기선의 보일러실 안에서 몇 개의 나무판자를 쌓아놓고 샘의 시신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밖으로 나와 잠시 주변을 정처 없이 걸었고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 화장이 완전히 끝났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보일러실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샘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샘은 싸늘하면서도 고요히 앉아 있었다. 엄청나게 피어오르는 불길 한가운데서 말이다. 그는 멀리서도 발견할 수 있는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문 좀 닫아주게. 여기는 아주 따뜻한 걸,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무나 두려워. 자네가 나를 세찬 추위 속으로 이끌어낼까 봐 말이야. 내가 테네시의 그 풍요롭던 자두나무 밑을 떠난 이후로 이렇게 따뜻하게 있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군."

물론 로버트 서비스의 시에 담긴 사상은 매우 풍자적이지만 이와 같은 허탈한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알래스카에서 금을 찾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 그곳으로 떼 지어 몰려들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전혀 비상식적인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금을 찾는 노력은 많은 경우 전혀 소득이 없었고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말한다. 만약 당신이 동일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노력으로 지혜를 찾아 나선다면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치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잠2장의 핵심이다.

본문 이해: 지혜의 유익

Main Idea: 지혜는 꾸준히 계속해서 찾으면 발견할 수 있고, 일단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인생의 재앙으로 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며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이(1:8, 10, 15, 2:1, 3:1, 11, 21; 4:10, 20, 총 23회) 사랑스러운 아빠가 아들에게 2장은 세 부류의 존재들과 함께 길로 걷는 것; 1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1-9), 2. 악한 자들과 함께 걷는 것(10-19), 3. 의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것(20-22)

A.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1-9)과 얻은 뒤의 결과 (10-22)

2장 요약: 만약 당신이 지혜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것을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앙으로 이끌게 될 난폭한 사람이나 유혹하는 여성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당신은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2:1-2. 1장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가 당하게 될 재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깊은 파멸의 구덩이에 빠진다). 이제 2장에서 그는 지혜가 가져다줄 놀라운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먼저 2장 1-4절에서 그는 세 가지 조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만약(if)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1, 3, 4절).

첫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자는 지혜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2:1-2), 그저 흘러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지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 말을 받으며 그것을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다.

2:3. 지혜를 얻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잠언 기자는 크게 소리치며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고통 속에서 구원받기를 간청하는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같은 것이다(시4:1; 막10:46 48 비교). 지혜를 소리쳐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원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2:4. 지혜를 얻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그것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숨겨진 보물이나 금, 은을 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한다. 지혜를 찾는 과정도 이와 같은 열심을 필요로 한다. 오늘 알래스카 금광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의 시처럼

2:5.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이루고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2:5-8)이라는 내용이고, 둘째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2:9-11)이라는 내용이다.

5절: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2:6-8. 우리가 지혜를 찾고자 할 때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지혜를 주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약1:5). 7-8절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 올바르게 걷는 자들,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지혜에 몰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7) 자기 백성들의 가는 길을 지켜 주신다(8).

2:9. 지혜를 찾는 노력으로 인한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의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입증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판단의 공의는 '다스리다'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공평은 '올바른, 똑바른' 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우리가 공명정대하지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선한 행로(렘6:16)

- 2:10-11. 이 장의 후반부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파놓은 자들로부터 지혜가 어떻게 그것을 가진 자들을 구원해 내는지를 설명한다. 분별과 명철의 역할(11)
- 2:12. 젊은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나는 악한 자(2:12-15), 다른 하나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자(2:16-19)를 만나는 것이다. 지혜는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그들의 교묘하게 위장된 허상을 꿰뚫어보게 한다.
- 2:13-15. 그들은 올바른 길에서 떨어져나갔고, 그들의 가치관은 심하게 변형되었으며, 자신들의 악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사악한 말로 진리를 왜곡한다.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들은 얼마 못 가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될 것이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들 자신은 패역하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옆으로 치우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올바른 길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다.
- 2:16.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자는 악한 자들 다음으로 찾아오는 두 번째 위험이다. 지혜는 이 위험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 여자는 음녀라고 불리는데 문자적으로는 '외부인 혹은 이방 여자'(낯선 여자)를 뜻한다. 그녀는 외모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말로 유혹하였다(16). 그녀의 말은 '아침하고 자존심을 부추기는 것으로 순진한 젊은 남자를 속이는 것이었다.
- 2:17. 올바른 길을 떠난 악한 자와 같이(2:13) 음녀도 자신의 원래의 결심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소시의 짝(친밀한 짝)인 남편을 버렸다(17).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저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이 구절은 말라기 2장 14절의 결혼 언약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와의 하나님의 언약이 간음으로 인해 깨어졌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 2:18-19. 음녀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된다. 음녀의 집은 말 그대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장소이다.(18) 이 말은 음녀와 관계를 갖는 자가 정말 죽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방식이 죽음의 방식이라는 뜻이다. 또한 이것은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재정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육체적인 죽음에도 이르게 될 것이다.
- 2:20-22. 지혜를 찾는 자는 옳은 길에 서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산상 수훈에서 보여주신 결론과 같이(좁은 문과 길, 넓은 문과 길 마7:13-27) 마지막 구절은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겠지만 악한 자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뽑혀질 것이다. 이는 마치 나무가 잘리고 뿌리째 뽑혀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B. 지혜의 가치(3:13-24)

- 요약: 지혜는 돈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귀와 영화, 더 나아가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주고 죄와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해 준다.
- 3:13. 이것은 잠언서에서 나타나는 '팔복'(복이 있다) 중에서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것이다(3:13; 8:32, 34; 14:21(행복); 16:20(행복); 20:7; 28:14(행복); 29:18(행복)). '행복하다'는 단어는 그 문단의 결론 부분인 잠언 3장 18절에서 다시 나타난다.
- 3:14-15. 잠언 기자는 마치 상인처럼 자신이 갖게 될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다. 과연 무엇을 취득할 때 가장 큰 유익과 이윤을 얻게 될 것인가? 금과 은은 부인할 수 없는 부귀영화의 수단이지만 그런 것들은 오직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도 얻게 한다.
- 3:16. 지혜는 양 손에 선물을 들고 있는 여자와 같이 그려지고 있다. 그녀의 왼쪽 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 오른쪽 손에는 좀더 좋은 것으로 장수라는 선물이 있다.
- 3:17. 지혜는 기쁨을 주고 화평을 준다. 화평(히브리어로 샬롬, shalom)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 3:18. 지혜는 새로움과 성숙을 가져다주는 생명나무로 묘사되고 있다(11:30; 13:12;15:4). 창세기 2장 9절에서 나타나는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타나는 생명나무, 여기서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 이처럼 지혜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준다.
- 3:19-20.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지혜를 사용하셨고, 이것은 잠언 8장 22-31절에서 더욱 확장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커다란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고(20, 창세기 6장의 홍수) 잔잔한 이슬이 맺히게도 한다(20).
- 3:21. 21-24절은 새로운 단락. 지혜와 명철을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으로 시작된다. 즉 지혜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 3:22. 21-26절의 핵심적인 생각은 지혜가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생명이 되며 목에 은혜가 될 것이다.
은혜와 장식 비교 설명, 잠1:9, 은혜롭게 말하는 것 혹은 은혜로운 장식
실제로 여기서는 영적인 생명(혼의 생명), 그러므로 혼을 살리는 은혜
- 3:23.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있는 길은 커다란 안전을 제공해 준다. 진실한 사람들이 때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죄의 결과는 피하게 된다.
- 3:24. 그 결과 지혜로운 사람은 불안감으로 인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다. 잠언 3장 25-26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평안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진다.

결론: 솔로몬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인생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 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의 지혜는 그의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정교해졌다. 그는 죄로 인해 혼탁해졌던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보았다. 그리고 누이동생을 농락했던 자기 형을 보았고, 그 일로 인해 그 형을 죽인 또 다른 형도 보았다. 그는 탐욕과 정욕과 폭력의 파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말할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해야만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포함해서 다른 젊은이들이 인생을 망쳤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 장에서 그는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부탁한다.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라고 신신당부한다. 그는 아들에게 약속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며,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지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촉구한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을 한다.

금과의 보물을 찾듯이 최선을 당해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 줄 것이다.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2장

▣ 적용하기

- 재물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열정과 노력으로 지혜를 추구하라.
- 친구를 사귄다. 지혜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라.
- 해롭고 자기 파괴적인 길을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지혜의 유익을 최대한 누리라. •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2장 1-4절에 나타난 동사들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나의 말을 받으며, 감추어 두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듯 구하며, 보물을 찾듯 찾으라. 이것은 마치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제발, 제발, 제발 너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다 경험해 보았고, 다 목격하였고, 다 알고 있다.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너를 해치는 것이 있다. 부디 지혜롭게 선택하라. 성숙한 자가 되라." 그런 다음에 그는 지혜와 성숙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다.

티칭 가이드

A. 지혜를 따르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잠언의 시작 부분인 1-9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간과해 버린다.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이다. 모든 중요한 단락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시작된다(1:8; 2:1-2; 3:1, 21; 4:1, 10; 5:1, 7; 6:20; 7:1-3, 24). 어떤 부모들은 이러한 독려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녀에게 어떤 경고를 준 다음에 자녀가 바로 문제 상황에 빠지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잠언에 아무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교훈에는 많은 반복이 있지만 귀를 기울여야 할 몇 가지 실제적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주의하는 것이다(4:20). 예수님은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 13:9)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끝맺으셨다. 그분은 귀가 있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훈계하셨다 (마 13:13-15). 우리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할 때 잠언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2:2).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인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다.

세 번째는 마음을 명철에 두는 것이다(2:2). 이는 겉으로 드러난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에게 전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그 말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들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감추어 두는 것)(2:1; 7:1). 그것은 그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지혜를 간직하는 사람은 깨달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고안해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기 쓰기나 기록을 해두는 습관, 또 다른 사람들과 그 주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등이 있다. 어떤 경우든지 지혜를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도움의 유익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3:1; 4:5; 3:21; 4:21 참고). 지혜는 매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가 자기 인생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머릿속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더 나아가서 지혜를 삶의 습관으로 삼는 것이 있다. 그래서 7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마음 판에 기록하라고 말한다. 판에 기록한다는 것은 철판이나 혹은 석판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글자를 새겨 넣는 것을 뜻한다.

B.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잠언의 초반부는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가 성인이 되기를 준비하는 젊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잠언의 제일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부성애적인 대화의 이면에는 어떤 가족 관계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잠언 1장 1절은 솔로몬이 이 모든 지혜로운 대화의 저자임을 말하고 있다. 그는 수천 명의 부인과 후처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려고 했을 것이라고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르호보암이 많은 지혜의 조언들로부터 유익을 얻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는 아버지 솔로몬에게 조언을 주던 노인들의 충고도 무시해버리고(왕상 12:8), 결국 왕국의 대부분을 잃어버렸다. 이 점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스스로 따르지 못했던 점(왕상 11:1-14)이 결국 아들도 비뚤어지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잠언 4장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가족 간의 상황에 눈을 뜨게 만든다. 솔로몬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사랑 어린 교육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윗은 압살롬과 암논과 같은 장성한 아들에게 적절한 훈육을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삼하 13-18장), 이스라엘 왕으로 미래의 책임을 맡기고자 하였던 솔로몬을 가르치는 데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왕상 2:1-4).

잠언 4: 잠언으로 복 받고 성공하기

성경말씀: 잠3:1-10

지난 1년 동안 서창 캠퍼스를 짓고 오늘 첫 예배, 전체 과정은 2년 8개월

여러 집으로 이사다니지만 어찌면 우리 모두가 짓고 즐길 수 있는 최대의 집, 100억 원이 넘는 집 어떤 면에서 성공한 것이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크게 발전

그런데 건물의 크기가 실제로 성공의 척도는 아니다.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짓고도 불행한 사람이 많다.

히브리말로 잠언은 '잠언'은 '다스리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책으로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법칙을 담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잠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발견해야 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

잠언에는 구원, 교리, 메시아 예언, 재림 등이 전혀 없다.

또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가 아니므로 즐거리가 없다.

한두 줄로 인생의 문제들과 해결책을 요약해서 보여 준다. <잠언으로 복 받고 성공하기>

잠언의 목적(잠1:1-7)

잠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인간들

잠언에는 세 종류의 사람: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단순한 자

1. 어리석은 자: 목이 뻗뻗해서 건전한 교훈과 조언을 거부하는 사람, 다 안다고 하는 사람, 동의어는 죄인, 위선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의 어원: a. 에빌: 습관적으로 몸과 혼을 부주의하게 쓰는 사람(7:22; 10:8; 13:21; 11:29)

b. 케실: 마음이 강박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약 50번(1:22,32; 3:35 등)

c. 나발: 반역하려는 마음을 가진 속된 사람(17:7,21; 30:22)

d. 성공하려면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 어리석은 자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2. 지혜로운 자

지혜: 1. 초크마: 42회,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길, 올바른 원리

2. 비나: 분별, 명철로 번역되기도 함(Understanding), 깨달아 알다.

3. 라브: 마음을 뜻한다. 우리가 내적으로 아는 지혜

4. 에르마: 민감함(1;4; 8:5)

5. 사칼: 상식

6. 세켈: 통찰력을 뜻한다(잠3:4; 12:8 등)

3. 단순한 자: 간교함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 바른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울 수 있다(잠1:4).

4.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지혜로운 자는 많지 않다. 대다수가 어리석거나 단순하다.

어리석으면 구제 불가, 단순하면 구제 가능, 단순한 자를 구제하려는 것이 잠언의 목적

성공과 축복의 비결(잠3:1-10)

이번에 우리가 큰일을 이루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사람으로 살다가 넘어진다. 현금해서 예배당 지었으니 복 받는다는 번영 신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1. 아버지의 훈계와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다.

보수주의: 과거의 지혜들을 존중하는 것,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사악함,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 땅에서 설혹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 결과(2); 장수와 화평,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5계명; 출20:12)

2. 긍휼과 진리: 긍휼을 먼저 둔다. 이것은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마9:13)

진리를 내세우다가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타락하거나 추락하는 사례가 많다.

마태복음, 바리새인들 다 안다고 하면서 세리 창녀 등 죄인 취급, 무시

아이들, 아내, 사업주 같은 일하는 직원 등을 긍휼이 여기라는 것

그 결과 4절, 호의를 얻는다. 좋은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이웃에게서 호감

3.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너를 의지하지 말라(5). 신6:4-5의 쉼

4. 항상 하나님 인정, 이번에 교회를 지었다. 우리가 노력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 금요일에 건물 처분(할렐루야!), 그 전 날 사고, 건물 승인 금요일 저녁 5시 30분

우리가 노력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5. 주를 두려워하라(7), 잠1:7,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공통 특징: 주님을 두려워한다.

아이들에게 머리와 가슴에 박히도록 강조해야 한다.

그래야 죄를 떠날 수 있다. 그 결과 육신의 평안이 온다(8).

6. 우리에게 있는 재물로 주를 공경하라. 존귀하게 하라. 누구에게 선물을 하는가? 존귀한 사람에게

이번에 건물을 지었다. 이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재물이 풍성히 불어난다.

나는 변영 신학을 심히 미워하는 사람, 몇몇 구절을 문맥 밖에서 인용하여 성경을 왜곡하기에(빌4:10-13)

그러나 오늘 서창 캠퍼스를 짓고 오후까지 남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선함 마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하려 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렸다.

1. 잠3:10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 창고를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는다.

2.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육신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7).

3.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6).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원(고후13:14)

서창 캠퍼스에 들어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2.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3. 성령님의 교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친밀한 교제

잠언 15: 인생에 성공하려면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성경말씀: 잠4:20-27, 23

잠언에는 인생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많이 있다. 지혜는 곧 예술

지난 시간, 잠언 3장, <잠언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복과 성공>

장수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1-2),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 사는 것(3-4),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5-6), 네 재물로 주를 공경하라(9),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 얻으라(13)

오늘 4장,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2-5절)

악한 자들을 피하라(14-19), 고전15:33, 속지 말라. 악한 사귀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20-27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사는 법이 나와 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여기를 자세히 보아야 한다.

특별히 23절, 생명의 모든 산물이 마음에서 난다. < >

1. 내 귀에 무엇이 들어오는가?(20)

귀에 들어오는 것이 생각, 마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지 주의해야 한다.

사도 바울,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
는 말을 하라(엡5:4),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시
1:1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해야 한다.

그것들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21-22). 그것들이 육신의 건강도 준다.

2.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23)

상호 작용, 마음이 사랑하는 것들, 눈이 그것들을 보고 귀가 그것들을 듣는다.

아이들, 어디를 가든지 아이스크림, 장난감, 미국에 가면 나는 컴퓨터, 카메라, 서점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창39장), 결국 감옥행

다니엘처럼 단1:8,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생명의 이슈들, 삶과 죽음, 인생의 문제들, 삶의 모든 활동들
마음이(Heart) 이렇게 중요하다.

성경은 다음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두 마음(시12:2), 강박한 마음(잠28:14), 교만한 마음(잠21:4), 불신의 마음(히3:12), 차가운
마음(마24:12), 더러운 마음(시51:10)

시편 기자의 고백,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시139:23)

3.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입 밖으로 나온다(마12:33-37).

마15:18-20

그래서 성도들은 건전한 말을 해야 한다(딤후2:8), 소금에 간 맞춘 말(골4:6)

잠언은 성도들의 말에 대해 강조한다(24절). 입(mouth, 50회), 입술(lips, 40회)

뒤틀어진 입술(4:24), 거짓말하는 입술(12:22), 아첨하는 입술(20:19), 속이는 입술(24:28)
제지되지 않는 입술(10:19)

잠13:3,)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넓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라.

4.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과를 가져온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보았다(히11:10)

그의 조카 롯,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창13:10, 12)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행동, 결정

우리는 히12:1-2(2절)를 해야 한다.

5. 어떤 길로 다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후13:5),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주님은 저울에다 우리의 길들(잠5:21), 마음(21:2), 행동(삼상2:3)을 다신다.

우리의 길이 지혜의 길이 되기 원한다.

6.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시24:3-4,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마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결정한다. ★★★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15:18-20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음 지키기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성경의 마음 지키기와 세상의 마음 지키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마음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노력으로(도를 닦아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에 대해 부정적이다(렘17:9-10).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마음은 사람을 죄 속으로 밀어 넣는다.

아무도 마음을 알 수 없다. 심지어 본인도 본인 마음을 모른다.

성경은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겔36:26)』

종교와 복음의 차이

아담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새 마음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뒤에 성령님이 그 새 마음 안에 거주하신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흉갑을 입고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마음이다. 여기에서 이생의 삶과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그른가 살펴야 한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 잠4:23

하나님은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고칠 수도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를 고치소서: 회개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소서: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10:10).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의 루디아(행16:14).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므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마음과 양심의 문제: 말씀이 해답이다.

잠언 16: 간음과 음행 등 성적인 죄는 멸망과 사망을 가져온다

성경말씀: 잠7:1-5

잠언은 인생의 지혜 제공, 잠언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다. 특별히 5-7장에는 간음과 음행 같은 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인생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과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혼을 잘 지키는 것도 인생의 지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다.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 요약

일곱 번째 명령: 너는 간음하지 말라(출20:14)

즉 결혼한 부부끼리의 성적 결합 이외의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이다.

레18, 롬1:18-32; 고전6:9-20; 엡5:1-4 등을 보면 동성애, 수간, 음행 다양한 형태의 성적 범죄가 언급된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다.

인간의 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므로 사람이 합당하게 성을 사용하는 것도 규정하신다.

약 6주 전에 코로나 3주 앓고 몸의 회복을 위해 걸으려고 제주도 3일, 이번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이들 제주도 걸으러 갔다. 관광객, 제주도 올레길 걷는 사람들의 다수가 20-30대 청년 남녀. 특징:

거의 다 결혼하지 않고 같이 다닌다. 식당 여주인: “이게 보통이에요.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몸을 함부로 쓰다가 어떻게 다른 남자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반응: “시대가 변했어요. 모세나 솔로몬 시대가 아니에요. 거의 모두가 다 이렇게 해요. 인생의 법칙은 계속 변하지요.”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산다. TV, 영화 등이 동성에 조장, 간음 및 음행 보통 사람들은 따라서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크고 흰 왕좌 심판의 심판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하다고 하신다.

솔로몬의 잠언은 무려 세 장을 할애하여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성적인 죄를 패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1. 성적인 죄는 우리를 실망시킨다(5), 2. 우리를 파괴한다(6). 3.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7).

1. 성적인 죄는 우리를 실망시킨다(5)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면 성생활 자체가 기쁨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깨면 기쁨이 사라지고 수치심과 실망이 오게 된다. 그러면 마약처럼 중독에 빠져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희열을 동경하고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신 이유: 1. 생식,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창1:28). 2. 부부 간의 기쁨 잠언 5장에서 솔로몬은 성적 범죄가 결국 실망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인다.

1. 성 범죄는 달콤함에서 쓴 맛으로 변한다(1-6)

낯선 여자(5:3), 2:16, 5:20; 6:24; 7:5; 20:16; 22:14(복); 23:27; 27:13

낯설다(strange): 아무 관계가 없다. 즉 결혼한 관계가 아니다.

시작은 달콤하지만(5:3-4) 속같이 쓰다. 시작은 매끄러우나 끝은 칼같이 날카롭다.

잠언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보여 준다.

지혜로운 자는 표를 사기 전에 목적지를 점검한다(4:26).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번을 어긴 결과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길(생각)과 사람의 길(생각)은 다르다. 어느 면에서 정반대다.

2. 성 범죄는 이득에서 손해로 변한다(7-14)

유혹은 장밋빛 약속, 이것이 바로 미끼이다. 그래서 넘어간다.

잠시 잠깐은 약속의 열매 성취, 기쁨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고 만다. “내 아내보다 이 여자가 저를 더 잘 이해합니다.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파멸

그러나 9-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자가 맞이하는 엄청난 손해가 나와 있다.

3. 성 범죄는 순수함에서 오염으로 변한다(15-20).

팔레스타인 지방, 물이 소중하다. 그래서 물 이야기

정상적인 부부 생활, 깨끗한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생명을 가져다주는 강
간음과 음행 등 성적 범죄: 시궁창/하수구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하수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종말 처리장을 가 보라. 거품과 함께 더러운 물
성적 범죄는 깨끗한 강물을 더러운 거리에 마구 버리는 것, 허비하는 것
결혼 약속을 지키는 것: 깨끗한 강이 하수구가 되지 않게 하는 것(18)

말2:14, 젊을 때 취한 아내: 15세

4. 솔로몬의 조언(19-20)

결혼한 크리스천 부부: 하나님과 서로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이유가 없다.

5. 자유에서 속박으로(21-23)

선택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유를 지혜롭게 쓰라고 하신다.
21절을 보라. 잠15:3을 보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시느니라.
선택의 자유를 잘못 쓰기 시작하면 속박의 노예가 된다. 사사기 13-16장의 삼손을 보라.
결국 그는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빠지고 곡식을 가는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삿
16:21-22).

한계와 경계가 있어야 죄를 멈출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요8:34), 롬6:16

아버지의 훈계(22-23); 낯선 여자에게 가지 말라. 사망의 방들로 들어간다(7:27)

2. 성적인 죄는 점차 우리를 파괴한다(6)

6장에는 한 사람을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파괴하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다.

1. 보증서는 것(1-5), 2. 게으름(6-11), 3. 정욕(20-35)

1과 2는 나중에 다른 구절들과 함께 설명함

오늘은 20-35절 설명

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20-24)

잠5-7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것이 경고 이전에 나온다(5:1-2; 6:20-24; 7:1-5).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
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히13:4)

생명의 산물들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므로(잠4:23)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야 한다(시
119:11).

주님의 말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마5:27-3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한다.

2. 재물을 잃는다(25-26)

5:7-14와 유사하다. 가난하게 된다.

이혼 등 송사

3. 기쁨을 잃는다(27-31)

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품에 품으면 우리를 태운다(27-28).

성욕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 밖에서 추구하면 사람을 망친다.

배고픔(30-31), 당연한 욕구, 그러나 흠치면 수치를 당하고 값아 주어야 한다.

4. 분별력을 잃는다(32): 명철이 부족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 다윗

5. 평안을 잃는다(33-35), 간음 대상자의 남편, 물불을 안 가리고 복수하려 한다.

3. 성적인 죄는 결국 죽음으로 우리는 이끈다(7)

솔로몬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강조(1-5)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2). 눈동자가 망가지면 시력을 잃는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망가지면...

많은 경우 성적임 범죄는 눈에서 시작된다.

7장은 간음하는 여인에게 빠지는 순진한 남자의 예

낮선 여자의 최종 목적지: 사망의 방(27)

1. 그는 스스로를 유혹한다(6-9). 그는 죄를 가지고 놀다가 적당한 때에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유혹에 빠진다. 밤에 거리에 나와 유혹의 장소를 배회한다(8).

위어스비 목사님의 40년 목회 증언: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유혹에 빠진다.

2. 여자에 의해 유혹에 빠진다(10-20). 거미줄의 거미, 거미줄을 친 뒤 파리 등을 유심히 보고 있다.

낮선 여인도 마찬가지로, 희생물을 보고 있다가 덮친다. 남편이 출타 중(19), 바로 이때에 스스로

즐기려고 마음을 먹음

그리고는 그 청년을 희생물로 삼음, 부추기는 말(15)

3. 그는 결국 주님을 시험한다(21-27), 그는 결국 감언이설에 넘어감(21), 소나 새처럼 된다(22-23)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경각심 사라짐

현시대의 특징: 이렇게 하는 자들을 지원한다(롬1:32).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결론

성적인 범죄 역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롬1:16).

고전(6:9-11), 주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고칠 수 있다(11).

고전6:18.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조심시켜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채 남녀가 여행가게 하는 것, 안 된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가르쳐야 한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은 삼각형이다(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성 범죄를 이기는가?

1. 성경적 양심, 2. 유혹이 오면 물리쳐야 한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3. 굳게 결심해야 한다.

4.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미리 결정하라. 5. 그리스도와 바울의 예를 늘 염두에 두라: 아버지의 뜻 추구.

잠언 17: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명철한 사람이 되라

성경말씀: 잠8:1-36

잠언은 인생의 지혜 제공, 지혜는 인생살이의 기술(art), 8장은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장
이 장에서 지혜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다. 지혜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재물이 주는 유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지혜를
소유하셨는데(22), 그 지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며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든다.
우리가 '지혜'와 사랑에 빠질 때(8:30)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다.

지혜는 도시의 복잡한 장소들로 돌아와서 다시 모든 사람을 불러 말씀을 듣게 한다(1-2).

8장에서 지혜는 의인화된 여자(2절, 3절, 그것이 영어로는 She, her)

(*)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8:1)

Doth not wisdom cry? and understanding put forth her voice?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8:2)

She standeth in the top of high places, by the way in the places of the paths.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은 많은 경우 여자로 표시된다(*).

(*)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내 입의 말들에서 빛나가지 말라(4:5).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forget it not; neither decline from the words
of my mouth.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4:6).

Forsake her not, and she shall preserve thee: love her, and she shall keep
thee.

지혜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른다(5). 1:22 원래 3종류의 사람들을 부른다. 그런데 8장에서
지혜는 비웃고 경멸하는 자들은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돌아서기를 거부한 자들(히4:7-8)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벧후3: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8장이 가르치는 교훈

1. 지혜는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2. 지혜는 자신을 가장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을 선사한다.
3. 지혜를 훈련하는 방법은 결국 참된 자유를 얻는 방법이다.

이 장에서 지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1. 지혜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6-9)

지혜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6가지 특징

1. 내가 말하는 것들은 뛰어난 것들이다(7). excellent, 으뜸가는 것들
2. (*) 옳은 것들이다(6, 9), right, left가 아니라 right이다.
3. 내 입의 모든 말들은 의롭다(8). righteous
4. 진리이다(7).
5. 비뿔어지지 않았다(8).
6.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다(9). 고전2:12-16, 하나님의 창조
7. 6절은 참으로 중요하다.

2. 지혜를 얻으면 참된 부를 소유할 수 있다(10-21)

물리적 의미의 부나 재물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함(10-11)

지혜는 단순히 은행에 돈을 쌓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금은동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재물, 부(18-19), 잠2:4; 3:13-15

구약의 마6:33,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구약시대 사람들: 부는 하나님의 축복, 좋지 않은 일은 저주 혹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지 못한 것
아브라함, 다윗 등 부자, 그러나 물질적인 부가 축복의 상징은 아니다.

많은 경우 경건하게 살면 부도 많이 소유하였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욥의 경우, 그의 친구들 번영 신학, 욥의 멸망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마19:23-26),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단 말인가?

그런데 지혜는 이런 물질적인 부가 아닌 다른 부, 영원토록 지속되는 더 좋은 부를 제공한다.

분별(12), 지식(12), 현명함(8:12), 재치(12), 주를 두려워하는 것(13)은 악을 미워하는 것, 겸손(13),

경건한 말, 지혜로운 계약(14), 명철(14), 인생의 힘(14)=통치와 경영, 영원히 지속되는 부(18)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에는 부요한 사람(18-21)

돈이 주는 것들의 기쁨은 좋다. 다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지 않는다면: 요셉, 아브라함,
다윗

아무리 부자라 해도 지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런 부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1.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6). 들을 것을 촉구한다. 왜 두 귀와 한 입, 많이 들으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 훈계를 받으라(10)
3. 진리와 지혜를 사랑하라(17, 21)
4.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매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일찍 구하라(17).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말씀도 읽고 출근하면서 찬송도 듣고, 공예배를 중히 여기고 등
5. 하나님의 앓고(21)

3.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일들을 볼 수 있다(22-31)

세상의 창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들(22-31 읽고), 욥기12:7-10

창조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드러난 지혜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 수 있다(고후5:17; 엡2:10)

여기의 지혜는 여성, 그리스도를 의인화한 것이다.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런데 귀어 신학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또 현대 여성주의자들을 위시한 일부 학자들은 여기의 지혜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여신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구약의 유일신 사상이나 어떤 여신의 존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을 강조한 잠언의 논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혜의 속성을 단순히 여성적인 이미지로 의인화하였다는 견해가 맞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의 말씀(요1:1-4, 골1:16)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분(히1:3).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분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 안에서 걸으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일한다(롬8:27 등)
그 반대가 되면 요나처럼 어려움을 당한다(욘1).

3.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32-36)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뒤 결단을 촉구한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35-36).

사람을 바꾸는 결단: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결단이 확실하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삶이 변할 것이다.

이런 결단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36).

그 결과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계20:11-15)

오더번의 헌신

유명한 자연주의자이자 예술가인 존 오더번(John Audubon)은 새에 대해 연구하였고 새의 종족 전파를 위한 정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는 쪽독새(nighthawks)를 연구하고 그것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밤마다 습지에 가곤 하였다. 어느 여름 오더번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물새를 관찰하기 위해 뉴올리언즈 근처의 호수를 여러 번 방문하였다. 그는 고여 있는 물속에서 몸을 목까지 담그고 간신히 호흡을 하면서 새를 관찰하였는데, 그때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 그의 얼굴 옆을 지나갔다. 그 순간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는 나중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럴 수 있었던 새의 그림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값진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사람이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희생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거나 삶을 더욱 편하게 만드는 것들일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은 힘든 일이고, 어쩌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 경주의 끝에서 받는 상은 힘든 일을 통해 얻은 것이고 반드시 놀라운 유익이 있는 것이다.

결론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런 것들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지혜를 얻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삶의 적용: 돌아갈 배를 불태우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코테즈(Cortez)가 멕시코 정복을 위해 7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베라크루즈에 처음 상륙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타고 온 7척의 배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의 부하들은 불타는 배를 바라보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사라졌고 새로운 세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삶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는 것만 뼈저리게 느꼈다. 돌아갈 희망이 사라지자 그들은 오직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심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목표를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전의 삶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과거의 영향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돌아갈 길을 기억해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전의 삶에 완전한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전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면서 강조했던 것이다.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화평과 사랑과 희락의 길이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소원이 온전히 충족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자신의 배에 불을 지른 코테즈처럼 우리는 정신적으로 예전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삶의 모습보다 더 나았다는 생각에 불을 지피야 한다. 불순종과 무례함과 게으름의 삶과 온전한 단절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눈을 들어 지혜의 길이 보여주는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는 과거의 일로 끝내야 한다.

잠언 10:1-18
성경말씀: 잠9:1-18

잠언은 인생의 지혜와 명철 제공, 지혜는 인생살이의 기술(art), 명철은 분별력
8장은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장, 지혜가 여인으로 나와 사람들을 초청한다.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라.
9장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두 여인으로 나타나 자신들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사람들을 초청한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청: 무엇을 원하는가? 잔칫집인가, 장례식장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바뀐다.

어깨 위의 천사(*)

서양에서 유혹(Temptation)은 때로 한쪽 어깨 위에는 천사가, 다른 한쪽 어깨 위에는 마귀가 앉아서
서로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천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며 올바른 일을 하게 하는
반면, 마귀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따르며 지금 당장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 물론 누가 이기는가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달려 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잠언 9장에서 솔로몬은 한쪽 어깨 위에는 지혜의 천사를, 다른 쪽 어깨 위에는 어리석음의 마귀를 올려놓은
뒤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한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그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어리석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의 결과를
바라본 후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선택의 결과를 보는 능력은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영적으로 근시안적인 사람만이 자기 앞에 놓인 결과를 보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음을 행하게
하려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준비(1-2)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자신에게 배울 것을 요청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어리숙한 사람일지라도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생명을 얻고 재난을 피할 수 있다.
8장에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한다(22-31). 이번 장에서는 큰 집을 짓고 거기서 잔치를
베푼다(1-2). 유대인들은 자기가 기르는 소나 양을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나 양을 먹는 일은
흔하지 않고 사람들이 늘 바라는 일이다. 지혜는 짐승을 잡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린다.
포도즙을 섞는다(물 4분의 3). 물이나 향료를 넣고

초청(3-6)

이번에는 여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자신의 초청 메시지를 보낸다(3).
단순한 자들 초청(9:4), 1:22 원래 3종류의 사람들을 부른다. 그런데 8장에서 지혜는 비웃고 경멸하는
자들은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순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명철이 부족한 자들,
4-5절)만 부른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비웃지 말라.

우리에게 주는 충고: 초청을 잘해야 한다(7-9)

지혜의 초청을 비웃는 자(죄인들): 회개하지 않고 책망을 수용하지 않는다(7-8).

지혜로운 자들: 초청을 수락하고 이로써 은혜와 유익을 얻는다. 마7:6 참조

지혜의 초청에 응하고 잔치에 참여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10-12)

1. 초청을 수용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게 해 주신다(10). 더 많은 명철(분별력)
인생의 좋은 결정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 The knowledge of the holy(the holy, 복수형),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는 것(마6:9), 매튜 헨리 등, 이것이 명철 즉 분별이다.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 오역 혹은 줄역
2.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생명을 더해 주신다(11).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즐길 수 있다.
3.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아니라 네게 문제가 생긴다. 잘 들으면 네게 유익이 된다.

저 자신을 위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 좋은 성품을 갖게 해 주신다(12). character,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가정, 교회가 보장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의 정죄(13-18)

여기서는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이 창녀로 묘사되며 창녀가 가져다주는 종말이 나온다, 창녀 역시 동일하게 단순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자기 집으로 부른다(14-16). 높은 곳들에서 초청한다.

누구를: 자기 길을 올바르게 가는 자들을

이 초청에 응하면 그들은 잔칫집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게 된다. 자기들의 장례식장

잠5:15-18, 솔로몬, 결혼 생활은 깨끗한 샘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먹는 것

여기의 창녀는 다른 사람의 샘에서 도둑질한 물을 준다(17).

결혼 생활, 깨끗한 샘을 지켜 주는 펜스의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이 물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출20:14,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여전히 십계명에 있다.

우리의 결단

미국 속담에 “불을 가지고 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데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잠언도 같은 말을 한다(6:27-28). 만약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위험한 일을 한다면 그는 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그저 장난삼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신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죄의 인과 관계에 의한 결과가 있다. 당신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죄의식으로 인해 감정적인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죄의 울무에 걸려서 가족이나 당신의 명예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의 채찍이 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징계하신다(히12:5-12).

세 번째, 그것은 영적인 공격의 기회를 제공한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두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엡4:27).

그래서 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성적인 부도덕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한다면 반드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삶의 적용: 5대양을 향해하기

당신이 자유롭게 5대양을 누비며 향해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나침반을 보고 올바른 방향대로 따라야만 한다. 이처럼 삶의 모든 일들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요구한다. 우리는 충치를 감수하는 대신에 칫솔질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칫솔질을 하는 대신에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칫솔질도 하지 않고 충치도 생기지 않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완벽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는 삶을 원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정적인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도덕적인 권위를 갖기 원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육체의 건강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도덕적 순결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의 삶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결정하라. 그런 다음 그에 대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자유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을 감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최종 적용

18절을 보라. 영원한 파멸 이야기, 그러므로 여기의 창녀는 영적으로 마귀를 말한다.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

초청을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그분의 지혜에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여기에 중간 회색 지대는 없다(마12:30).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헤치는 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는가? 잔칫집인가, 장례식장인가?

잠언 14: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7가지 특징

성경말씀:

잠언 1-9장은 솔로몬의 잠언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인생의 기술로 인생을 만들어 가라.

지혜의 간곡한 초청, 솔로몬의 간곡한 호소, 잠1: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문제들에 대한 잠언

그래서 장별로 강해할 수 없고 같은 주제를 말하는 구절들을 모아서 강해한다.

일단 1-9장에는 지혜로운 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비웃는 자 등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알 수 있다. 잠언의 목적 달성

1. 지혜로운 자

잠언은 지혜를 얻는 길을 보여 주는 안내서

솔로몬은 여기저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성을 기록해 놓았다.

현시대 가장 큰 지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복음의 이해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워서 다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지식보다 구원(영생)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이것들을 찾고 결국 거기에 다다른다(딤후3:15).

그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므로(고전1:30)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2:3)

물론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영어 living, life의 차이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

1. 지혜로운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1:5).

기록된 말씀과 설교를 잘 듣는다(22:17-21).

예수님: 듣는 것(막4:24), 어떻게 듣는지에 주의해야 한다(눅8:18)

먹고 마시는 것 몸의 성장, 듣고 보는 것 혼과 영의 성장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23:23)

지혜를 얻으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적용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그냥은 안 된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것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다르다.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 진영 30년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 잡다한 것들을 섭렵한 사람들

그러나 삶의 변화(갈5:22-23)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OOO, 저렇게 교만한 사람은 처음 본다. 안하무인인 사람은 처음 본다. 강제 추행

유명한 미국 사람을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잭 하일스, 럭크맨

고전8:1,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

2.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말이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읽고 듣고 보는 것에 늘 주의를 기울인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쓰레기를 마음에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잠4:23)

TV, 유튜브, 카톡 등 절제

3. 주님을 두려워한다(1:7; 3:7).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분을 존중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려 한다.
반대: 그분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시험하려 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생명의 샘(14:27), 안전 보장(14:26); 소망(23:17-18), 장수(10:27)
그러면 삶의 우선권이 정해진다(15:16).
4. 지혜로운 자들과 사귀다(13:20). 현시대 사람들이 아니라도 성경의 지혜자들과 사귀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요셉, 다윗, 예레미야 등
5. 지혜를 쌓아두고 적당한 때에 사용한다(10:14). 마음에 지혜를 쌓아두면 합당한 때에 사용하게 된다.
12:27 설명,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을 굶지 아니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아이패드, 킨들
6. 악을 미워하고 죄를 피해 도망한다(14:16). 삼손의 멸망을 보라. 요셉의 도망을 보라(창39:7)
바울의 경고 딤후2:22,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7.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잠10:19; 16:23), 잠언은 사람의 말에 대해 큰 비중을 두므로 한 시간에 걸쳐 설명하려 한다. 혀의 파워를 인지하고 늘 조심한다.
8. 부지런히 일한다(10:4).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잠언의 주요 주제, 나중에 상세히 공부할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살려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책무를 감당한다.
9.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11:30).
즉 하나님의 지혜로 무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설득하여 주님께로 인도한다.

잠언을 주신 목적

지혜로운 자들의 이런 특성들을 살펴보고 연구하여 우리 것으로 삼으라는 것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자.

2012년 10월 18일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언제나 한 단어의 성경적 용례가 어떠한지 성경 전체를 찾아보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말씀보존학회의 이상한 번역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3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The fruit of the righteous [is] a tree of life; and he that winneth souls [is] wise.

말씀보존학회 성경은 끝부분을 “혼들을 이겨 오는 자는 지혜로우니라.”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겨 온다’는 말은 우리말에 없는 말입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영어를 보면 win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중고등학교에서 win은 ‘이긴다’라고 배웠으므로 이것을 살리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말이 안 되게 만드는 번역은 성경을 오히려 망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Yea doubtless, and I count all things but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do count them but dung, that I may win Christ,

이 구절의 끝부분에는 win Christ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보존학회 식으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이겨 오고’라고 해야지요?

별써 웃기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서 win에 해당하는 말은 켈다이노(스트롱 번호 2770)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For what is a man advantaged, if he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mself, or be cast away?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켈다이노를 gain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인 틴데일 성경은 이 단어를 win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win과 gain은 같은 말입니다.

KJB의 전체적인 용례를 살펴볼 때 대개 사물을 얻을 때는 gain으로, 사람(인격체)을 얻을 때는 win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쓰는 21세기 영한사전으로 17세기의 영어를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win에 대해 다음의 용례를 보여 줍니다.

6.6 To get, obtain, acquire; esp. to get as something profitable or desired; to gain, procure. a.6.a with concrete (material) obj. Obs. or arch. exc. in specific uses: see 7

또 이것은 고어로 쓰이는 용례라고 보여 줍니다.

즉 win은 얻다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win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얻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혼들을 이겨 온다’는 이상한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을 망치는 사례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좋은 목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샬롬

잠언 10: 성경이 말하는 사악한 자의 7가지 특징

성경말씀: 잠6:12-19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들, 그래서 장별로 강해할 수 없고 같은 주제를 말하는 구절들을 모아서 강해한다.

잠어에는 지혜로운 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비웃는 자 등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알 수 있다. 잠언의 목적 달성

지난 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9가지 특징>, 1. 지혜로운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1:5). 주님을 두려워한다. 배운 것을 잘 적용한다.

잠언에는 사악한 자들과 그들의 사악함이 100회 정도 언급됨, 대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과 대비되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또 내게 이런 요소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잠6:12-19은 악한 자들과 그들이 범하는 죄들을 보여 준다.

사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가치가 없다. 유익을 주지 못한다.

히브리말 벨리알, 벨리는 없다. 알은 유익. 그래서 그들은 가치가 없는 자들(말씀을 저리는 자들 신13:13; 동성애하는 자들 삿19:22; 삼상25:25(나발); 왕상21:10,13, 나봇의 거짓 증인). 고후6:15 그리스도와 벨리알 대비

죄는 파괴적이며 동시에 비생산적이다.

사악한 자들을 해부해 보면 모든 것이 악하고 그의 몸짓은 악을 전달한다(롬3:10-18).

12-15절 설명

그의 입은 늘 왜곡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를 신뢰할 수 없다.

그는 악을 행하려 할 때 동업자들에게 눈짓을 하고 신속하게 발을 움직이고 손가락질을 한다.

이런 모든 악은 그의 내적 존재가 사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마음에서 모든 악한 일이 나온다(막7:14-23; 렘17:9-10).

그는 악을 도모하며 그 결과 분쟁이 생긴다. 그는 불화의 씨를 뿌리는 트리블메이커

그러나 그가 기대하지 않는 시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15).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제어되도록 내맡겨야 한다.

잠4:20-27

사악한 자가 저지르는 죄의 명단은 잠6:16-19, 하나님은 이것들을 미워하신다.

가증한 것은 대단히 크게 미움을 받는 것을 뜻한다.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6:17)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6:18) 사악한 상상의 피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달는 발과 (6:19)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1. 교만(한 눈빛)

대개는 모든 사람의 죄의 동기가 교만이다.

사탄 루시퍼의 죄(사14:12-14).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려 한다.

이브의 죄(창3:1-6), 신들과 같이 된다.

교만의 정의: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함.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시 18:27; 잠 29:23; 렘 50:31). 오만, 거만, 교만하다가 실패한 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한 파라오(출 5:2) ② 에스더 당시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 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하만(에 3:5) ③ 신(神)으로 자처하다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멸망당한 두로 왕(겔 28:2-9) ④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다 정신 질환에 걸려 짐승처럼 행세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단 4:30) 등이 있다.

가장 큰 교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진화론

잠8:13,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특히 초신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딤후3:6).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
잠11:2를 보라.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오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2. 거짓말하는 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신32:4,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요14:6; 요일
5:6)

거짓말은 사회 안에서 분열과 파괴를 일으킨다.

거짓말을 하면 마귀가 일하기 시작한다. 그는 거짓말의 근원(요8:44).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한다(엡4:14-25). 진리의 영(요14:17)

지옥에는 거짓말쟁이들을 위한 장소가 있다(계:21:8, 27)

3. 살인(피를 흘리는 손)

살인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살인하지 말라(출20:13).

하나님은 국가의 정부가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허락하신다(창9:5-6;
롬13:1-7).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오염시킨다(민35:30-34).

자유주의자들로 인한 사형제도의 붕괴, 사람을 파리 죽이듯 죽인다.

또 낙태를 한다.

전8:11,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느니라.

지옥에는 살인자를 위한 장소도 있다(계21:8, 21).

4.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이라는 큰 선물을 오용하는 것(창6:5; 8:21; 렘23:17,
렘1:21 등)

상상력 자체는 중립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여기에서 나온다.

좋은 계획으로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나쁜 계획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혹은 상상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늘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펼치는 선한 계획을 사용하신다.

사람의 죄 많은 마음은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다(렘31:33-34, 히10:14-18),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51:10).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잠4:23).

5. 악을 행하려고 빨리 움직이는 발

이들은 신속히 악을 집행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재빨리 움직인다.

아름다운 발(롬10:14-15), 예비된 발(엡6:15)

순종하는 발(수1:3; 3:15)

우리가 이런 발을 가지면 자정, 교회, 사회에 복을 가져온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죄를 모의하고
짓기 위해 발을 사용한다.

busybody,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하는도다(살후3:11),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름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나니(딤후5:13).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잠5:5; 7:11).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다(1:10-16).

6. 거짓 증인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 거짓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9번째 명령, 출20:16

진리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붕괴되고 만다.

특히 정부 관리들이 거짓말을 하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

결혼 서약, 법정 진술 등이 잘못되면 사회가 붕괴한다(미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의 확신).

진리는 모든 지식의 기초이고 사회를 굳건하게 해 주는 시멘트이다.

7.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

시133:1,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쁘는가! in unity
사악한 자는 연합을 부수는 씨를 뿌린다. 그 결과 시기와 질투 분열이 일어난다.

불화의 씨: 교만, 가십, 증오, 분노, 분쟁, 어리석은 질문(딤후2:3-5; 딤후2:14, 23)

경건한 사람들이 뿌리는 씨: 연합과 화평, 불화가 아니다(약3:17-18).

특히 교회에서 불화의 씨를 뿌리면 주님의 기도에 배치된다(요17:21).

성령님을 주신 목적: 연합(엡4:1-3)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불화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

가정, 성경 공부 그룹, 교회, 한두 사람의 불화의 씨가 망친다.

잠22:10을 기억하라.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라.

우리 교회 모두를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규칙과 틀이 있다.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결론

주님의 교회에 주어지는 지혜(약3:13-18)

세상의 지혜, 교회를 부순다(전3:16-23).

사8:20을 기억하라.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악한 것들을 피하는 성도들이 되자.

잠언 11: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6가지 특징

성경말씀: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 분별력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사귀어야 하는 사람, 피해야 하는 사람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비웃는 자 등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알 수 있다. 잠언의 목적 달성

지난 2주, 지혜로운 자, 사악한 자, 오늘 어리석은 자(Fool)

fool(66, 42), 108, foolish(52), 총160회

fool, folly, 라틴어 follis, bellows, 바람통, 허파, 불쑥 튀어 오른 빵, 즉 실체는 없고 바람만 있는 사람, 거인처럼 보이는데 바람이 빠지면 피그미처럼 왜소하게 된다.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 총 3종류의 어원

1. 고집이 세고 우둔한 자, 2.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성이 없는 자, 3. 짐승같이 우둔한 자
이들의 특징은 많지만 여기서는 잠언에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8가지로 요약하려 한다.

1.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1: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IQ가 낮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이 문제다. 진화론자들, 하나님과 기독교를 대적하는 유명한 박사들, 롬3: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의 아버지도 그를 교육할 수 없다(15:5).

그와 논쟁을 벌이면 결국 어려움만 가중된다(29:9).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이유: 그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즐긴다(15:21). 어리석음이 그들의 기쁨

죄들에 대해 경고하면 오히려 우리를 비웃는다(14:9).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 중요한 데다 정신을 쏟지 않는다(17:24).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귀한 것을 말하면 판청을 피운다.

즉 분별력이 없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환상의 세계에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 우리가 사는 어려운 세상에서 확고하게 땅에 설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리석게 된다.

2. 말을 자제하지 못한다(15:2).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 내느니라.

이들은 교만하여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14:3).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지 알기도 전에 말을 한다(18:13).

29:20,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12:15),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가 보기에 옳으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므로 무언가 옳은 것을 말해 줄 수 없다.

많은 것을 말하는데 그 말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10:8).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라.

나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쉽다, 이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 거짓말과 중상모략(10:18)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주변에 모이지 않는다(15:7, 17:7).

주님의 말씀: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막4:24).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들이 말을 시작하면 종종 싸움이 벌어진다(18:6-7)

3. 이들은 자기 분노 혹은 성질을 이기지 못한다.

12:16

14:29(17:28)

29:11

어리석은 자들의 진노를 일으키지 말라. 그것을 견디기 어렵다(27:3).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것들 돌보다 무거우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과 의견이 다르면 조심해야 한다(26:4).

고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만 힘들다.

4. 이들은 대개 자기 확신이 크고 교만하다.

26:12, 28:26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알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렘17:9).

대다수 사람들,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산다.

칭찬, 과장,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창3:5).

신들과 같이 된다. 뉴에이지 철학

자기 확신이 크므로 항상 참견하고 논쟁을 일으킨다(20:3).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존귀가 되지만 모든 어리석은 자는 참견하려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쓸데없는 논쟁을 막고 피한다.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질문, 논쟁을 일으키며 안 된다.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일이다.

5.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에게 슬픔을 가져온다.

10:1(15:20, 17:21, 25),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모든 아버지의 주문(27:11), 내 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러면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하리라.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아이들 이야기가 많다.

창4의 가인

창28의 에서

창37, 야곱의 아들을

삼손(삿13-16)

다윗의 아들들(암몬, 압살롬, 아도니아)

그런데 이런 자들을 고치기는 대단히 힘들다(27:22). 네가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이로 찼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모들은 어릴 때에 아이들을 교정해야 한다. 잠22:15,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어리석은 어른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교정된다.

6. 재물을 어리석게 쓴다.

21:20,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그는 모든 것의 값은 알지만 값어치는 모른다.

그래서 재물을 헛된 데 쓴다(29:3). 눅15의 탕자

지혜로운 자들은 자식들, 후대들에게 유용한 것을 남긴다.

어리석은 자들, 재물 기회 다 허비하고 죽는다(19:10).

7. 자기의 책임을 모른다.

26:1,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 때의 비 같으니라.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명예와 존귀를 얻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명예를 얻으면 여름의 눈과 같다. 수확기의 비와 같다.

잠26:3-12, 어리석은 자의 책임 이야기

짐승처럼 매질을 해야 한다(3).

잘못하다가는 것처럼 되기 쉽다(4-5)

어떤 사명을 주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6).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 길이가 다른 것처럼 이들은 어리석은 말을 한다(7)

술 취한 자처럼 남을 실족시키고 망치고 자기도 망한다(9).

이런 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고 다시 거기로 간다(11).

벤허2:22 인용,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8. 자기 길을 망치고는 주를 향해 안달한다.

19:3,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대표적인 사례: 출5-15의 파라오

자기가 나라를 다 망치고도 주님께 돌아서지 않는다.

주님과 모세 대적,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추격, 그의 군사들과 대장들 의사

하나님의 징계 훈육, 지혜로운 자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형벌, 어리석은 자들 더 반항

어리석음만 먹기 때문에 도덕적인 힘이 없다(15:14).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사느니라.

10:21,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

그들의 영과 육 모두 기진하고 많다(16:22 참조).

결론

어리석은 자들은 교훈을 받지 않다가 결국 파멸한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의 말씀(12:2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네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혜로운 바보들, 그리스도인들(고전4:10),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며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세상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이들은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다.

잠언 12: 경멸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피해야 한다

성경말씀: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 분별력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사귀어야 하는 사람, 피해야 하는 사람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비웃는 자 등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알 수 있다. 잠언의 목적 달성

지난 3주, 지혜로운 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오늘 < >,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의 특징 설명: 이러 사람을 피해야 한다. 성품을 고쳐야 한다.

영어 scoff, mock, scorn (*)

영어 scoffer, mocker, scorner, the scornful

scorner 9:7, 8: 13:1, 14:6, 15:12, 19:25, 21:11, 21:24, 22:10, 24:9

scorners 잠1:22, 3:34, 19:29

scoffers 벵후3:3

scornful 시1:1, 잠29:8, 사28:14

mockers 유1:18

잠언에는 약 13구절이 조롱하는 자(비웃는 자)에 대해 말한다. 얼굴의 변화(비웃음) (*)

솔로몬의 잠언 시작: 잠1:20-23

조롱하는 자의 정의

선한 것과 진리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자, 그 결과 자기를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망친다.

조롱하는 자의 특징

1.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

조언과 권위를 무시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멸한다.

사춘기 아이들의 문제, 기존 권위를 경멸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경멸하는 얼굴, 몸짓

교만한 진노를 표출하며 행동하는 자를 일컬어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21:24)

누구에게 가장 큰 반감을 가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

2. 가장 큰 특징: 가르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지혜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14:6).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없다.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는 비웃는다.

3. 이들의 특징: 경솔하고 건방지다.

지적 영적 무기도 없이 조롱과 경멸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한다.

이들이 조언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무지를 알 수 있다.

잠9:7-8

13:1

15:12

이들에게 조언을 주거나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마7:6).

4. 자기 마음대로 하므로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이들의 말: 상관하지 말라”

그 결과 게으름을 피운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는 게으른 자가 되기 쉽다(잠12:27).

남의 종이 되기 쉽다(12:24).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

아예 일을 안 한다(26:13-15).

5. 이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가정, 직장, 교회 등)

온 도시에 문제를 일으킨다(29:8).

6. 팀 켈러의 정리

1. 독단적이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
2.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3. 지적 능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지적 태도의 문제

1. 교만(21:24)

2. 자기 확신(9:8, 15:25)

조롱하는 자의 발생 원인

부모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조롱하는 자가 생긴다(잠13:1)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잠22:15)

17:21,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슬픔을 얻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권위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권위가 나쁜 것이다.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진다.

조롱하는 자의 치료 방법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힘들다.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이다(잠23:26).

치료 방법: 매와 추방(19:25)

때려서라고 고쳐야 한다.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러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잠19:25)

그래서 내쫓아야만 한다.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라. (22:10).

성인의 경우 형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견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시1:1)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격노로 나를 채우셨으므로 주의 손으로 인해 홀로 앉았나이다(렘15:17)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불신의 시작은 이런 자들과 어울리는 데서 시작된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잠 13:20).

마지막 때의 조롱하는 자들의 교회 핍박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경멸한다(요15:18-19).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진화론자(*)

벤허3:3-5, 유1:18,

(유 1:18)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진화론, 낙태, 동성애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좌익 사상(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단 교리, 사이비도 마찬가지

유명한 스코퍼들

1. 볼테르(1694-1778)의 말: 프랑스의 철학자(무신론자) 볼테르가 장담하기를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50년 만에 내가 기독교를 다 파괴하며, 백 년 안에 성경을 다 없애버리겠노라고 했다. 그는 결국 임종에 이르러 [아, 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말하여 자신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고백했다. 그의 말과는 반대로 성경은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이다.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심판과 지옥에 대해 성경대로 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버트런드 러셀(1872-1970), (*)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무정부주의자, 좌파, 회의적 무신론자

(*)

1.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에게도 원인이 있어야 한다.
2.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결함이 있다.
3. 또 지옥이 있다고 가르친다. 종교의 기반은 두려움이다.
3. 리처드 도킨스(1941-), (*) “신은 착각이다. ... 그것은 유해한 착각이다.”
신은 철저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며,
이 망상이 인간을 억압하고, 비인간화시키며,
인류에 재앙을 가져다준다.
4.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한다(사5:20).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 28:14) ¶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사 28:22)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를 결박한 끈들이 단단해질까 염려하노니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소식 곧 온 땅을 향해 작정된 멸망 소식을 들었느니라.
결국 패망한다.

세상 역사, 종교 역사에는 조롱하는 자들의 기록이 많다.

창11장을 보라. 바벨탑

출14장을 보라, 파라오

단4를 보라, 느부갓네살

행12:20-25를 보라. 헤롯 아그립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일(3:34),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면 결국 하나님의 조롱을 받는다(3:34).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신다(갈6:7)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증한 존재들이다(24:9). 그래서 심판이 있다.

19:29, 심판은 비웃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결론

권위를 가진 존재들(부모, 교사, 지도자, 하나님)을 경멸하며 조롱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고전2:1-3의 바울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른 것,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스코퍼

<https://apologeticspress.org/apologetics-and-the-scoffer/>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행20:28-31, 약3:13-18을 읽어야 한다.

잠언 13: 단순한 자들의 어리석음과 단순함의 아름다움

성경말씀: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사귀어야 하는 사람, 피해야 하는 사람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비웃는 자 등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알 수 있다. 잠언의 목적 달성
지난 4주, 지혜로운 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경멸하며 비웃는 자
오늘 < >, 단순한 자의 특징 설명: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한다. 성품을 고쳐야 한다. 또 동시에 신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인 단순함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단순한 자들의 어리석음

잠언에서 우리는 단순한 자, 비웃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삼 형제를 만난다.

지혜의 첫 번째 초청 잠1:22

두 번째 초청 잠8:5, 비웃고 조롱하는 자는 없다.

세 번째 초청 잠9:4, 단순한 자와 어리석은 자만 부른다. 이 둘에게는 희망이 있다.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다시는 초청을 받지 못할 수 있다.

simple(20, 시편잠언 17회, 겔 1회, 롬 2회), simplicity(구약 2회, 신약 3회, 총 5회), 25회

1. 정의

단순한 자는 모든 것을 믿는 어리숙한 사람이다. 이유: 매사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해, 모든 사람을 인정해!” 이것은 사실 영적인 무지이다.

즉 그들은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한다.

잠14:15)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잘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사람의 모든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현시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지 않고 목사의 말, 교회의 말을 믿는 것
요일4: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성령님: 진리의 영, 마귀: 오류의 영, 요일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1. 내가 선지자라고 하면 가짜이다. 직통 계시 주장

2.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구원이다. 가짜이다. 엄청난 규모의 돈 요청

3. 각종 은사 집회, 무질서한 음악 및 예배, 그 결과 책을 읽지 못하는 성도, 이런 사람이 단순한
자이다. 설교를 듣고 성경이 더 잘 이해되어야 좋은 설교이다.

2. 현시대의 특징

특히 현시대에는 단순한 자들이 많다. 대한민국을 보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자 40%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선동을 받아 느낌대로, 마음대로 투표한다.

현시대의 특징: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매도한다.

미국의 경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있다. Politically correct

낙태, 동성애 반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무조건 여성을 올려 주어야 한다. 남녀평등 말하면 차별주의자

소수자(외국인, 성소수자 등) 당연히 평등하게 대한다. 다만 성소수자의 경우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 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학력을 기재하지 말라.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 이것은 공산주의, 결국 모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한다. 인천 공항

이러다 보니 현시대 다수의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치켜세운다. 그래야 사람들의 비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3. 대다수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 객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무엇이든지 내가 보기에, 느끼기에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진리이다. 이런 사람이 단순한 자 창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니라.

사회적 통념: 내가 믿는 것에 대해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할 사람은 없다.

이런 것들에 능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모임의 장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믿는 것을 즐긴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된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너를 해치지 않아.’ 이것은 거짓말이다. 의사나 자동차 수리공에게 물어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를 크게 해칠 수 있다.” 잠1:32 이는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4. 왜 단순한 자가 되는가?

단순한 자들이 단순한 것은 지혜와 신중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버리기 때문이다(1:4).

민감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절대적인 기준이다.

비극은 무엇인가? 이들은 자기들의 단순함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1:22).

그는 자기의 주관 혹은 확신이 없으므로 결국 모든 일에 실족한다.

그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 창고를 파지 않고(2:4-6) 무엇이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행한다.

5. 잠7:7을 보라. 단순한 자의 말로를, 간교한 창녀에게 넘어가는 단순한 청년

다른 사람들이 죄들로 인해 형벌받는 것을 보고는 그때야 무언가를 배운다.

19:25;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러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21:11, 비웃는 자가 형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잠14:18, 단순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상속하지만 분별 있는 자들은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을 통해 배운다.

단순한 자들은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실례를 보아야만 깨닫고 배운다.

지혜로운 자는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한다. 단순한 자는 그냥 나가다가 충돌해 버린다.

22:3 분별 있는 자는 해악을 미리 보고 숨으나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27:12 분별 있는 자는 해악을 미리 보고 숨으나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6.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어떤 점에서 무지한 자들이다.

그런데 단순한 자는 자기가 단순하다는 것을 모른다. 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무지가 축복이다”라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앞에 있다면 무지는 어리석은 일이다.

단순함의 아름다움

단순하다는 말은 잠언에서 확신이 없는 사람과 그런 사람의 특성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

신약성경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롬16:18,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문제가 많다.

특히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게 되었고 고린도전후서에서 먼저 이 교회를 책망한다. 그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지혜와 철학에 몰들어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교회의 분열(1-4장), 법정 소송, 이혼, 여인들의 옷차림, 주의 만찬 등과 관련된 도덕적 무질서(5-11장), 영적 선물(12-14장), 성도들의 부활(15장) 등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준다.

복음의 단순함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단순함의 예

고후1:12

1. 그는 세상에서 단순하게 살았다. 단순함을 터데일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음'이라고 번역함(즉 간교함이 없이). 기독교에서 simplicity는 대단히 중요한 말, 구약은 대단히 복잡하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시스템이 복잡하다. 구원 방법이 복잡하다. 기독교는 단순하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도리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후11:1-4). 한 하나님, 구원(믿음, 은혜), 구원의 안전 보장, 어린양의 피, 단번 속죄, 예배, 교회 구조, 성도들의 삶
 2.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진실함(고전11:1).
 3. 이 둘의 반대가 육체의 지혜이다(잠수). 철학(골2:8)과 가짜 과학(딤후6:20)
 4.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 성도의 삶의 자세
 5. 이것이 우리 양심의 증언이다. 양심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기능이다. 이것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한다. 이것이 망가지면 구원받은 사람도 파멸에 이를 수 있다(딤후1:5; 18-20).
 6. 특히 목회자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요즘 미니멀 라이프,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복잡한 사람이 아니다. 사실 복잡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되기 어렵다.

고후11:4

뱀이 이브를 속였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되었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우리의 자세

1. 롬12:8,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 2, 롬16:19,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잠언 14: 도둑질과 게으름에 대한 성경의 교훈(그리스도인의 돈 문제)

성경말씀: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다.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비웃는 자 등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알 수 있다. 잠언의 목적 달성
가난한 자, 부자, 게으른 자, 근면한 자, 도둑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된다.

오늘 < >, 그리스도인의 돈 문제, 재물과 경제 문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노후에 아이들과 잘 지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의 노동 및 재물관,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labor)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엡4:28)

노동을 한다. 육체적인 노동만을 생각한다.

사전의 정의: 노동: 몸을 움직여 일을 함.

『경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재물을 얻는 법: 1. 도둑질, 2. 노동해서 힘들여 버는 방법, 3. 선물로 받는 것(상속 등)

도둑질은 죄: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출20:15)

수고하는 것은 존경받을 일, 옛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출20:9),
솔로몬은 잠언에서 돈과 노동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한다.

도둑질 하는 자, 열심이 노동하는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

도둑 가운데는 게으름을 피우는 게으름뱅이도 있다.

게으름뱅이: 일은 안 하고 남이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자, 그래서 이런 자들도 일종의 도둑이다.

솔로몬의 교훈: 아무리 부자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돈보다 중요하다(잠16:16; 2:1-5; 3:13-15;
8:10-12), 마6:33을 상기시킨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늘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도둑질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이유 설명

1. 도둑질 하는 것

잠언 서두, 법을 어기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계획에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말라(잠
1:10-19). 10절, 이것은 도둑질이다.

이것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속박으로 가두며 결국 무덤으로 가게 한다(죽인다). 19절

일하지 않아도 아무 위험도 없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잠13:11; 28:22; 10:2).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잠13:11).

잠21:5-7은 돈을 버는 세 가지 잘못된 방법 소개

1. 조급한 자의 잘못된 계획을 따르는 것(5), 2. 거짓말하는 것(6), 3. 도둑질하는 것(7)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는 계획: 대개는 속임수, 사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데 속아 넘어간다. No pain, no gain

사실 사기는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없다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생에서 무엇이든 취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2.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 사업을 할 때 정직해야 한다.

부정직은 강도질이다(잠11:1; 16:11 20:10, 23 등).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잠11:1).

울법도 정직한 되, 정직한 추, 정직한 저울 사용 강조(레19:35-36; 신25:13-16).

아모스 당시의 관행 속이는 것(암8:5, 미6:11,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내가 가진 자원들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잠 11:25-26).

가뭄과 기근 때에 곡식을 숨기고 팔지 않거나 엄청난 이득을 붙이는 것은 죄악이다(느5).

우리의 자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전4:7; 요3:27). 우리는 청지기이다

사업은 이윤을 내는 것이 목표,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면 바른 자세가 아니다.

3.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가장 큰 도둑 중 하나는 게으름뱅이이다. 일할 수 있는데 노는 사람들

남이 생산한 것을 허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산적인 것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게으름뱅이는 잠언에 적어도 17번, 좋은 것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다. 아담에게 저주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는 일을 하였다(창2:15).

예수님 공생애 이전 목수(막6:3)

바울 천막 만드는 사람(행18:1-3)

당시 랍비들, 직업이 있었다. 학생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합당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성품 면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일하는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눅10:7; 딤후5:18).

4. 게으름뱅이의 특징

1. 잠자기를 좋아한다(6:9-11; 26:14).

잠은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잠은 사람을 파괴한다.

지혜로운 자는 달콤한 잠을 잔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기에

수고하는 자의 잠도 잘다. 열심히 일하였으므로(전5:12)

그러나 게으름뱅이의 잠은 이기심의 표시

결국 게으름뱅이는 잠에 마취가 되어 배고픔과 헐벗음, 속박과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

2. 게으름뱅이를 일하게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잠10:26).

이빨의 식초나 눈의 연기, 죽이지는 않지만 힘들게 한다.

게으름뱅이도 이와 비슷하다.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들에 대한 꿈만 꾸지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21:25).

3. 모든 것을 아는 척한다.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26:16), 그는 환상의 세계에서 살므로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13:4; 21:25-26).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삶에서는 그중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4. 변명하는 데 능수이다.

쟁기질하기에 날씨가 춥다(20:4),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받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는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름은 인과 관계를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게으른 농부는 지체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받을 가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은 실제로 늦은 가을이나 겨울 초입을 의미한다. 날씨는 점차 추워질 것이고 게으른 자는 빈둥거리다가 쌀쌀한 날씨에 밭갈이를 하는 힘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을 갈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확 때에는 수확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수확이란 농부가 적절한 때에 씨앗을 심는 수고를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밖에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22:13, 26:13)

그 결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들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잠 15:19).

부지런함 사람들은 일할 이유를 찾는다. 게으름뱅이들은 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그래서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5. 게으름뱅이에게 닥치는 일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는 평생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야 한다(잠19:15).

살후3:6-15, 사도 바울의 경고,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성도들의 책임: 열심히 일해도 스스로 살 수 없는 분들을 돕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려는 사람을 돕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들은 심지어 먹여 주지 않으면 음식도 안 먹는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19:24).

그 결과 결국 자유를 잃고 남의 종이 된다(12:24). 빛이 늘어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유를 잃고 힘들게 일해야 한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과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자원을 다 허비한다(잠18:9).

일을 하기는 해도 좋은 일꾼은 아니다. 할 수 없이 하므로

그래서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허비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기회를 다 허비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확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잠10:5).

추수할 때가 되면 일하려 가야 한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최대한 잘 이용하려고 한다.

게으름뱅이에 대한 결론(잠24:30-34)

이 단락은 게으름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잠언 기자는 게으른 사람에게 속한 밭을 지나가게 될 때 자기가 느낀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그 밭에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언뜻 보기만 해도 그 주인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밭은 뒤죽박죽이었고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다.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밭에 그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주변의 돌담 역시 보수되지 않아서 동물들이 쉽게 들어와 포도를 먹어치울 수 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하며(32절),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33-34절). 그것은 게으름은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잠언 기자는, 게으름은 결국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가난으로 인해 모든 소유물은 사라질 것이고 그는 모든 것을 도둑맞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다.

현 시대의 문제: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한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맥스 앤더스, 디모데

주어진 일을 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다. “성취된 작은 일은 계획된 커다란 일보다 낫다.” 이 말은 사실이다. 만들다가 중단된 케이크나 반만 지어진 집 혹은 심겨지긴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인생은 신뢰성에 의해 좌우된다. 인생은 자기 일을 완성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것이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과 같은 큰일이든 잔디를 깎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든 간에 완성될 때 가치가 있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노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 아니다. 우리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지 않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나의 대학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곳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대한 곳이었다. 그 공장에서 일꾼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 수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능력급제로 보수를 받았다. 그들은 한 시간에 일정한 개수의 제품을 만들어야 했고 그 수를 채울 때 자신의 시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제품을 만드는 데는 사실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일꾼들은 15분 동안 일을 하였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앉아서 45분 동안 카드놀이를 했다. 즉, 하루 종일 매시간 15분 일하고 45분 동안 놀았던 것이다.

내 친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는 카드놀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매우 심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분량을 만들었고 이는 다른 일꾼들이 만든 양의 네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다른 일꾼들은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제품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는 이 일을 상부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사장을 찾아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산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일을 계속하게 한다면, 그 공장의 생산량은 네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였으므로 상이나 혹은 다른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장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어조로 분명하게 잘라 말하였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와 오랫동안 협상을 해 왔고, 힘들어서 제품의 생산 개수를 현재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일에 끼어들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고, 만약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냥 주어진 개수만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와 아이들은 일하고 살아야 한다.

주님의 큰 평안을 기원한다.

잠언 15: 가난의 문제와 원인 그리고 나눔의 아름다움

성경말씀: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살다 보면 경제 문제, 인간적인 배려 문제에 봉착한다.

가난과 궁핍의 문제, 돈이 있을 때 나누는 문제

오늘 < >, 가난과 궁핍의 문제와 원인, 나눔의 아름다움, 솔로몬의 잠언은 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 문제

과거 이집트 탈출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 시내산 율법 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라면 가난한 땅이 열매를 내고 그들은 가난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거의 없고 학대와 억압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 사람과 짐승이 안식을 얻음(출20:8-11)

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 땅과 일꾼들이 안식을 얻음(출23:10-11)

50년마다 희년이 있었다. 땅이 안식을 누리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감(레25:8-34). 25:10을 보라.

땅의 복원력 향상, 부자가 영원히 가난한 자 착취하는 것 방지, 부자가 경제 좌지우지 방지

신15:1-4, 11등 참조

그러나 대하36:20-21, 유대와 이스라엘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음

그 결과 바빌론 포로 생활, 땅의 안식

오늘은 일단 이런 일로 인해 생기는 가난 말고 스스로 가난을 가져오는 원인

가난의 원인

-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다. 일이 있는데도 일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일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잠10:4;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사람을 부하게 만드느니라). 20:13.
- 쾌락을 사랑하면 가난하게 된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21:17). 술주정뱅이와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있다.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걸치리라(23:21). 사람이 탐욕과 쾌락의 지배를 받으면 시간, 에너지, 돈, 기회 등을 허비된다.
- 불행하게도 젊은 시절에 훈련을 잘못 받거나 일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을 것이나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13:18). 무슨 일을 하든지 주어진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교정과 책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상사를 존중히 여기는 것 등은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눅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라. 집 나가기 전, 아버지에게 늘 '주세요'. 다시 온 뒤: '저를 품꾼 중 하나로 여겨 주소서.' 그는 밖에서 아버지의 훈련의 가치, 힘든 일의 기쁨 등을 배웠다.
-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늘 궁핍하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르게 할 뿐이니라(14:23).
- 재정 계획을 잘못 세워서 가난한 사람도 있다(잠21:5).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서 가난한 사람도 있다(6:1-5). 특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빚보증(17:18). 유대인들, 동료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자 없이.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이 빚보증을 서면 안 된다.
- 판단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된다(13:23). 혹은 판단의 공의가 없어서 즉 자기들이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다(13:23). 특히 사악한 치리자들, 사업가들의 횡포,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14:31).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지만 주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22:2). 특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약2:1-8).

1. 그들을 경멸하면 안 된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14:21).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해 특별 관심을 가지고 있다(잠 22:22-23).
2.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이 공정한지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29:7).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3. 치리자에 대한 경고(28:3; 29:14). 네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31:9)
4.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니 그가 베푸는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19:17).
5. 그런데 교회가 돕기 전에 먼저 가족이 도와야 한다(딤후5:4, 8). 이렇게 해야 교회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6.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다(21:13). 특히 목사와 집사들(지역 인도자들)은 돕는 일을 지혜롭게, 편파성이 없게 잘해야 한다. 어떤 때는 돕는 것이 해가 될 수 있다.

나눔의 아름다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윈스턴 처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일에 관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극도로 미워하신다.

1. 우리의 관대함에 대해(3:27-28), 일반적인 태만 죄
2. 관대한 자가 복을 받는다(11:24-27, 17), 3. 관대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22:9).
4. 가난한 자 구제(28:27)
5. 하나님의 뜻: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와야 한다. 사회, 교회 모두
6. 결론(19:17), 그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을 경멸하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친다.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다(욥 31:13-15; 잠 22:2). 또한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생명과 빛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29:13). 그리고 두 부류 다 세상을 떠날 때에는 세상에서의 모습을 버리게 된다(3:19).

신약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특권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다(약2:5). 요한은 도움이 필요한 동료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요일 3:17-18).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 욥은 자신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고아를 도왔으며, 과부를 격려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변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욥29:12-17). 모세 율법 역시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에 빠진 동족을 강박하게 대하지 말며 그들에게 손을 벌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도우라고 명령하였다(신15:7-11). 관대하게 베푸는 것은 인생을 배우는 것, 잠언의 교훈

잠언 16: 부자가 되는 방법: 일의 유익과 재물에 대한 경고

성경말씀: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살다 보면 경제 문제가 생긴다. 가난한 자가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관대하게 배려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이유가 있어서 가난하다.

1. 일을 하지 않아서, 2. 쾌락을 사랑해서, 3. 젊은 시절에 훈련을 잘못 받아 일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해서, 4.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5. 재정 계획을 잘못 세워서, 6. 판단이 부족해서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은 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하기를 포기한다. 그 결과 가난하게 된다.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다. 잠언은 부지런함에 대해 많이 말한다.

근면의 유익(10:4; 12:24; 13:4; 14:23; 15:19; 16:26; 18:9; 20:13; 21:17, 2526; 28:19)

사람이 부지런하면 대개는 부자가 된다. 그런데 부자에 대한 충고와 경고의 말도 많다.

오늘 < >, 경제생활,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유익과 경고

일하는 것의 의미

누구나 일을 하며 산다.

골로새서 3장 22-24절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우리 일의 대상 즉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집안일이 많고, 방을 청소하거나 침대를 정리해야 한다면 당신은 이 모든 일을 부모님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배구나 축구 선수로서 경기를 좀더 잘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한다면 단지 자신이나 코치 혹은 당신이 속한 팀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당신은 운동 신경이 발달하였거나, 근력이 있거나, 지적인 재능이 있거나, 사람들을 잘 만나는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손재주가 좋거나 일을 잘 진행시키는 기술이 뛰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있거나,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있거나, 가르치거나, 돈을 계산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한다.

때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아름다운 화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화려하게 가꾸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화단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받은 재능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

게으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잠언에 의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노동을 회피하고, 그저 누워서 편안히 쉬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에너지를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 데 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근면이 물질적 안정을 얻기 위 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간단하며 이해하기 쉬운 원리다. 게으름은 가난을 낳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재물을 낳는다. 잠언은 근면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계속해서 알려준다.

그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

우리말 사전, 부지런하다: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태도가 있다.

1. 부하게 되려면,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잠10:4; 14:23).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사람을 부하게 만드느니라.

현시대의 특징: 일(work)을 원하는 사람이 줄고 일자리(job)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상은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일부는 일하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자기들은 손을 놓고.

2.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수고에 복을 주신다. 헛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13:11).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둔다.

3.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한다(21:5). 16:3

에디슨의 말: 내 모든 발명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수고의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상의 모든 유용한 것들이 일을 통해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4. 부지런한 사람은 빚지는 것에 신경을 쓴다(22:7). 누구나 대개 빚을 지고 산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남의 종이 된다.

5. 이상한 현상이 있다.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면 더 많이, 더 크게 일하는 것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일복이 터진다. 교회도 비슷하다.

잠22:29,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부지런히 일하는 것의 가장 큰 복: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 요셉의 경우를 보라. 형들의 시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서 고생, 결국 이집트 총리 다윗의 경우, 양치는 목동, 골리앗을 죽임, 그 뒤로 10년 이상 죽을 고생,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시78:70-72)

여호수아, 신실하게 모세를 따름, 그 다음 지도자

6.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 멸망한다(30:7-9).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별하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부자가 되면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서 부자가 될 때 조심해야 한다(18:11). 눅12:13-21의 부자

1.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11:28).
2. 돈은 금방 날라 간다(23:4-5 등).
3. 부자는 돈이 많으므로 친구가 많은데 돈이 떠나면 친구도 떠난다(14:20, 19:7). 사람의 재물은 행복, 평안, 좋은 이름(22:1) 등을 살 수 없다.
4. 돈에 대해 잘못 생각하면 가정과 우정이 깨진다(15:27). 유산 상속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과 원칙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 우정, 가정에 금이 간다.
5.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27:24).

부와 재물이 유익이 되려면

1.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마6:32).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기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품과 지혜 등이 돈이나 소유보다 중요하다.

잠4:7-8, 7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이다. 8 그것을 높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잠3:35, 지혜로운 자들은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높여지는 것은 수치가 되리라.

2. 부지런한 손은 부지런한 마음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즉 사람의 내적 부분의 훈련이 중요하다(잠4:23). 내적 사람의 훈련: 1. 기도, 2. 말씀 묵상, 3.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훈련받아 부지런한 살며 풍족함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는 절제이다(갈5:22-23). 절제는 내적 훈련을 뜻한다.

3. 진정한 부와 생명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22:4).

부유한 자의 책임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비교(21:25-26), 관대하게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들의 관대함에 복을 주신다(11:24-25). 22:9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이 부지런한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육신의 재물 면에서도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잠언 17: 은혜로운 말이 주는 유익

성경말씀: 10:19-21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다. 오늘부터는 말 문제, 분노를 다스리는 것, 절제하는 것, 우정 등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한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디모데, 맥스 앤더스 오늘 < >,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골4:6).

때로 우리 입에서는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이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

어떤 말실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재미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말실수들은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전혀 재미있지도 않다.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말, 옳고 그름에 관한 말 그리고 격려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은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명예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도 하고 축소하기도 한다.

솔로몬은 우리 삶을 격려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말을 사용하라고 조언하면서 어리석고 혼란스러운 말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고 경고한다.

은혜로운 말의 선물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 3장에서 말의 힘에 대해 언급함.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약3:2,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

사실 야고보는 이미 잠언에서 언급한 가르침을 다시 풀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도 나타낸다.

이제부터는 주제별로 구절 순서대로 설명한다.

A.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

(14:3; 15:2,7; 16:23; 18:6-7; 19:1; 23:15-16)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말로 넘쳐흐르게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그의 사려 깊지 못하고 완고한 인품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1. 14:3.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입에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는 말은 미련한 자의 말이 '거만함으로 인한 매'를 부른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단지 그의 말을 듣기만 해도 그가 얼마나 거만, 교만, 오만한지를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כות대를 낮추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오만불손한 말은 필연적으로 매의 고통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리석은 자 혹은 거만하며 미련한 자는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러한 매의 결과를 만들지 않고 그를 보존한다.

2. 15:2.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 내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말은 '말을 기술적으로 혹은 온화하게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가 지식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지식의 가치를 보여 주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원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을 쏟거나(잠15:28) 혹은 분수대에서 뿜어 나오는 물처럼 어리석음을 뿜어낸다. 그의 말은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드러낸다.

3. 15:7.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지식을 펴뜨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이 지혜로운 자의 입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대조해서 보이는 방식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의 말과 마음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친다. 입술이 아무생각 없이 말하는 바는 마음이 느끼는 바가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마12:3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더 넓히는 데, 확장하는 데 유익한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말을 통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4. 16:23.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고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마음이 그의 입술을 주장한다. 즉 그의 입이 신중하게 말하게 한다. 그 결과 그의 말은 남을 돕고, 상처를 치료하며,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의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게 만든다.

5. 18:6-7.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부르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울무이니라.

입술과 입은 한 사람의 말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구절은 어리석은 자가 말을 할 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한다. 그의 말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 종종 그의 표현은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때리기까지 한다. 그의 말은 그가 멸망하거나 파멸하게 만들고, 그를 사로잡는 그물이 된다.

6. 19:1 자기의 온전함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오니라.

이 잠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가난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정직함, 순전함을 유지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다. 이 구절은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부패하고 타락한 어리석은 자의 언어생활과 대조하고 있다.

7. 23:15-16. 내 아들이야,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 곧 내 마음이 기뻐하겠고 참으로 네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또 다른 동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 여기서 내 '속 중심'은 문자적으로는 '신장(kidney)'을 의미하는데 이는 종종감정의 처소로 나타나는 부위이다. 육신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아들이 의로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말을 할 때 더욱 기쁨 것이다.

B. 의로운 말과 악한 말(10:20-21, 31-32;11:11;12:13-14; 13:2; 15:28; 17:4)

잠언에서는 지혜와 의로움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위로도 올바른 것(의)을 행할 뿐 아니라 말로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의 말은 단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음모일 뿐이다.

1. 10:20-21.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고 사악한 자들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

20절은 의로운 사람의 말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1절은 왜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잘 정제된 은과 같이 의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보기 힘든 희귀한 보화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너무 경망스러워서 그의 생각이 가치가 있을 때에라도 그의 말을 외면하게 된다.

2. 10:31-32.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리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지만 사악한 자들의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이 두 구절은 의로운 사람이 무엇을 말할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말은 내적인 의로움의 자연적인 발로로 지혜를 내놓는다(문자적으로는 '열매를 맺는다'). 반면에 악한 자는 오직 비뚤어진 말을 내놓는데, 이는 정상적인 의미도 악한 말로 뒤바뀌버리는 왜곡된 본성의 표현이다. 비뚤어진 혀는 끊어질 것이라는 32절의 위협의 말씀은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떤 식으로든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보여 준다.

3. 11:11. 도시엔 올바른 자들의 축복에 의해 높여지지만 사악한 자들의 입에 의해 뒤엎어지느니라. 사람들은 의로운 이웃을 둔 것으로 인해 유익을 얻게 된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이웃에게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말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때에는 사회가 경제적, 도덕적 파멸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들

4. 12:13-14.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요, 사람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 구절들은 선한 말과 악한 말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한 말로 인해서 울무에 걸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그들을 울무에 걸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러한 함정에서 벗어난다.

사람의 입의 열매가 의미하는 바는 그의 말과 그로 인한 결과이다. 말은 행동과 같이 확실하고 선한 결과로 넘치는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다. 말은 인간관계를 더욱 세우며, 미래를 위해 더욱 유익한 생각들을 키워낼 수 있다.

5. 15:28.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려고 연구하나 사악한 자들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 내느니라.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말한다(시1:2; 63:6). 선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하므로 그의 말은 매우 믿을 만하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분수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악한 말을 내뿜는다.

6. 17:4.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짓말쟁이는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사람은 자기와 동일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서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한 의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는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소문거리나 다른 것들을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

C. 적절한 말(15:23; 16:21, 24; 25:11; 27:14)

단지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1. 15:23.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때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구약 성경의 지혜서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인정된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며, 그런 예술가를 본다는 것은 큰 기쁨이다.

전도서 3:1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인 것에는 때가 있으니

3: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2. 16:21.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분별력과 문제의 핵심을 보는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달콤함'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음)이 된다. 그들은 학식을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여긴다. 학생들은 그러한 학식을 배우기를 원할 것이다.

3. 16:24.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즐거운 말은 꿀 송이같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꿀은 고대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단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대화는 그 영혼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몸에도 치료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4. 25:11. 적절히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적절하고 시기에 알맞게 하는 말은 금속 공예의 최고봉인 은 그림들에 새긴 금 사과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다. 마치 말이 올바른 상황에서 주의 깊게 고려된 것이라면 아주 잘 어울린다. 위대한 예술이다.

5. 27:14.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리라.

말의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의 우스꽝스러운 예로서 이 구절은 잘못된 때에 올바른 것을 말함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분명 이웃을 축복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른 아침에 곤한 잠을 방해하면서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축복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깝게 들릴 것이다.

결론

- A.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
- B. 의로운 말과 악한 말
- C. 적절한 말

삶의 적용

코리의 지혜로운 아버지

잠언의 교훈: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어리석고 해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23절은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말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 일에는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잠언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려고 연구하나 사악한 자들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 내느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즉 의로운 마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대답은 항상 머릿속에서 금세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 의로운 마음은 잠깐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의로운 마음은 듣는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지혜를 붙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더하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가!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러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능하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딤후 2:15)고 하였다. 이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말씀이 반대로 당신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그러한 열심 있는 노력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태도와 연결되게 하라.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잘 배울 수 있다.

지혜를 분명하게 실천하는 일은 격려하는 것이다.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은 그의 책 「은신처 (The Hiding Place)」(주는 나의 피난처)에서 자기 아버지(캐스퍼 텐 붐)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 1892-1983) 여사는 2차 대전 당시 50대 나이, 죽게 된 유대인을 숨겨주고 도운 죄목으로 체포되어 온 가족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기 언니를 죽인 교도관을 용서하고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으로 우리 시대를 일깨운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리 여사는 자신의 믿음은 본래 그녀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코리가 초등학교 어린 소녀였을 때 그녀는 네덜란드의 하를렘(Haarlem)에 있는 집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기차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계 장인이었는데, 부품을 수리하고 자신의 시계 가게에서 팔 새로운 시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을 하였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특별한 시계에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서 하를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시계가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여분의 부품과 도구를 담고 있는 크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서 코리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코리는 이전에 '섹스' 라는 단어를 읽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물어보았다.

"아버지, 섹스가 뭐예요?"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셨고, 그 모습은 항상 어떤 질문에 대답해주실 때 하시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갑자기 아버지는 일어서시더니 머리 위의 선반에서 여행 가방을 끌어내려 바닥에 놓으셨다.

"네가 이것을 기차에서 가지고 내리겠니, 코리야?"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무거운데요." 내가 말했다.

"그래."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너처럼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큰 짐을 들고 가게 하는 것은 아마 어리석은 아버지나 하는 일이겠지. 네가 한 질문도 마찬가지란다. 코리야. 어떤 지식은 어린이가 알기에 너무 무거운 것일 수 있어. 네가 더 나이가 들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면 그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단다. 지금 너는 아빠가 널 위해 하라는 대로만 믿고 따르면 된단다."

나는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경탄해마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다른 신비한 세계에서 온 대답과 같다. 그래서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는 신실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바로 지혜의 사람인 것이다. 그의 지혜와 논리정연한 말은 그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나타나는 방식이다. 우리가 온전히 이 일에 헌신할 때 이 일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잠언 18: 문제를 일으키는 말의 해악과 폐해

성경말씀: 18:20-21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다. 지난주부터는 말 문제, 분노를 다스리는 것, 절제하는 것, 우정 등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디모테, 맥스 앤더스 우리의 말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좋은 말 좋은 영향(유익), 나쁜 말 나쁜 영향(심각한 상처, 폐해): 아침, 명예 훼손 등

지난주: A. 지혜로운 말, 의로운 말, 적절한 말의 유익

오늘 < >, 나쁜 말은 무엇인가? 어떤 해악과 폐해를 가져오는가?

들어가기

뜨거운 논쟁의 말들이 신문 머리기사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요즘 정치인들 마음대로 말한다.

유튜브 시대, 남의 것 폭로, 사실이 아니라도 이미 상대방은 모든 것을 잃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말, 말, 말 때문인 것이다! 말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불과 같다(약3:6).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리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그는 말이란 지옥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법의 세계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의 세계가 신문에서 매일같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미움, 분노, 이야깃거리, 명예 훼손 그리고 사기 등이 매일같이 신문의 전면을 차지하고 있다. 개개인이 당하는 고통과 깨어진 관계, 황폐해진 환경 등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것들은 다시 말을 악의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혀라는 불법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된다. 저주와 죽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에서부터 아침과 중상모략 그리고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나쁜 말은 많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

솔로몬의 목표는 악의적인 말이 가져다주는 황폐화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이로서, 이기적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말에 대한 냉정하고 명확한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환경과 그 자신만의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경고는 이것이다. 말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말로 인해서 우리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번 다툼이 시작되면 감정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1. 혀의 능력(11:12;12:18; 15:4; 16:27; 18:20-21; 25:23; 26:2)

잠언에서 혀, 입, 입술은 대개 말을 뜻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유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1. 18:20-21.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구절에서는 말의 선한 능력과 악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매와 수확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입의 열매와 입술의 수확물(12:14; 13:2 참고)은 말로 인한 결과를 의미한다. 문자적으로 열매는 그 맛까지도 포함하는데 지혜로운 말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것이다.

반면에 혀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남용하는 구절, 무엇이든지 머리속으로 상상한 뒤 자꾸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현금을 하면서 말하면...

2. 12:18,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15:4,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비뚤어진 혀는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하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해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깊고 심사숙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 이런 경우에 말하는 사람은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마음을 노출한 것이 된다. 이것은 성급한 말이다. 모세는 성급한 말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시 106-33). 그리고 그런 말에는 악의가 없었더라도 그 피해는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것 같은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도 함께 잘 지낼 수 있고 자신의 말을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3. 16:27.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여러 종류의 악한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는 짤막한 단락의 한 부분이다(16:27-30).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문자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의미로서 불량하고 도덕적으로 망나니와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6:12). 그런 사람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사냥꾼처럼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악한 계락을 꾸민다(1:10-14; 6:14; 12:20; 14:22; 24:28).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와 같은 성경 기자는 (약 3:5-6) 그런 사람의 말을 파괴적이고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표현하였다.

4. 25:23.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같이 성난 얼굴은 혈뜬 혀를 몰아내느니라.

가나안 땅의 날씨를 잘 아는 사람들은 북풍이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는 교활하고 음흉한 말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사람을 등 뒤에서 공격하면 반드시 분노의 대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5. 26:2. 새가 떠돌듯이, 제비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까닭 없는 저주도 닥치지 아니하리라.

말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비록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저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선량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저주는 참새 같은 작은 새가 이르지 못하고,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발람의 사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민23:8).

2. 아침(26:28; 28:23; 29:5)

우리는 진실을 과장하는 칭찬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침하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속이기 위한 연막일 뿐이다.

1. 26:28.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폐망을 이루느니라. 미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어떤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압박하는 거짓말을 해대면서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다른 경우에 그것은 진실을 벗어난 과도한 칭찬을 하면서 아침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부드러운 말들은 속이고자 하는 대상을 현혹하여 울무가 드리우기 전에 자기도취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에스더 3장,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략, 아침

2. 28:23.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입으리라. 아침하는 것은 친구를 얻고, 더 많은 환심을 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신뢰나 용납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말하기 힘든 진실을 말할 것이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사람은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더욱 친근한 관계를 얻을 수도 있다.

3. 29:5. 자기 이웃에게 아침하는 자는 자기 밭에 그물을 치느니라.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부드러운 말로 그를 홀리는 것이며, 어떤 악의적인 목표로 그를 속이는 것이다. 그는 목표한 대상이 자신의 환상 속에 홀리게 하고, 방어력을 무력화시켜서 울무에 빠지도록 고안한 그물을 펴고 있다. 아침의 말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거나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시간문제다.

3. 혈뜬 말과 한담(10:18; 11:13; 16:28; 17:9; 18:8; 20:19; 26:20, 22)

등 뒤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증상은 미움과 질투의 태도를 드러내며 듣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준다.

1. 10:18.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10장 18-21절은 말에 대해 주로 다루는 부분이고, 18절은 중상모략이 실제로 미움으로 나타나게 됨을 설명한다. 미움을 나타내면 상대방의 분노가 촉발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미움을 숨기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상대에 대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유화적인 태도가 영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2. 11:13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진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20:19,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
잠언에서 한담은 문자 그대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로운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거짓말이거나 기껏해야 진실에 대한 왜곡된 정보일 뿐이다. 한담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경솔해서 비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는 말을 많이 하는 자이므로 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실 다른 구절들도 한담하는 것이 그저 부주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악의적이기까지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의도적으로 당신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진실한 자는 당신의 비밀을 지킬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3. 16:28.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한담하는 것은 비뚤어진 인격에서 나온다. 이러한 악한 사람은 자신의 말로 친한 벗들도 서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이간질한다. 그러한 관계의 파괴 행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심각한 죄가 된다 (6:14, 19).
4. 17:9. 범법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 일을 덮어두거나 아니면 소문을 내거나 직접적으로 항의를 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 자신뿐 아니라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신뢰의 분위기를 더욱 유지함으로써 사랑을 고양하지만 그 문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자는 불신을 더욱 크게 해서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도 멀어지게 만든다.
이것은 친구 관계,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
예수님의 권면, 마18:15-20, 먼저 혼자, 2-3사람, 교회
5. 18:8;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부르느니라. 26:22도 비슷함.
이 두 구절은 비슷하다. 각각의 구절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담하는 것에 쉽게 유혹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담의 말을 하면 다툼에 빠지기 쉽다. 그는 결국 매를 맞게 된다.
6. 26:20.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한담하는 것은 다툼의 불길을 부추기는 연료와 같다. 불꽃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새로운 이야깃거리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다툼은 자연스럽게 소멸해버릴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21절에서 반복되고 있다.

4. 거짓말(12:19, 22; 17:20; 19:5, 22; 21:6)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거짓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2:19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질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혀는 그저 잠시 동안의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다(욥 20:5), 진실한 말은 당신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진실만이 궁극적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성공을 가져다준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 12:22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는 단순히 거짓말이 당신으로 하여금 더 큰 문제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완전한 진리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싫어하신다. 그분의 본성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진실하고 명령하신다(12:17, 19; 14:5, 25).

17:20.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악한 일에 빠지느니라.

비뚤어진 마음이나 생각은 결국 속이는 말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며, 성공할 수도 없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지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19:5.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구약의 율법에는 위증죄에 대한 가혹한 형벌이 포함되어 있다(신19:18-21),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항상 죄로 정죄하시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거짓 증언하는 자 혹은 거짓말을 내는 자는 결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22.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며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오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친절을 받기 원한다. 가난한 자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 거짓말쟁이는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

21:6,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리저리 나뿜구는 헛된 것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 하지만 그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처럼 신속하게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직하지 못함이 끔찍한 울무가 될 것이다.

결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동료들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생각해본다면 적절한 말이 아닐 때가 많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말이 적절하고 또 어떤 말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으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에 솔로몬의 경고가 분명히 자리잡도록 하자. 말이 악하게 변해 버린다면 선한 것은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 진리 알기

- 혀는 선과 악에 대해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 혀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
- 말은 항상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준 것●을 다시 받게 된다.

적용하기

- 당신의 말을 분석해보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통찰을 얻으라..
- 당신의 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보라.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얻으며,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 사람들이 당신을 격려해 주었던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라. 그때를 사람들이 말로써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때와 비교해보라. 그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격려의 말을 행하도록 결심하라.

격려의 말: 딤후1:16-18 오네시보로

잠언 14: 때때로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성경말씀: 잠10:19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다. 두 주전부터는 말 문제, 분노를 다스리는 것, 절제하는 것, 우정 등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의 말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좋은 말 좋은 영향(유익), 나쁜 말 나쁜 영향(심각한 상처, 폐해): 아침, 명예 훼손 등

지난주: 나쁜 말이 주는 무익함과 폐해

오늘 < >, 솔로몬의 전도서 3장 1,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인 것에는 때가 있으니, 7절: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오늘은 침묵이 필요한 이유, 침묵해야 할 때 등에 대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 한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디모데, 맥스 앤더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네이버 자료 찾기

인간이 10가지 죄를 짓는다면 그중 9가지는 입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많다는 말입니다.

"웅변은 은(銀)이요 침묵은 금(金)이다." 라는 격언(格言)은 침묵을 강조할 때 자주 쓰입니다.

시리아 북쪽, 터키 남부에는 타우루스 산(Mt Taurus), 산맥이 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이 산의 정상은 조류의 제왕인 독수리들이 터를 잡은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타우루스 산은 척박하여 독수리들은 사냥할 먹이가 많지 않지만, 그중에 1년에 두 차례씩 이곳을 넘어서 이동하는 두루미들을 공격해 허기진 배를 채우곤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은 그냥 날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울어대며 날아가는 두루미입니다. 덕분에 독수리들은 그 소리를 듣고 쉽게 두루미를 찾아 항상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산을 넘는 동안 거의 희생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든 두루미들은 산을 넘기 전에 돌맹이를 입에 물고 하늘을 날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입에 문 돌의 무게만큼 무거운 침묵이 두루미를 안전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침묵의 <연륜>를 알려주기 위해 <타우루스의 두루미>가 자주 인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두루미가 명칭해서 시끄럽게 우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미들은 장거리 비행시 V자 대형을 이루어 나는 것이 공기역학적으로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두에 선 두루미는 <연륜>과 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좌우로 함께 나는 두루미들이 선두의 두루미를 응원하고 자신의 위치를 선두에게 알려주기 위해 시끄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침묵이 말보다 값진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다시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젊은 시절에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세월이 지나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조금씩 변화하는 침묵의 <연륜>을 봅니다.

“침묵의 <연륜>이 쌓여 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오늘 솔로몬은 침묵의 지혜를 알려준다. 또 침묵해야 할 때 안 하면 다툼이 생김을 보여 준다.

1. 침묵해야 할 때(10:19; 12:23; 13:3; 17:28; 18:13; 21:23)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말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 때가 있다.

1. 10:19.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리석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커지기 때문에 말은 되도록 적게 해야 한다. 끊임없이 지껄이는 것은 결국 죄를 낳는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있다. 전도서 기자의 말

2. 12:23.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공포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선한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지식을 전해 주는 데 늘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말은 이해가 잘되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도움이 되고 헛되지 않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이 넘쳐흐르는 것을 주체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속의 어리석음까지도 그의 말을 통해 다 터져 나온다.
3. 13:3;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넓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라. 21:23.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당신의 입술에 문지기를 세워두라. 그러면 당신의 삶(히브리어로 '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말을 주의 깊게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심각한 재난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 그는 성급하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개인적인 정보를 남발하며,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진실을 잘못 전달한다.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4. 17:28. 어리석은 자라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기 인격의 공허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라도 그저 잠자코만 있으면 자신의 지혜와 분별력에 대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어리석은 자들은 그저 잠자코만 있는 것도 하지 못한다.
5. 18:13.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전지기 어려운 유혹이다. 그들은 문제를 충분히 듣기도 전에 해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거만하고,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선입관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과 충돌이 될 수 있는 사실이나 그 외 다른 것들을 듣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2.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한다(15:1; 17:27; 25:15)

우리는 분노할 때 후회할 말을 해버리기 쉽다. 하지만 말을 하고 나면 그때는 너무 늦다. 그러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1. 15:1.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화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격동을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응만을 일으킬 뿐이다. 이는 분노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와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긴장된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듦으로써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음과 인내심, 자기 통제력과 친절함이 있어야 한다.
2. 17:27.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 말들을 아끼며(침묵하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니고 있느니라.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며 말을 할 때에도 주의 깊게 말한다. 그는 성품이 평화로운 사람이므로(문자적으로 '영이 뛰어난 사람, 깨끗한 사람') 그의 마음은 감정의 폭풍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3. 25:15.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서는 인내하고 통제된 말의 능력에 대한 칭송이 나온다. 어떤 특별한 과정을 밟기 위해서 통치자를 설득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이며, 그를 협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의 감정을 격동시키지 않으려는 인내심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딱딱한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말은 가장 신랄하고 강력한 저항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야고보 사도가 그의 서신서 3장에서 말의 힘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이미 잠언에서 언급한 가르침을

다시 풀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도 나타낸다. 야고보서 3장을 늘 읽고 기억하자.

3. 다툼(17:14, 19; 20:3; 22:10; 26:21)

생각 없이 하는 말은 다툼으로 이어지고, 한번 다툼이 시작되면 중단하기가 어려워진다.

17:14.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엮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치라.

잠언은 다툼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극적인 장면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다툼은 댐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일단 물이 작은 구멍으로 새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큰 구멍을 만들어내고 그 댐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된다. 일단 그 과정이 시작되면 건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다툼이 시작되면 그 정도는 급격하게 상승된다. 유일한 해결책은 도저히 손쓸 수 없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이다. 여기서 다툼은 법적인 소송을 의미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사소한 말다툼도 결국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소송으로 끝날 수 있다.

17:19.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법법을 사랑하며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구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또한 죄를 사랑하는 자이다. 죄를 짓지 않고는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존 길은 자기 문을 높이는 것을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자기 문을 높이는 것은 관계 단절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과 파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이것은 방어적인 태도로 스스로 벽 안에 거하겠다는 자존심의 상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켄트 휴(Kent Hughes)는 자신의 책 「신실한 성도들의 제자도(Disciplines of a Godly Man)」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 교외 지역의 건설 부문에서는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다. 모든 집들이 넓은 안뜰과 들어가기 쉬운 정문 그리고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게 집을 만들었던 예전의 건축 방법들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1990년대에 이르러 우리는 현대의 가치 기준을 좀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축물을 갖게 되었다. 이 집의 가장 특이한 부분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차고이다. 집안에는 내가 자라던 때의 욕실보다 훨씬 더 크고 햇볕이 잘 들고 수납장이 있는 욕실이 있다. 현대 건축술은 작은 거실과 주방을 채택하였고, 부엌은 더욱더 작아졌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나눔의 요소가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집은 높은 담장으로 이웃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마당은 더욱 작아지는 추세이다.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그의 성에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연못과 같은 의미의 잔디밭이 있고, 그가 다니는 길에는 교각과 창살문과 같은 자동 차고문이 있으며, 그 길로 그는 변칙거리는 자동차의 화려함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자신의 갑옷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까지 머무르다가 다시 집에서 출발할 때 자신만의 특별한 복장으로 갈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자신만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고는 전쟁터로 힘차게 달려 나가는 것이다.

오늘날의 가정은 개인주의와 격리주의 그리고 사생활주의에 대한 현대적인 가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아가지 말고 자만심이 아닌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라고 명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말은 현대 문화의 잠재적이고 방어적인 분위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많은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20:3.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준위가 되지만 모든 어리석은 자는 참견하려 하느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이 세상에는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잠언은 오직 어리석은 자가 쉽게 다툼을 일으킨다고 가장 큰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능한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다.

22:10.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라.

다툼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기술이나 대응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만한 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 그를 떠나가게 하라.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사라질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다툼과 싸움과 치욕을 일으킨다.

26:21. 타오르는 숯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들은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사용하고, 숯은 그 화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연료가 없으면 불은 꺼진다. 이와 동일하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계속적인 다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는 갈등을 조성하고, 격화시키며, 시비를 가리고자하면서 더욱 싸움을 부추긴다.

▣ 진리 알기

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잠언을 공부하는가? 특히 말에 대해서

-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말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헛된 일이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골4:6).

때로 침묵은 정말 금과 같은 것이고, 가장 적절한 대답이기도 하다.

26:4,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26:5,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잠언 16: 충동적 분노의 폐해와 절제의 유익

성경말씀: 잠16:32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다. 지닌 세 주 말 문제, 은 헤로운 말, 헤로운 말, 쓸데없는 말, 침묵의 필요성 등

오늘은 < >, 충동, 조급함, 분노, 절제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될 몇 가지 자기 파괴적인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분노인데, 이것이 만약 제어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폐해를 가져온다. 세 번째는 식욕이다. 음식이나 알코올에 중독되면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경우를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디모데, 맥스 앤더스

들어가는 말: 참기 어려운 시합

1975년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아서 애쉬(Arthur Ashe)는 그 당시 거만하고 무례하기로 소문난 일리 나스타세(Ilie Nastase)와 경기를 하였다. 나스타세는 '고약한 (Nasty) 나스타세' 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테니스 경기를 할 때 너무 화를 잘 냈기 때문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스터즈 토너먼트 경기가 열렸을 때 나스타세는 최악의 행동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내뿜는 등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결국 애쉬는 자신의 라켓을 내려놓고 코트를 걸어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내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어요."

심판은 소리쳤다. "만약 당신이 코트를 떠나면 이 경기에서 몰수 게임 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애쉬는 대답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자제력을 잃느니 차라리 지는 편이 낫습니다."

그 다음 날 경기 위원회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나스타세의 약 올리는 행동을 눈감아주지 않고, 나스타세가 그의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경기에서 반칙 패하였다고 결정내린 것이었다.

그날 애쉬는 테니스 시합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기에서도 승리하였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쉬처럼 자신은 옳지만 상대방은 분명히 옳지 않은 상황에서 절제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몰수 게임패 당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상대방의 잘못인데도, 그로 인해서 테니스 랭킹 순위에서 밀려나고 상금을 잃게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애쉬는 그 행동으로 높은 인격과 정직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와 동시에 나스타세는 행동이 전혀 제어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강박함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 모든 상황은 자기 절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적절한 경우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 절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마치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린 도시와 같다." 애쉬와 나스타세의 경우는 절제력이 있고 없음에 대한 분명한 비교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절제를 통해 얻는 자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으로 가는 방법은 없다. 자기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상상해본 적이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우리가 살펴보지도 않고 뛰어내리면 절대로 자연스럽게 착지할 수 없다.

A. 충동과 조급함(20:25; 21:5; 25:8; 29:20)

1. 20:25. 서원한 뒤에 물어보는 것은 거룩한 것을 삼키는 사람에게 올무가 되느니라.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쉽게 서원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은 지켜야 한다(신23:21-23).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서원을 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하게 마련이다. 올무에 걸리는 동물처럼 생각 없이 서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이행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전5:46).

2. 21:5. 부지런한 자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에 이르게 하지만 모든 조급한 자의 생각들은 오직 궁핍함에 이르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름길을 찾기도 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20:21; 21:6).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계획성 없는 성급한 시도는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주의 깊게 자신의 일을 계획한 뒤에 그 계획을 실행한다. 이러한 신중한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나 확실한 성공으로 나아가게 한다.
3. 29:20.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생각하지도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17:19-20; 18:6-7). 그의 충동적인 말은 논쟁을 가중시킬 것이며, 그가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9-20절은 이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B. 충동적인 분노

(12:16; 14:16-17,29; 15:18; 16:32; 19:11,19; 22:24-25;25:28; 29:8, 11, 22)

성격이 급한 사람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렸다면 잘 해결되었을 많은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1. 12:16.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지만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강박하고, 완고하며, 어리석은 자는 어떤 모욕을 받았을 때 주저 없이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분노를 나타낸다.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인내심을 보여준다 (11:2). 그는 무례한 자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덮는다는 말은 참는다는 뜻이다.
2. 14:16-17.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격노하며 자만하느니라.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악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의 두려우심 때문에. 이와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성급하고 충동적인 본성에 지배되는 사람이다. 그는 거칠고 사려 깊지 못하다. 그래서 그의 과격한 성품은 스스로를 재앙으로 인도한다.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노의 열정이 그의 판단을 마비시켜서 잠잠히 있을 때에는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을 일들을 저지르게 한다.
또 다른 사람은 분노가 자기 속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기 때문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그는 간교하고 음흉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는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3. 14:29. 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이 구절은 인내의 가치를 칭송하고 있다. 인내는 이해심이 있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며, 그는 항상 자기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 명예와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자기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은 어리석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 된다(문자적으로 보여주지 위해 일부러 높이 드러내는 것).
4. 15:18.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히브리어로 '분노의 사람')는 계속해서 문제와 다툼을 일으킨다(6:14, 19; 10:12; 16:28; 28:25; 29:22 참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며, 다툼을 잠재우는 사람이다. 실제 상황에서 많은 분쟁들은 상대방의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5. 16:32. 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스라엘 문화에서 군인은 외부의 대적들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잠언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말한다. 힘과 세찬 공격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겸손한 모습은 그보다 더 유익하다.

6. 19:11.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툼을 피하고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안다(14:29; 15:18; 16:32; 25:15). 왜냐하면 그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래 참음은 지혜의 표상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유익이 된다. 그리고 분노를 터트리기보다 거슬리는 부분을 그냥 참기로 했을 때 그의 인내는 영광이 된다. 인내심은 때로 쉽게 걸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신실한 인격의 영광스러운 명예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죄악까지도 만들어낸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7. 19:19. 크게 진노하는 자는 형벌을 받으리니 내가 그를 구출할지라도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하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조금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다음번에도 그는 또다시 자제력을 잃을 것이고, 그를 돕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8. 22:24-25, 너는 화내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네가 그의 길들을 배워 네 혼에 울무를 놓을까 염려하노라.
노를 품는 자는 '분노를 갖고 있는 자' 혹은 '분노의 제왕' 이다. 히브리어에서 쉽게 화를 내는 자는 '분노의 사람' 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설명 다 분노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노로 인해서 비슷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연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분노하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는 사람은 그가 일으켰던 문제들을 함께 겪으면서 울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9. 25:28.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자기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당신은 자기감정을 잘 다스리는 대적에게 매우 취약할 것이다. 이 구절은 자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마치 방어 수단이 다 사라진 도시에 비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자기 훈련이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의 주된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임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10. 29:8.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울무에 걸리게 하나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물러가게 하느니라.
교만한 자는 주체할 수 없는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온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역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던 몇몇 사람으로 인해 생긴 사건의 결과들로 가득 차 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온 도시를 진정시키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11. 29:22. 화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분노하거나 성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는 사람(문자적으로 분노의 제왕)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죄악까지도 만들어낸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삶의 적용: 어려움인가, 불편함인가

왜 우리가 불평하고 화를 낼까?

「세상에 이럴 수가(Uh-oh)」라는 책을 쓴 작가 로버트 풀검(Robert Fulgham)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학교를 그만두고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네바다 산 근처에 있는 페더(Feather)강 호텔에서 일했던 때를 기록하였다. 어느 주간에는 그는 매우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직원들이 매일 점심 식사로 동일한 것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 메뉴는 비엔나소시지 2개와 소금에 절인 양배추 그리고 오래된 롤빵이었다. 이 끔찍한 메뉴보다 더 심한 것은 그 음식 값이 급료에서

차감되었다는 것이다. 그 주간의 금요일 밤 그는 주말에도 동일한 음식을 계속 먹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폴검은 자제력을 잃고, 그 좌절감을 그날 야근 감사관이었던 지그문드 울맨(Sigmund Wollman)에게 쏟아놓았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그런 쓰레기만을 먹으며 생활해 왔고,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형편없는 것만을 먹으며 살 수는 없으며, 그 음식이 2센트 정도 될 텐데 지금 당장 가서 사장을 깨워 그 사람한테 그 돈을 던져주고 싶다고 불평을 터트렸다. 그리고 자신의 급료에서 음식 값을 차감하는 것은 심각한 생계 위협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이 호텔은 망해가고 있고, 말들은 노쇠하였으며, 손님들은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사장은 우둔한 사람이며, 자신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서 짐을 꾸려 몬타나로 가고 싶다고 했다. 그곳에는 비엔나소시지나 양배추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런 음식은 돼지에게조차도 먹이지 않을 거라고 떠들어댔다. 그는 20분이 넘도록 흥분해서 불평을 토로했고, 그의 장황한 말은 듣기 민망할 만큼 모욕적이었다.

지그문드 울맨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포로수용소에서 3년 동안이나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면서 잠자코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폴검, 이제 다 했나?”

“아니요, 왜요?”

“내 말 좀 들어 봐, 폴검. 자네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가? 문제는 비엔나소시지도 아니고, 양배추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닐세. 또한 요리사도 아니고, 이 직업도 아닐세.”

“그러면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인가요?”

“폴검, 자네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자네는 어려움과 불편함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어. 만약 자네가 목이 빠졌거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혹은 자네 집이 불탔다면 분명 자네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이네.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불편함일 뿐이야. 원래 인생은 불편한 것이네. 삶은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지. 진짜 문제 즉 어려움과 단지 불편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자네는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그러니 나에게 했듯이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만들지는 말기를 바라네. 그럼 잘 자게.”

그리고 그는 젊은 폴검에게 손을 흔들고는 잠을 자러 가버렸다.

이들의 대화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불편함과 진짜 문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질투심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했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우리가 이기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결론: ■ 진리 알기

- 미리 살펴보지도 않고 행동하는 자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큰 사람을 만든다.. • 만약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의 노예가 된다.

잠언 11: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 적절한 기회 잡기

성경말씀: 잠6:6-8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다. 지난 몇 주 말 문제, 분노, 질제 등 실질적인 문제
오늘은 < >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 근면하게 일하는 것, 직업 문제, 기회 포착,
보증 서는 문제 등 상당히 실제적인 문제, 역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디모테, 맥스 앤더스
“우리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고 어리석은 위험을 피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때에 그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인해 어리석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과 그 사람 모두 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음

대부분의 성공은 좋은 판단력에 근거한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저 열심히 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렵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그의 책 <유능
한 관리자>(The Effective Executive)에서 이렇게 썼다. “좋은 결정은 좋은 판단력에 달려
있다. 그것은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어떤 결정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일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잠언의 목적

솔로몬은 잠언에서 매우 귀중한 원리를 전해 주고 있다. 그것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사용하는 능력을 얻게 한다. 한순간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의미를
얻기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만든다.

척 스윈들은 그의 책 <인격 형성을 위한 탐구>(Quest for Character)에서 톰 패조(Tom Fatjo)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는 라이스 대학(Rice University)의 졸업생으로 안정되고 탄탄한 기반
을 가진 전문가의 삶을 살았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었는데, 톰이 어느 날 휴스턴의 남서부
한 교외에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시에서 집집마다 뒷문에 놓아둔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직접 쓰레기 수거 회사에 의뢰를 하면서 일어났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쓰레기는 계속 쌓여만 갔다. 쓰레기 더미가
집집마다 뒷문에서 점차 거대한 무더기를 이루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날 밤, 톰 패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떤 기발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쓰레기차를
구입했고 그 쓰레기를 직접 다 실어서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은 아예 그의 사업이 되었다. 사업은
점차 확장되어 다른 쓰레기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또 다른 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브라운
페리스 회사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 처리 회사가 되었고, 해마다 5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이 되었다.

물론 이런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성경적인 원리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성공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좀 더 작은 규모로 우리도 동일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본문 이해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근면이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에 열정을 쏟는 데 중요할 뿐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유익을 얻는 길이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유익을 얻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어이없이
날려버리게 만드는 일 즉 남의 보증을 서는 일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A. 올바른 일을 하라(12:11; 14:4; 21:20; 22:29; 24:27; 27:18)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우리의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분명한 일들을 추진하라, 그리고 허황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1. 12:11.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족할 것이나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단순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꾸준한 노동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는 풍성한 소출을 얻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큰 꿈을 좇는 사람들은 자신의 환상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그는 환상과 허무함만을 얻게 될 뿐이다(딤후6:9-10). 그는 무익한 계획을 세우고 판단력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매일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2. 14:4.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소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쟁기질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농경 도구였다. 물론 소는 매우 비쌌고, 먹이를 주며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차라리 소가 없을 때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구유나 여물통은 비어 있고 외양간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또한 소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소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생산량에 비교한다면 별것 아니었다. 때로 우리는 발전의 결과로 생겨나는 많은 양의 일과 분주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한다.
3. 21:20,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투자에 반대되는 소비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 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벌 수 있는 근면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저축하기 위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오직 현재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즉시 다 소비해버린다. 그 결과 그는 다음 번 추수가 돌아오기 전에 양식이 바닥나버리게 된다.
4. 22:29.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서 지 아니하리라. 일꾼은 어떻게 승진할 수 있는가? 승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일에 부지런한 것이다. 부지런하다는 단어는 빠르고 신속하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왕이나 다른 상전들은 '정말 잘 한다'는 정도로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발견할 때 그를 높이 등용하고자 할 것이다.
5. 24:27. 밖에서 네 일을 예비하고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 뒤에 네 집을 지으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젊은 이스라엘 청년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준비해야 한다. 이 중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잠언은 조언하기를, 바깥일을 먼저 하라고 말한다. 그는 밭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수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집은 개인적인 유익을 얻게 하는 곳이다. 하지만 소출은 그 가정을 지탱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 소비를 하기 전에 생산을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심사숙고하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B. 적절한 시기를 붙잡으라(6:6-8; 10:5; 27:23-27)

농부는 적절한 때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는 주변의 정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해야만 한다. 미리 계획을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마감일이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1. 6:6-8. 너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지만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근면함의 모범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훈거리로 제시하고 있다.

개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개미는 상급자로부터 어떤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고서도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개미 집단은 어떤 유형의 감독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미들은 지도자를 두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연합을 보여준다!

특별히 개미들은 미래의 필요를 준비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여름 동안에 먹이를 모으고 비축한다. 그래서 수확기가 될 때에는 음식을 충분히 갖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겨울 동안 그 풍성한 먹이를 가지고 넉넉하게 지낸다.

2. 10:5.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확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가나안 땅 6월경 수확, 추수가 아니다.

개미가 적절한 때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농부들도 곡식이 익을 때에 수확을 마쳐야 한다. 신중하고 판단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수확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수확할 적절한 때에 해야 할 일을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수확기에도 잠을 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정말 일을 해야만 할 때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이다. 그의 아무 쓸데없음은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3. 27:23-27.

이 구절은 일반적인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로 농장 경영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 이 구절은 첫 번째로 기본적인 명령을 말하고 있다. 바로 자신의 양떼와 소떼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방치돼버릴 수 있다. 어떤 직업이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재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한 것을 지속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재물은 금세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의 왕관도 자동적으로 보전되는 것이 아니다. 왕국을 유지하는 것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확실한 재물도 사라질 수 있다면 농부도 자신의 양떼와 소떼를 소홀히 해서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의 흐름을 깨닫고, 그 사이클에 맞게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적절한 때에 건초더미를 거둬 가축들에게 줄 먹이로 쌓아 둔다. 그는 수확 기간 동안에도 새싹이 새롭게 움트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이것은 필요할 때에 또다시 풍성한 양식을 약속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일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자이며 점차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늘려갈 것이다.

양떼를 먹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양의 털로는 옷감을 얻게 될 것이며, 염소는 새로운 토지를 구입할 돈이 될 것이며, 염소의 젖은 온 가족의 영양분을 공급해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지 이와 동일한 원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얻는 일과 사업 확장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일에 적용될 것이다.

C. 다른 사람의 위협에 끼어들지 말라(6:1-5; 11:15; 17:18; 20:16; 22:26-27; 27:13)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은 그리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배려하는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당신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가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든지 운이 없다든지 할 때에는 당신이 그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되는 것이다.

1. 6:1-5

솔로몬은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될 약속을 하면서 보증을 서는 어리석음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는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면서 그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는 것은 만약 그 이웃이 어떤 일을 할 수 없으면 그의 빌린 것을 당신이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는 것은 그 계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약속을 하거나 사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울무에 걸린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말로 얽히게 되었다. 그의 경제적 운명은 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고, 오직 그 이웃이 자신의 빌린 것을 갚고자 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럴 때 적절한 반응은 무엇인가? 보증 서약서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이 위험한 위치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당장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제3자에게 가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탄원해야 한다. 당신이 보증서에 이미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당당하

게 주장할 수는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한다(자존심을 접고 자세를 낮추거나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며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간절하게 노력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부정적인 대답을 얻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요구하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낮잠을 자느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 노루나새가 울무에 걸렸을 때 도망치려고 애쓰기 전에 잠깐 잠을 자지 않는다. 그것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한다.

생사의 문제기 때문이다. 빛도 이와 같다. 파국을 맞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오직 시간의 문제다.

2. 11:15. 낮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서는 것
3. 17:18. 심지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지 말라.
4. 20:16; 27:13.

잘못된 선택

수년 전에 월트 켈리(Walt Kelly)가 그린 '포고(Pogo)' 라는 이름의 만화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것은 남부 조지아에 있는 오키페노키(Okefenokee) 습지에서 살아가는 포고라는 이름의 주머니 쥐와 악어, 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 사이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룬 것이었다. 어느 날 이 만화는 습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포고의 모습을 그렸다.

오리가 한 마리 다가와서 포고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너, 내 사촌을 본 적이 있니?"

포고가 대답했다. "너의 사촌이라구?"

오리가 대답했다. "그래, 내 사촌은 북쪽의 키디카(kiddy car)라는 곳에서 이사 왔어."

"키디카에서?" 놀란 포고가 되물었다.

"그래, 그 애는 나는 것을 두려워해. 날다가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지."

"그러면 헤엄을 치는 건 어때?" 포고가 물어보았다.

"글쎄, 헤엄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떨미 증상이 있거든."

그러자 포고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네 사촌이 오리가 되기로 했다면 그는 영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날지도 않고, 헤엄도 치지 않으려고 하는 오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오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고, 그 일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든지 간에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한 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해야만 한다. 우리는 열심히 그 일을 해야만 한다. 또한 지혜롭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빛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문제를 떠안아서 안 된다. 솔로몬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을 무시할 때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에 관여하시는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진정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어떤 직업은 편하고 단조롭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잠언의 원리에 충실하더라도 직업에 대한 선택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오래전에 출간된 「비즈니스 속에서 그리스도인(The Christian in Business)」에서 존 미첼(John E. Mitchell)은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와 직업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은 선반 작업과 그 일의 분량과 수준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경비원이 어둡고 조용한 밤에 자신이 지켜야 하는 집 주변을 순찰할 때 그의 일을 바라보시는가? 그분은 속기사가 원고를 타이핑할 때 그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그분은 영업 사원의 일과 계약을 따기 위한 그의 열정적인 노력에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은 직장인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은 직장인이 자신이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노력하며, 그의 비용 지출을 엄밀하게 계산할 때 함께하시는가? 그분은 회사의 광고 전략과 생산 제품의 하자발생률을 눈여겨보시는가? 그분은 회사 내의 개인 간의 대화와 부서 간의 회의와 임원 회동과 노사 간의 협상과 무역 협정과 회사의 신상품 출시와 회식자리가 마련될 때 그곳에 함께하시는가? 사업가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가?

이 모든 질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장소에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폄하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 하치장에서 일하거나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자신의 직업을 엄숙하게 여기고, 만족스러워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상황을 돌보신다. 그것은 주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도전적인 글을 쓰게 영감을 주셨던 이유기도 하다. 주님은 우리가 일을 잘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원리에 따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솔로몬의 교훈을 잘 따르는 것과 아울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주실 것이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빛진 자들의 위험한 울무에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지혜로운 판단, 결정, 기회 포착

잠언 22: 솔로몬의 리더십 특강: 좋은 지도자가 되는 방법

성경말씀: 잠14:28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다. 지난 몇 주 말 문제, 분노, 절제, 판단, 기회 포착, 부지런하게 일하기 등 실질적인 문제, 오늘은 < > 지도자,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디모테, 맥스 앤더스

서언

모든 조직, 반드시 리더가 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의 역할이 대개는 절대적이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권력형 리더....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등의 영적인 리더

신약 시대 교회: 목사를 양 떼의 지도자로 주셨다. 교회에 주신 선물(행20:28, 엡4:11)

리더십의 중요한 점 요약

1. 한 사람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의심할 나위 없는 신실함(믿음직함)이다.”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2. 지도자란 누구인가? 지도자는 일을 이뤄 내며, 보상을 해 주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은 그를 기쁘게 하려는 목표를 갖게 된다. 지도자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거룩함을 몸소 실천해야만 하고, 선을 좇으며, 악을 거부해야만 한다.
3.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은 전에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관한 의미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만약 모세가 이집트에서 여론 조사를 했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궁금하다. 만약 이스라엘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론 조사가 시행되었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설교를 했을까? 만약 마르틴 루터가 여론조사를 했다면 종교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겠는가? 중요한 것은 여론 조사나 대중의 의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과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바로 그 리더십을 통해 강인하고, 정직하며, 올바른 일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긋는다.

트루먼의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리고 이 말에 솔로몬의 가르침도 전적으로 일치한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리더십에 관해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지도자는 올바른 성품과 성실함을 가지고 대중을 이끌어야 하며, 그들의 우선적인 책임은 이 세상에 공의와 의로움을 더욱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위험하고 위태로운 때에 그러한 지도자는 기꺼이 홀로 서고자 결심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올바른 일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모든 리더에게 해당되며 특히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교사 등에게도 해당된다.

내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오늘은 맥스 앤더스, 그리고 잠언

신실한 지도자가 되는 방법

잠언이 기록될 때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리더십의 특권과 위험성에 대한 완전한 전문가로서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그는 권력을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시므로 그들이 자기 나라에 공의를 표출해야만 함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도자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잠언이 보여주는 원리는 모든 고용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선출된 관리와 왕에게까지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A. 지도자의 권력(14:28; 16:15; 19:12; 20:2; 21:1; 25:1-3)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의 만족스러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세상의 이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위치에서 나오는 자랑스러움을 즐긴다. 그는 어떤 일이든지 이를 수 있고, 상을 주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은 그러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1. 14: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만약 왕이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높은 위치의 리더십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왕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그의 백성들이고 그의 칭호 또한 그가 많은 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너무 어리석게 나라를 다스려서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왕은 결국에는 파멸당하고 말 것이다.
2. 16:15. 왕의 얼굴의 빛 안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왕은 자기 백성들의 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수도 있다. 그의 얼굴이 밝게 빛날 때에는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왕의 사면권 등. 왕은 백성들이 인생을 기쁘게 여기고 사는 모습을 좋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하사한다. 이런 하사품은 농부가 잘 익은 수확물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봄철의 비구름과 같이 반가운 것이다.
3. 21:1.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왕이 내린 결정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 위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며 통치자들이 공의를 위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게 만드신다. 농부가 물길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자신의 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일반 사람들의 갈 길을 결정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4. 25:1-2.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들이니라.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솔로몬 왕은 그 시대의 가장 완벽한 지도자상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리더십과 국가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잠언을 쓴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250년 뒤에 유다의 스키야 왕은 선조의 조언을 귀중하게 여겼고, 학자들에게 명을 내려 잠언의 책에 부록을 더하게 하였다.
왕은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영광이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표지이며, 그로 인해 그는 자기 나라의 모든 측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없으시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일부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분이 드러내시기로 한 부분만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있는 심오한 진리의 영역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신 29:29).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만든다.

B. 지도자의 도덕 기준

(16:10, 12; 17:7; 20:8, 26, 28; 25:4-5; 28:2-3, 15-16; 29:4, 12, 14)

강한 권력은 선을 위해서나 악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행위 가운데서 거룩함을 더욱 크게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을 장려하고 악을 거부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1. 16:10,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므로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범법하지 아니하느니라.
16장 10-15절은 왕의 지도력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잠언의 많은 다른 구절들과 같이 이 구절은 모든 왕이 실제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왕이 따라야만 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의 말씀은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사자장이나 대언자에게 있었다. 그들의 말은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왕은 최종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는 공명정대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신17:14-20). 특히 18-20, 왕은 율법을 공부해야 한다.

2. 16:12. 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왕좌는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느니라.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며 최선을 다하는 왕은 어떠한 형태의 악도 싫어할 것이며 오직 의와 진리를 중시할 것이다. 오직 의를 통해서만 왕좌 위의 그의 자리는 굳게 세워질 것이며 안전할 것이다.
3. 17:7.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훌륭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통치자나 관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도자는 신뢰할만해야 하고, 그 신뢰를 깨는 사람은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이다.
4. 20:8, 심판의 왕좌에 앉아 있는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흠어지게 하느니라. 26절도. 왕은 정의의 근원으로서 기능한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최고 상소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었다(왕상 3:16-28). 그러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농부가 곡물을 키질하며, 그 수확한 것에서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처럼 왕은 자기 앞에 있는 자들의 행위와 동기를 조사해야 하며,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일단 죄악이 드러나면 그는 공의에 부합한 공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농부는 딱딱한 바다에 벼단을 펼쳐놓고서 타작한다. 그리고 나서 타작하는 바퀴를 굴려서 벼단에서 곡물이 분리되게 하고, 겨에서 낱알이 떨어지게 한다. 이와 같은 엄정한 과정을 밟는 것은 때로 악인을 다스리는 데 필수적일 때가 있다.
5. 20:28. 공훈과 진리가 왕을 보존하며 그의 왕좌는 공훈로 떠받쳐지느니라.
여기서 앞서 나왔던 엄격함(26절)은 공훈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공훈과 진리를 나타내 보일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은 충성스러움으로 화답할 것이다. 왕의 위는 굳건하며, 그의 왕국은 안전할 것이다. 이 잠언 구절은, 정치권력이 포악한 압제를 통해서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6. 25:4-5.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정련하는 자를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의 왕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통치자들은 부패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다. 은 세공업자는 은 원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해야 순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통치자는 자신이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악한 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그가 자신의 부하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내쫓을 때 비로소 그의 왕위는 굳건해지고 안정되는 것이다.
7. 28:15-16,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배회하는 곰 같으니라.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큰 압제자이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악한 사람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악한 통치자는 온 나라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 여기서 그러한 무자비한 통치자는 사자나 곰에 비유된다. 그의 포악함이 인간보다는 오히려 포악한 동물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28장 16절에서 명철이 부족한 치리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판단이나 이성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타난다. 다시 한 번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보다 발전된 삶을 기대할 수 있다.
8. 29:4.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땅을 뒤엎느니라.
잠언에 의하면, 통치자는 이해심(28:2)과 의로움(16:12), 공훈과 진리(20:28) 그리고 공의(29:4)를 가지고 다스릴 때 나라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뇌물을 좋아하는 자(문자적으로 뇌물의 사람)는 나라의 부귀를 헛되어 낭비해버리고 그의 재원을 다 소비해버린다.

결론: 캐나다 두루미의 교훈

브루스 라슨(Bruce Larson)은 그의 책 <바람과 불>(Wind and Fire)에서 캐나다 두루미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대륙을 거쳐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는 이 큰 새는 세 가지 놀라운 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그 새들은 리더십을 교대로 갖는다. 어떤 새도 무리에서 항상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다. 두 번째, 그들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한다. 세 번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동안에는 오직 한 마리 새만이 무리를 인도하고, 나머지는 그 지도자에 대한 신임을 울음소리로 나타낸다. 이것은 교회에도 좋은 모델이 된다. 분명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지도력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지도자에게 격려와 신임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잠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가르침에 대한 좋은 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신실함이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만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지도자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실 때 따르는 자들이 되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자.

벧전5:1-6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 진리 알기

지도자는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만 한다. 따르는 자들의 목표는 자신이 따르는 자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잠언 23: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보상: 용기와 명성과 소망

성경말씀: 잠13:12

잠언: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 인생의 기술(wisdom), 분별력(understanding)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다. 지난주 리더십, 실질적인 문제

오늘은 < >, 하나님을 따른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용기, 명성, 소망

역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디모데, 맥스 앤더스

맥스 앤더스(Max Anders, 1947년생, 75세)는 (*)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캐슬뷰 침례 교회(Castleview Baptist Church)의 목사로 섬기고 있다. 델라스 신학교(Th. M.)를 졸업하고 웨스턴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 Min.) 학위를 받았다. 베스트셀러인 30일 성경 탐구(30 Days to Understanding the Bible)를 포함하여 스무 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이 메인 아이디어 시리즈(The Holman Old & New Testament Commentary)를 기획하고 편집했다. (*)

1. (하루만에 꿰뚫는) 기독교 진리(New Christian's handbook)

2. 성경 맥잡기(30DAYS TO UNDER STANDING THE Bible)

들어가는 글

잠언에서 솔로몬은 1. 신중함으로 균형 잡힌 용기, 2. 현실에 근거한 명성, 3. 소망을 바탕으로 하는 기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고, 명성을 얻는 일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용기를 준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Man's Search for Meaning)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아우슈비츠와 다하우의 독일 포로수용소에서 체험한 자신의 끔찍한 경험담을 기록하였다. 동물보다도 더 비참한 취급을 받았던 그는 추위와 기근과 고통과 벼룩과 탈진 그리고 비인간적인 처사로 가득 찬,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다. 프랭클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소망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죽어갔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해 버린 것이고,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죽은 것이라고.”

이런 일은 대개 아주 갑자기 일어난다. 어느 날 아침 한 수감자가 침대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거나, 씻지 않았거나, 밖에 나갔거나 혹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었다. 동료 수감자들의 도와주겠다는 정성스러운 말이나 간수의 잔인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고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지속적인 어떤 힘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인 하늘나라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 살게 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으로 인해 굳게 서 있게 된다.

하나님을 따를 때 얻는 보상

잠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선택하며, 의로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며 즐거워한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현재의 도전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기쁨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보상: 1. 용기, 2. 명성, 3. 소망(롬8장 주석)

A. 신중함으로 균형 잡힌 용기

(3:25-26; 14:32; 16:17; 22:3, 5, 13; 24:10; 26:13; 27:12; 28:1)

위험 가운데 무작정 휘말리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그것은 부주의함일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함정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용기 있게 피해 나간다.

1. 3:25-26.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들의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확신이 되시므로 네 발을 지켜 거기에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굳게 잡으라는 자신의 권면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유익을 기록하고 있다(3:21), 우리가 분별력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다짐할 때 비로소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악한 자들이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사람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도움들은 곧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의 확신에 대한 굳건한 반석이 되신다.
2. 16:17, 올바른 자들의 큰길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많은 다른 잠언들과 같이 이 구절도 신실한 사람은 길을 걸어갈 때 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자신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행동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말 그대로 '자기 혼'을 보존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손해로부터 보호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유혹이나 도덕적인 타락에서 보존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22:3; 분별 있는 자는 해악을 미리 보고 숨으나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용기가 있다는 것은 위험이 있는 곳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담대함은 반드시 신중함이나 사려 깊음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은 앞을 바라보며 위협을 감지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해 나갈 수 있다. 위험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단순히 미련한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센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용기가 만용이 되면 안 된다.
4. 24:10. 역경의 날에 네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니라. 환난은 우리의 용기를 보여주거나 연약함을 드러내게 만든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각각의 도전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낼 뿐이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

B. 현실에 근거한 명성(22:1; 25:9-10)

누구나 인간관계의 처세술을 통해서 명성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오래가는 훌륭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흔들림 없는 인격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겉모습 뒤에 있는 실체를 깨닫는 것이다.

1. 22:1.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오히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명성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복은 헛된 것이다(1:19; 10:2; 13:11). 훌륭한 이름에는 선한 인격을 나타냄으로써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평판도 함께 따른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은 쌓아놓은 재물의 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본인이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혹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호의
2. 25:9-10 네 이웃과 다툼 일이 있으면 그와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하므로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다른 사람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법정 소송 등에서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당신은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비열한 일을 알게 된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뢰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무자비한 죄라고 정죄하신다. 그리고 목표물이 되어버린 사람은 보복할 것이고, 더욱더 신랄하게 당신의 이중성을 드러내며 당신의 명성을 파괴할 것이다.

치부를 드러내야 할 때와 숨겨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

3.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것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전10:1)

C. 소망에 근거한 즐거움

(13:12, 19; 14:10, 13; 15:13, 30; 17:22; 18:14; 23:17-18; 25:20, 25; 27:11, 20; 29:6)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한 헛된 노력 가운데 꿈을 좇고 재물을 쌓는다.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행복하게 끝을 맺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1. 13:12, 19. 소망이 늦추어지면 그것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 사람은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될 때 크게 괴로워한다. 소망은 약속이 연기될 때 더디 이루어지게 되고,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중단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천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큰 실망감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우리 영혼은 다시 되살아난다. 생명나무처럼 그 소망의 성취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가장 달콤한 것이 된다.

2. 14:10,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낮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13.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즐거움의 감정을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독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비밀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어떤 인간들보다 우리를 더욱 깊숙하게 이해하신다.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만을 볼 수 있고, 허탈한 웃음은 마음속 깊은 곳의 괴로움을 감춰 버린다. 순간순간 기쁨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신속하게 변화한다. 그리고 기쁨도 어느 틈엔가 슬픔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3.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감정뿐 아니라 육체에도 좋은 약이 되며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우울하거나 낙심된 마음은 뼈가 마르게 한다. 잠언은 때로 우리 건강에서 내적인 생명력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15장 30절에서는 좋은 소식이 뼈를 기름지게 한다고 단언한다. 소망의 기쁨

4. 18:14. 사람의 영은 그의 병약함을 지탱할 것이지만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오? 이 구절은 우리의 태도가 병을 이겨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강하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고, 굳센 마음이 사라지면 절망을 이겨낼 약이 없다.

결론: 소망은 신학적인 덕목이다

- C. 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에서 소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영감 넘치는 문체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망은 신학적 덕목 가운데 하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피주의나 기복주의의 한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를 떠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역사를 조금 들여다본다면 현실에 가장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내세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로마 황제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섰던 사도들과 중세 시대를 세워나갔던 위대한 성도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토록 무기력해진 것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중단해 버린 이후부터다.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 속에서 이 세상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목표로 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잠언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다.

삶의 적용: 소망은 영원히 생겨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소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계21:4).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운데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소망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전쟁 시대에 등장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많은 병사들이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아 집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이 사망한 사람들보다도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튼튼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분명 생존자들은 중요한 부분에서 뭔가 달랐다. 그들은 언젠가 풀려날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가 살게 될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앞으로의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할 사람의 모습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곤 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나타내기 위해서 벽에 그림을 그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직업에 관계된 주제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소망을 갖는 태도는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는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체가 육체적인 어떤 문제와 싸울 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음을 발견하였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이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상황이 매우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안 좋게 보일 때에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 영국에 대한 스페인 함대의 공격을 보여주는 오래된 영화 속에서 두려움에 차 있던 장관은 영국 여왕에게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때 여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어두운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릴 때까지 계속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소망에 대한 관점이다. 소망은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계속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소망이 끝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그곳에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소망할)지어다. (벧전1:13).

그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이자 목표이다.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시게 될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망을 하늘에 굳게 고정하라. 하늘에 있는 우리 집에 대한 변치 않는 진리(소망)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든든하게 하자. 분명히 노랑 수선화와 나팔수선화 그리고 층층나무들이 매년 봄마다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에 하늘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이보다 더 큰 소망도 없다.

잠언 24: 성적 유혹을 이기고 안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

성경말씀: 잠5-6장

요즘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패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지난 1주일 동안 신문 TV, SNS 기사, 인하대 여학생 추락사, 남학생 강간 혐의 구속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한 사람이 추락해서 죽는 사고, 그 어머니의 오열
가해자 본인도 앞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한다. 남자 아이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삼일 교회 전 모 목사, 용인 수지 지역의 강 모 목사,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간음
솔로몬이 잠언은 이 주제에 대해 명확한 것들을 가르쳐 준다.

결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미혼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부도덕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벽을 세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미혼 자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이 성적 부도덕의 재난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오늘 < > 맥스 앤더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원리

앨런 피터슨(Allan Petersen)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원리>(The Myth of the Greener
Grass)라는 책을 썼다. 우리말 속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 책은 비록 오래전에 쓰였지만
그 결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sex), 우리 문화는 거의 이 말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성적 더러움이 사회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책과 잡지와 가판대와 영화관에서 그것은 가히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TV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매체로서 성적 더러움의 확산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성은 그 자체에
여러 가지 등급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간 방영되는 드라마나 토크쇼 아니면 밤중에 방영되는
인터뷰 프로그램 등에서 항상 고려되는 주제이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날마다 하루 종일 그러한
메시지는 기관총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환처럼 우리에게 쏟아진다. "존재하는 모든 성을 즐겨라. 그것을
놓치지 마라. 다음번에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성적 메시지의 포화 상태로 많은 사람들은 내 잔디밭보다는 다른 사람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느낀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혼전 성관계가 더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라면 현재의 배우자보다 다른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일 것이다. 세상은 간음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주간지나 TV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간음이 일반적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어놓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라는 생각이 도덕적 기준이 되어버린
다. 그리고 그에 대한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혼전
성관계와 간음에 대한 경고가 솔로몬에 의해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전히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적 부도덕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솔로몬
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핵심: 안전한 결혼 생활

금지된 관계가 짧은 순간 즐거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한 오랜 시간의 괴로움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
도 기뻐하실 것이다. 당신은 부도덕함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A. 간음의 위험성(5:1-14)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도덕한 만남을 경계해야만 한다. 그것은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멸망에서 당신을 구원해 낼 수 있었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한 것을 후회할

것이다.

- 5:1.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주제를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2:16-22; 5:3-23; 6:24-35; 7:5-27; 9:13-18). 잠언의 많은 가르침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아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주제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교훈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 5:2. 이 장의 조언을 따르면 어떤 유혹에서도 분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입술에 음란한 여인의 입술에 담긴 유혹의 말(3절)과 대비되는 지혜로운 말이 가득하게 하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왜곡된 지식으로부터 당신을 지켜 줄 것이다.
- 5:3 솔로몬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부도덕한 여인의 속임수를 경고하고 있다. 정말 위험스러운 것은 그녀의 외모에서 나오는 매력이 아니라 그녀의 말이다. 그녀의 입술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었던 꿀을 떨어뜨리는 것같이 유혹적이며, 그녀의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었던 기름보다도 더 부드러운 것이었다. 그녀의 유혹의 말은 젊은 남자의 본성을 일깨우는 것이며, 그녀가 무엇이랄도 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남자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5:4-5. 그러한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여겨지겠지만 그 결과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쓴 것인 썩을 맛보는 것 같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과의 만남은 양 날 가진 칼에 베이는 것처럼 쓰라릴 것이다. 잠언은 종종 우리에게 어떤 일의 시작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경고한다(5:11; 14:12-13). 금지된 정욕을 채워 보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망이나 죽은 자들의 처소인 무덤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맞는 말이면서 평화와 조화로운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 5:6. 여기의 너는 그녀의 먹잇감이 되는 자를 말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하나이며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얻도록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나 부도덕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혀 있다(구부러지고, 변경되며, 미끄러운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원칙을 계속해서 변경시킨다.
- 5:7-8. 아버지는 주의 깊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신선한 접근으로 새로운 내용을 전개한다. 그는 이렇게 강조한다. “만약 네가 그녀의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유혹의 말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그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예 그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 5:9-10. 이 구절은 정욕을 쉽게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을 나열하고 있다. 그들은 건강과 명예 그리고 자기 존중감과 관련된 자신의 존귀를 잃을 것이며 가까운 세월을 포화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를 약탈이나 공정한 처벌이나 애인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나 그 외 다른 어떤 이유로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 5:11. 솔로몬은 11-14절에서 헛된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 당신은 한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데 너무나 몰입하였고, 그는 그 죄로 인하여 완전히 소진되었다. 성적 접촉으로 인해 생긴 병은 육체의 몰락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 5:12-13. 헛된 삶의 여정이 끝나갈 즈음에 그 어리석은 자는 후회 가운데 자기 삶을 돌아볼 것이고, 멸망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조언을 무시했던 자신의 완고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의 양심이 그를 질책하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다른 사람들의 권유를 싫어했음을 고백한다. 결국 그는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고, 선생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5장 1절과 7절에 나온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패망이다.
- 5:14. 악행의 길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만인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것과 패배하여 멸망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 하에서 간음은 장로들의 회의에서 좀 더 경감된 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신22:22-24).

B. 결혼 생활의 즐거움(5:15-20)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우물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내와의 사랑에서 만족을 찾아야만 한다.

5:15. 물은 귀한 것이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기후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성적 관계와 육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물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그는 15-16절에서 물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자기 자신의 우물이나 물 저장고(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 공공 수도 시설에서 물을 펴오기보다는 개인의 시설을 사용하여 물을 마시기를 원할 것이다.

5:16.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해석한다. "당신의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하라." 이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맥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강조 의문문이라는 의견에 더 합치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우물이 넘쳐 길에 흘러가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5:17. 이 구절은 16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당신의 우물은 당신 가족들만 사용해야 하고, 외부인들이 사용하도록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원리로 육체적 결합은 오직 자기 배우자와 이루어져야 타인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혼외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 막10:6-9

5:18 부부 간의 사랑이 아가서 4장 12절과 15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우물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 구절 역시 동일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닌 바로 남편과 그 젊어서 취한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친밀감을 축복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그래서 밤새 철야기도 다니고, 산 기도 다니고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의 권고: 고전7:1-6

5:19-20. 육체적인 매력이 주는 즐거움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잠언은 남성들에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러한 연모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한다. 남편들은 마치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인 것처럼 그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내의 육체와 그녀가 주는 사랑에 만족해야 한다. 남편은 그녀만을 (17절) 사랑해야 하고, 항상 그래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매력에 열정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C. 하나님의 시선(5:21-23)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부도덕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5:21. 이 장의 초반부는 부도덕함의 자연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각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말 그대로 주님의 눈앞에 있다(하갈의 하나님, 창16:13). 여기서 길이란 한 사람의 습관에서 형성되어 그의 선호하는 바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치 차가 지나간 다음에 바닥에 생겨나는 자국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5:22-23. 방종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얽매어 악에 종속되게 만든다. 그 이유는 그가 훈련받기를 거부하였고(12절), 그의 길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시적인 쾌락을 선택하였고,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었다(줄에 매여 있다. 사로잡혔다, 19-20절).

D. 재난을 피하는 방법(6:20-35)

우리는 부도덕함이 고통을 가져다주고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모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6:20-22. 이 단락은 젊은 사람들이 성적 부도덕의 위험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아버지는 자신이 옆에서 항상 조언을 해줄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그는 1장 8절에서 언급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부모의 조언은 도덕적인 죄를 피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와 같은 지혜의 말들은 쉽게 잊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영원토록 자신의 마음이나 내면에 간직해야 하고, 그의 삶 속에서 목에 건 목걸이 장식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삶의 일부분이 되면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조언을 해준다.

6:23. 부모의 명령이나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 불빛이나 가로등의 역할을 한다(시 119:105 참고). 부모가 잔소리를 하거나 나무라는 경우에도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런 책망이 생명의 길에 서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6:24.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모의 가르침은 그 자녀들이 부도덕한 여자(음녀)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낯선 여자란 반유대적인 문화와 연합하여 느슨한 도덕 기준을 갖도록 만드는 여자다(잠 2:16).

6:25-26 25절은 경고의 말이고, 26-35절은 그 경고에 대한 이유이다. 매력적인 여성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7-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지되어 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녀가 당신의 시선에 반응하여 호의를 보내온다 하더라도 그녀에 대한 욕심은 잘못된 것이다.

26절은 그러한 부도덕이 남성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자도 마찬가지.

6:27-29. 두 개의 수사학적인 질문은 결과로 인한 괴로움 없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불에 타지 않고서는 불붙는 석탄을 옷에 담을 수가 없고, 살이 데지 않고서는 맨발로 숯불 위를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결혼한 여성과 은밀한 관계를 계획하는 사람은 그로 인한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통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6:30-31. 비록 도둑질이 심각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도둑질한 사람은 어느 정도 자비를 얻을 수 있고, 특히 그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훔쳤다면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있다. 만약 그가 붙잡힌다면 그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율법은 범죄 행위에 대해 20퍼센트 정도의 벌금을 규정하였고(레5:16) 삭개오는 자원하여 400퍼센트를 갚았지 만(눅19:8) 원래 도둑질한 자는 비록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도 그가 훔친 것의 7배를 내놓아야만 하였다(잠6:31).

6:32-35. 그렇다면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간음 행위를 했다는 것은 판단력이 마비되었고, 자기 파괴적인 정욕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그 행위의 불명예스러움은 결코 완전히 없애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상처를 받은 여자의 남편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무자비한 원수가 된다.

금지된 관계가 짧은 순간 즐거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한 오랜 시간의 괴로움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당신은 부도덕함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 임박한 재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위해서 잠언을 읽는 것은 정말로 필수적인 일이다. 잠언의 역사와 문화와 장소가 현재와 다르다고 해서 그 원리마저 우리의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원시적인 문화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잠언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큰 실수다. 세실 디카드(Cecil Dickard)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성경과 초를 주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보라.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시대 이후의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다(전1:9).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우리의 동기, 욕구, 연합함 등은 태초 이래로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잠언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삶의 적응: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원리〉라는 책에서 앨런 피터슨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을 할 때 당신은 끝까지 당신과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와 결혼하게 된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밤에 잠이 들 때 항상 그는 옆에 있을 것이다. 그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싫든 좋든 당신과 그 동반자는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혹, 그것도 당신의 일평생의 동반자이다.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 유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현재 유혹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 안에 항상 존재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세균과 같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격리된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사나 비밀스러운 동굴에서 사는 은둔자나 외로운 독방에 갇힌 죄수, 그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 다 유혹을 느낀다. 만약 당신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면 당신은 그러한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다면 그 신체로 인해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성적인 것을 의식하며 산다면 당신은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터슨은 여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성경적인 양심을 더욱 증진시켜라. 성경을 통해 양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함으로 양심을 더욱 강화시켜라.

두 번째, 만약 당신이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단호하게 결정하라. 당신이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 전력투구하지도 않는다면 당신은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다.

세 번째, 당신의 반응을 미리 결정하라. 유혹의 압력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결정하라.

네 번째, 반작용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라. 당신의 마음에 공백을 만들지 말고, 그 대신 신실함을 고취시키는 것들로 가득 채우라.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르라.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데 온전히 헌신하셨다.

그분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유혹을 이겨내셨다. 또한 유혹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셨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유혹들 앞에서 또 솔로몬의 권고를 고려할 때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또한 우리 각자가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미리 인정하고 안전한 극복의 방법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우리는 성적 유혹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잠언 25: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경적 비결

성경말씀: 잠30장

잠언 24번 강해, 오늘 포함해서 2-3번 정도 하면 끝이 난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다.

잠언: 인생의 지혜(기술), 분별력, 인생의 다양한 문제, 사례, 지난주 음행을 피해야 한다.

오늘 < >,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들어가는 글: 한 푼 적선해 주시겠습니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가족들로부터 떨어진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
그는 집을 떠난 이후에 가난뱅이가 되었고, 절망하였으며, 결국에는 구걸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나는 노숙자로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나가는 누군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한 푼만 적선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절 알아보시겠어요?"

아버지는 저를 끌어안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오, 아들이, 마침내 널 찾았구나. 찾았어. 적선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네 것이다."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저는 그저 몇 센트를 얻으려고 아버지한테 구걸을 한 겁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아버지는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려고 저를 찾아다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 모습은 얼마나 우리 자신과 똑같은가. 우리는 온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신다.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혜는 그 모든 선한 선물 가운데 하나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중요한 진리에 대한 날카롭고 정확한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의 마음 때문이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문 이해: 평안한 삶의 근원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록자 아굴은 성경의 이 부분 외에 어느 곳에서도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용하는 자' 혹은 '끌어 모으는 자' 라는 의미를 지니며, 많은 랍비들과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것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그러한 필명을 써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굴은 대체로 열왕기상 4장 30-31절에 언급된 '지혜자'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굴은 자연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다음에 그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주의 의미를 알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인생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큰 위로가 된다.

A. 겸손히 하늘을 우러러봄(30:1-9)

우리는 현실적인 세상의 작용 원리들을 깊숙이 파고들어 연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과 지혜에 비교한다면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 정도에 불과하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에 대한 최고의 근원이 되신다.

30:1. 30장은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다소 구별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마치 부록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그 첫 번째 구절은 이에 대한 서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의 잠언 기자는 아굴이며, 그의 글을 읽는 자들은 이디엘과 우갈이다. 학자들은 이 이름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들을 전개하였지만 어떤 것도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30:2-4, 아굴은 먼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서두를 꺼내고 있다. 그것은 진실한 겸손의 표현이었지

만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반어법을 띠고 있는 듯해 보인다. 그는 자신이 가장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보통 인간 수준도 안 되고, 동물처럼 우둔한 보통 인간 수준 이하의 동물과 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잠언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고 고백한다.

4절은 읍기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일련의 연속적인 수사적 질문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 이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나?" 물론 그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다.

마지막 질문은 그러한 설명에 부합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다. 어떠한 인간도 이러한 기준에 합당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일한 대답이 된다. 아굴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물었을 때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표현의 확장 정도로만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

30:5-6. 자기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만이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근원이 되신다. 그분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것은 모든 의혹을 물리친다. 그리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방패처럼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거나 혹은 발전시키려고 하거나 무엇을 빼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신12:32; 시12:6; 마24:35, 계 22:18).

30:7-9. 이 장의 많은 부분들은 이 구절과 같이 숫자에 연관된 여러 가지 말을 보여주고 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 사는 동안 중요한 일이 될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다. 첫 번째, 그는 주님께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한다. 그는 자신의 신실함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를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 적게도 아닌 수준으로 공급해 달라고 간구한다. 그는 양 극단에 치우쳤을 때 따라오는 유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너무나 많은 물질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소유를 더 의지하라는 유혹을 받게 된다(신 8:12-17). 또한 너무 없으면 그 경제적인 절박함은 우리로 하여금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유혹을 받게 만들지도 모른다.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다. 거짓 맹세(출20:7) 빌4:12-13,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B.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봄(30:10-33)

주변을 넓게 살펴보면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세계와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잠언 기자는 자연과 인간 사회를 병행해서 살펴며 깊은 묵상을 하고 있다.

30:10. 다른 종을 중상 모략함으로써 그 집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그 주인은 거짓된 음해를 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저주할 것이고, 그러한 저주는 합당하기 때문에 당신의 집에 실제로 임할 것이다(26:2과 는 다름).

30:11-14. 이 단락은 네 가지 종류의 특히 더 추악한 죄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부모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20:20 참고). 두 번째 부류는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더러워서 자신들에게서 나는 악취도 깨닫지 못하는 위선자들이다. 세 번째 죄인의 부류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거만한 자들이다. 네 번째 부류는 연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흉악한 짐승들과 같은 자들이다.

30:15-17. 이 단락은 탐욕스러운 사람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그는 사람 혹은 짐승의 몸에서 피를 빼는 거머리에 비유되고 있다.

다음 단락은 탐욕스러운 사람과 같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네 가지 것을 보여준다. 세 개 혹은 네 개라는 표현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표현법이다. 두 가지(무덤과 불)는 자기 파괴적이고, 다른 두 가지(비와 태)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덤은 결코 죽은 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를 가진 여인은 아이 갖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가나안과 같은 건조한 기후에서는 땅이 내리는 비를 그 즉시 흡수해 버린다. 그리고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불태운다.

17절은 11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거만한 자들과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 주고 있다. 순종하라는 말을 조롱하는 것은 그것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경멸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부모의 권위에 대한 멸시는 신적 권위에 대한 반항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그러한지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며,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쪼아 먹을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30:18-20. 잠언 기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각각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아도 높이 솟아오를 수 있고, 뱀은 발이 없지만 바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배는 바람 이외에 어떤 미는 것도 없지만 바다 위를 향해하며, 남자는 이와 비슷한 기이한 방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해집는다. 20절은 좀 더 다른 역겨운 것이지만 역시 놀라운 모습을 첨언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난잡한 간음하는 여인의 행동이다. 그녀의 양심은 죽어버린 지 오래다. 금지된 성관계가 그녀에겐 그저 밥을 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입을 닦으면서 자신은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뻔 뿐이다.

30:21-23. 여기에서 우리가 배제하고 살아가야 할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세상이 진동한다! 종이 곧장 임금의 역할을 맡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훈련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하극상, 어리석은 자가 배부른 것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사랑에 굶주린 여인은 자신의 깊은 욕구를 결혼으로 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 정상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계집종이 자신의 여주인을 이은 것은 분명 실수투성이가 될 것이다.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0:24-28 이 단락은 자신의 작은 몸집과 힘 없음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자 애쓰는 네 가지 동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개미는 큰 힘은 없지만 적어도 인간과 비교 대상이 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름에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것은 비록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의 필요였지만 그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있었다. 작은 포 유류인 토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만드는 지혜가 있어 적이 나타나면 재빨리 몸을 피해 숨을 수 있었다.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본능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곡물을 먹어치울 수 있는 매우 조직적인 체계로 무리 지을 수 있다. 거미는 별로 힘이 없어보여서 사람이 손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은 왕의 처소에도 손쉽게 드나들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동물들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공급해주셨고, 그분의 백성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까마귀들, 백합들 눅12:24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 날짐승들 보다 얼마나 더 나오나

30:29-31. 아굴은 왕의 고귀한 모습과 당당한 풍채에 대한 비교로 세 가지 특징적인 동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사자는 동물의 왕이자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는 자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레이하운드

역시 왕의 권위의 화려함을 깨닫게 하는 자연스러운 이목을 가지고 있다. 염소 무리의 우두머리인 숫염소는 자신이 대결하는 어떤 상대자에게도 당당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공격적인 위용을 가지고 있다. 왕은 동일한 복장을 하고서 본능적으로 왕권의 한 부분과 고결함을 나타내는 군대의 호위를 받고 있다.

30:32-33.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왕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 둔감하여 스스로를 높이거나 의로운 사람에게 대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는 마치 코를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과 같다! 잠언 기자는 그런 자에게 경고하기를, 그런 경우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코피가 흐르는 것처럼 악한 계획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자기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한다. 이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휘젓고, 비틀고, 격동시키는 행동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쥐어짜거나 억지로 꼭 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유가 가득 담긴 부대를 쥐어짜서 버터를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코를 비틀면 코가 빨개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 이미 화가나 있는 사람을 자극하게 되면 그의 분노가 폭발하여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결론:

아굴은 자연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다음에 그는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주의 의미를 알고계신다고 말하였다(잠30:4-6). 하나님이 인생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큰 위로가 된다.

삶의 적용: 우주의 신비

척 스윈들은 그의 책 척 스윈들의 설교 예화 1500선(The Tale of the Tardy Oxcart, 도서출판 디모테)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삶에 관한 많은 것들은 신비다. 죽음도 그런 것이다. 아무도 거기서 돌아온 사람이 없고, 그것이 어떤지 말해 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수수께끼이자 궁금증이며 신비다. 바다 역시 그렇다. 파도의 높이를 좌우하는 바다와 달의 신비한 연합은 시인의 마음속에서 위대하고 변함없으며 감미로운 신비로 계속 전해 내려온다.

우리 머리 위로 펼쳐져 있는 우주 역시 그렇다. 누가 일년 365일 하루에 24시간계속해서 일정한 궤도를 지나가고 있는 시간의 거대한 파편의 신비한 움직임이 그대로 측정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망원경으로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눈은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우주의 신비를 뒤쫓아 가면서 동공은 더욱 커지고 입은 탄성으로 더욱 벌어지게 된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현미경만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해보라. 이처럼 망원경으로 보든지 현미경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 주변의 삶은 신비로 가득 덮여 있다. 당신은 전자 하나를 사과 크기로 보고자 한다면, 또한 인간의 몸이 동일한 비율로 커져서 그 사람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모든 태양계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확대된 비율의 렌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는 신비가 있다.

당신이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태초가 시작된 어느 지점으로 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동일한 원리가 공간에도 적용된다. 1조 년 동안 빛의 속도의 백만 배로 북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로 곧장 나아간다고 하자.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우주의 끝에 다다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였다면,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라. 그 우주 끝의 바깥쪽에는 또한 무엇이 있을까?

인생의 신비는 그저 잠깐 생각해보기만 해도 심오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다.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일이 되지 않기도 하고, 절대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삶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일들은 이해할 수 있다. 아굴은 그중 어떤 일들을 이해하였다. 그는 인생과

자연의 신비를 궁구하였고, 그 속에서 어떤 원리와 진리를 끄집어내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는 잠시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의아해하였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때로 우리는 삶의 신비로부터 어떤 영적인 진리를 끄집어낸다. 예를 들면, 시간의 영원성이나 공간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에 대한 모습을 그리게 해준다. 하지만 또 다른 때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놀라우시며, 너무나 엄위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혜를 가지고서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

하지만 그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경배로 우리 무릎을 주님께 꿇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충분한 깨달음이다. 즉,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원자는 99.9999999999996%가 비어 있다.

원자 속에서 빈 부분을 다 빼내고 나면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70억)은 조그만 설탕 조각 하나 정도의 체적(약 2.5세제곱 센티미터)을 차지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1.3-1.4cm

<https://cbck.org/PastorColumn/View/1hM>

잠언 26: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성경말씀: 잠1:8-9

잠언 25번 강해, 오늘 포함해서 2-3번 정도 하면 끝이 난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다.

잠언: 인생의 지혜(기술), 분별력, 인생의 다양한 문제, 사례

무언가를 배워야만 한다. 롬15:4

오늘 < >,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연장자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기쁨이 되지만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아이들은 고통이 된다. 신실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 관계가 변질될 때는 삶이 끔찍한 것이 되어 버린다. 성경은 옛 세대가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전 세대를 따르고 존경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권고한다.

들어가는 글: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

가정을 소재로 하는 많은 유머들이 있다. 코미디언이었던 로버트 오르빈(Robert Orbin)은 이런 말을 했다. “윈스턴 처칠의 불후의 명언을 누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다에서 싸웠고, 육지에 오르면서 싸웠고, 들판에서 싸웠고, 거리에서 싸웠으며, 언덕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가족이 여행을 떠났을 때 일어났던 일과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트린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이 했던 말을 정말로 믿고 있다. “가정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소망의 궁극적인 결실이 된다. 그것은 모든 경영과 노력이 목표로 하는 최후의 결과이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 단위이다. 가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척 콜슨은 그의 책 「기독교적 세계관을 위한 가르침들(Draper's Book of Quotations for the Christian World)」에서 이런 말을 했다.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도덕적 기반을 갖지 못할 것이다. 가정이 없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도덕적 기준이 되어 안하무인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인간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 하나님께 책임을 부여받은 가정은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다. 부모들은 자기중심적인 작은 괴물들을 받는다. 이들은 많은 시간 반항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카펫에 완두콩을 뿌려대는 녀석들이다. 그리고 부모는 이들이 다른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절제, 규칙에 대한 순종 등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개개인의 도덕성을 배우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 깨닫고 있었다. 그는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간의 관계에서 가족들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날카로운 조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본문 이해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근원적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직업적인 성공도 아니고,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만족의 근원은 다른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정을 두셨다.

A. 부모와 자녀

(1:8-9; 10:1; 11:29; 15:20; 17:2, 6, 21, 25; 19:26; 20:20; 23:2225; 28:24)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손자 손녀를 통해 얻는 즐거움은 더욱 크다! 하지만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녀를 둔 고통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

1. 1:8-9.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네 목에 사슬이 되리라.

아들이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잠언은 자주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한다(4:1, 10, 20; 5:1, 7; 7:24; 8:32; 19:20; 22:17; 23:19, 22). 왜? 부모의 지혜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교훈이라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틀림없다. 잠언 1장부터 9장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머니의 가르침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3:1; 6:20), 훈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는 종종 '율법'이라고 번역된다. 하나님이 토라를 직접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것을 자녀에게 말할 때에는 그냥 법이라고 부른다. 각각의 경우에서 그것은 한 사람의 행동을 지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한 유익을 얻게 한다. 머리에 쓰는 왕관이나 목에 거는 금목걸이가 그 사람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그의 성공과 높은 위치를 확인시키는 것처럼 지혜로운 부모의 조언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자녀를 만든다.

2. 10: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이 구절은 부모의 행복이 그 자녀의 행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아들은 지혜롭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23:15; 27:11; 29:3; 요삼 1:4 참고). 반면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 것이다(17:21, 25; 19:13). 그는 너무나 무감각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경멸하며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
3. 11:29.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하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들이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일 때 그는 자기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자가 된다. 이는 아간(수 7:25-26)이나 아합 왕(왕상 18:17-18)과 같은 자이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바람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는 부와 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17:6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왕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한 가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충실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며, 각 세대는 다른 세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부모 세대는 본능적으로 손자손녀들을, 기쁨을 주고 영광의 표시가 되는 왕관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올바른 모습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나타내는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5. 17:21, 25,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슬픔을 얻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거리이고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지혜를 나타내면 기뻐하지만 자녀들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면 슬퍼한다.
6. 19:26. 자기 아버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아버지를 피폐하게 한다는 의미는 공격하거나 다른 말로 학대한다는 것이고, 어미를 쫓아낸다는 것은 실제로 가산을 자기가 차지하고 부모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었지만 사실 부모를 학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나중에 자신도 자녀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 것이다.

B. 남편과 아내(주로 여인들의 품성)

(11:22; 12:4; 14:1; 18:22; 19:13-14; 21:9, 19; 25:24; 27:15-16)

- 남자는 신실하고 근면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한 관계를 변질시켜 버리면 결혼생활은 비참한 것이 될 것이다!
1. 11:22,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현으로

잠언은, 아름다운 여인의 부조화스러운 행동은 도덕적으로 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종종 장신구의 하나로 코걸이를 하곤 하였다. 그러나 돼지코에 금고리를 하는 것은 확실히 우스꽝스럽고 역겨운 것이다. 그것이 결코 돼지를 멧있어 보이게 하지는 않는다. 또한 어떤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면(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단순히 외모로 아름다운 것은 그녀에게서 나타난 도덕적인 흠을 결코 덮어주지 못한다.

2. 12:4.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왕관이지만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뺨속의 썩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아내의 성품은 그 남편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 어진 여인은 룯에게서 나타나는 강함과 열심을 보이는데(룯 3:11), 그러한 여인의 모습은 31장 10-31절에서 자세히 그리고 있다. 그녀는 남편의 왕관이 되고, 그의 남편이 위엄과 존경을 얻게 한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도덕적인 단호함과 끈은 성품이 없다. 그런 여인의 남편은 부끄러움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 여인이 점차 남편을 쇠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뼈가 썩는 것 같은 무기력함 속에 빠지게 된다.

3. 14:1. 모든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이 구절은 아내의 능력이 그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흠어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이 내용은 논리적으로는 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하는 집안 살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가족을 살피고 번성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스스로 망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뿐이다.

4. 18:22.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지혜롭고 젊은 사람이라도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그들은 잘못된 이유로 여성을 선택하게 되고, 나중에야 자신의 선택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여인을 찾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내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좋은 선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표를 받은 것이다. 주님은 그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19:13-14.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어리석은 아들을 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아버지의 경우, 그것은 자기 인생의 파멸이다. 이와 동일하게 고통스러운 것은 다투는 아내를 둔 것이다. '다투는'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잠언에서 더 자주 나온다. 그 의미는 '싸우는' (21:9, 19; 25:24; 27:15), '분개하는' (6:14, 19; 10:12; 15:18; 28:25; 29:22), '논쟁하는(18:18-19), '분쟁하는' (17:14; 22:10; 26:20) 그리고 '불화하는' (23:27)이라고 해석된다. 그런 여인이 일으키는 끝없는 분쟁은 비새는 천장과 같이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힌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집 자체에 심각한 해를 미치는 것처럼 그런 여인은 가족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보다 한 남자의 삶을 더욱 소망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녀는 능력 있고, 성실하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큰 재산이다. 집과 토지 등 많은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그러한 아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

21:9, 19; 25:24, 27:15-16 비슷한 주제

C. 연장자 세대(16:31; 20:29)

서양 문화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연장자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치며, 그들을 귀중히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다.

16:31.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왕관이니라. 구약 사회에서 연장자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백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 번영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잠언은, 오래 사는 것은 의로운 삶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가르친다(9:6; 10:27). 비록 예외도 있지만 이 점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백발을 왕관처럼 생각해도 된다. 그는 그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20:29.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यो,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오랜 기간 쌓인 자신의 지혜와 신실한 성품에 의존한다. 백발은 그러한 구별된 모습의 표지이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각기 장점이 있다. 이것은 각각 존중되어야 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복습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근원적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직업적인 성공도 아니고,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만족의 근원은 다른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정을 두셨다.

D 결론: "소금 좀 집어달라니까, 안 그러면 때려줄 거야!"

자녀를 기르는 것은 항상 생각처럼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I want to Enjoy My Children)의 저자 헨리 브랜트(Henry Brandt)는 젊은 시절 그가 다니던 대학의 총장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연습시켰다.

총장이 왔을 때 그들은 모두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테이블로 그를 안내하였고, 그 옆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훈련된 어린 딸을 앉혔다. 그런데 그것이 큰 실수였다. 밥 먹는 동안 그 아이는 총장님에게 낭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소금 좀 집어주시겠어요?"

브랜트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총장님의 말씀에 한창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아이가 다시 말했다. "소금 좀 집어주시겠어요?" 총장님의 말씀에 너무 귀를 기울인 나머지 우린 그 아이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세 번째, 곱슬머리를 한 갈래로 판 이 꼬마 숙녀는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만들었던 브랜트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산산조각내버렸다. 그 애는 조그만 주먹으로 우리의 귀한 손님인 총장님을 치면서 소리쳤다. "소금 좀 집어달라니까, 안 그러면 때려줄 거야!"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피할 길 없는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인격을 성숙시키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고자 하는 부모의 노력은 언젠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다(22:6). 이것은 확고한 보증을 아니지만 대체로 올바른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며, 우리가 신뢰함으로 따를 수 있는 잠언의 원리이다.

삶의 적용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는 그의 책 「영적 진료소(A Spiritual Clinic)」라는 책에서 과거에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살았던 두 가족에 대해 관찰하면서 그 두 가족이 다음 세대에 끼친 서로 다른 영향력을 기록해 놓았다. 한 가족은 맥스 쥬트 씨 가족이었고, 다른 한 가족은 유명한 신학자이자 미국 초기 건국 시대에 큰 공헌을 한 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족이었다.

맥스 쥬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포악한 자였고 역시 그와 비슷한 여성과 결혼하였다. 그들의 자손 중에서 약 1,200명이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 310명은 부랑자가 되었고, 440명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130명은 평균 13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고, 그중 7명은 살인죄로 복역하였다.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고, 60명은 도둑이었으며, 190명은 매춘부였다. 상업을 했던 20명 중에서 10명은 감옥에서 상업을 배웠다. 그들이 생활하는 데 약 150만 불이 소비되었지만 그들은 사회에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경우, 조나단 에드워즈는 비슷한 성품의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 결혼 이후에 300명의 목사와 선교사들 그리고 신학 교수가 배출되었고, 100명이 넘는 대학 교수와 1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중 30명은 판사였으며, 60명의 의사와 60명이 넘는 작가 그리고 14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다. 그들 중에는 미국 산업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들이 있었다. 3명은 미국 연방 의회의 상원 의원이 되었고, 한 명은 부통령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다.

신실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은 무한하며, 많은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잠언의 원리를 따르면서 신실한 성품으로 뒷받침되는 자들은 영적 유산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그러한 축복된 삶이 그들 자신에겐 큰 보상이 되고, 세상에는 큰 도움이 되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1. 1에서 10의 척도에서 10을 최고라고 하였을 때 당신은 자녀로서, 부모로서 혹은 연장자로서의 당신 자신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역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2.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변화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잠언 27 두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생각보다 낫다

성경말씀: 잠24:6

지금까지 잠언 26번 강해, 오늘 포함해서 2번 더 하면 끝이 난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다.

잠언: 인생의 지혜(기술), 분별력, 인생의 다양한 문제, 사례

오늘 < >,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오늘은 지혜롭게 조언을 주고받는 것, 잠언의 주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잘 살 수 없다는 진리이다. 주의 깊은 사람은 비록 조언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게 하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잠언은 우리가 늘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목사, 대통령도 마찬가지.

들어가는 글: 두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생각보다 낫다

잠언 24장 6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한 사람이 옳고 그름에 관한 성경의 높은 관점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에게는 내각이 있고, 회사에는 이사회가 있으며, 교회에는 장로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한 최선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고비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조언의 말씀을 얻기를 원할 때가 있다. 나(맥스 앤더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수히 많이 들었다. "저는 하나님이 글로 혹은 꿈으로 또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게 뭔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다가오셔서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차를 사야할지에 대해 말씀해 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인도해줄 수 있는 많은 진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상담자로 우리에게 최고의 조언을 선사한다.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한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할 때 그분은 분명 그 상황 가운데 세워놓으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잠언은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다. 이 단락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독려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다.

A. 훌륭한 조언을 통해 배움

(3:1-2; 10:8; 12:15; 19:16, 20, 27; 19:27; 23:9; 27:17)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배우기를 중단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

3:1-2. 내 아들이, 내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그것들이 네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하면서 처음 몇 장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 말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였다. 그것들은 단순한 제안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잠언 1장: 악한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1:10-15).

지혜에 관한 말씀들은 놀라운 유익을 준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명령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약속한다. 그리고 잠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3:16; 4:10; 9:11)을 장수와 연결시킨다. 이러한 조언은 단순한 평안이나 번영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 '살림'을 누리게 만든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통합성과 건강 그리고 조화로우심을 내포한다.

10: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지만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지혜를 얻는다. 그러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떠들어대는 데 너무 바빠서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

12:15.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가 보기에 옳으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조언을 통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남들이 다 보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넘쳐 조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19:20.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네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훈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결국 지혜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게 된다.

23:9.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네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어리석은 자는 진리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설득력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비웃으며 조롱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이와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셨다.

27:17.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두 개의 쇠를 서로 비비면 한쪽이 다른 쪽을 날카롭게 만든다.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우리를 더욱 세밀하게 만든다. 이 원리는 사업, 학문, 육체적 분야와 영적 분야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날카롭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는 유익이 그들의 얼굴에서도 나타난다는 뜻이다!

B. 구체적인 책망을 통해 배움

(9:7-9; 13:1, 13; 15:31; 17:10; 19:25; 25:12; 27:56; 29:1)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좋은 친구가 우리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충고를 반가워하지만 강박한 사람은 그저 화만 낼 것이다.

9:7-9.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오명을 얻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비판은 지혜를 얻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거만하여 비웃는 자(7-8절)는 당신이 그를 훈계하면 폭발해버려서 모욕적인 언사를 내뿜을 것이고, 도리어 흠을 잡으며 당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비웃는 자를 사악한 자와 동일시하면서 거만한 태도는 도덕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8절 후반절부터 9절의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 것을 깨닫고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당신의 통찰을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를 의로운 자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특징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13:1.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절은 당신이 어떤 지혜로운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들에게 배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비웃는 자는 어리석음의 극치에 있는 자이다. 아버지의 조언을 듣지 않는 아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간다.

15:31. 생명으로 이끄는 책망의 말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지혜 있는 자들의 무리 속에 거할 수 있는가? 가장 빠른 길 가운데 하나는 책망의 훈계를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1장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조언과 질책은 당신이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혜의 공정한 교훈에 순종할 때 지혜로운 자의 무리에 들게 되고 평안할 것이다.

17:10,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백 번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에 즉각적으로 올바르게 반응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영혼에 뿌리박혀 개선의 방법을 찾는 그의 행동을 평가한다. 하지만 강박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런 말들을 무시해 버린다. 사실 매를 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율법은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백 번이라는 말은 당신이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5:12.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책망은 그리 좋게 들리지는 않지만 잠언은 그것을 금귀고리나 그 외 다른 보석에 비유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당신에게 훈계를 할 때 당신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조언이 될 것이다. 그의 조언이 당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딤후2:10).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자매님들에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아름다움을 갖는 일에 노력하라고 말했다(벧전 3:3-4). 너희는 머리를 땅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그리스도인의 덕목

27:5-6.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한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5절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낫다' 라고 설명하는 잠언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사랑의 대화와 표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책망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바람직한 면책은 사랑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약간은 불편한 관계가 될지라도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랑보다는 더 나은 것이다.

6절은 순수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비교하고 있다. 당신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책망은 마치 원수가 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책망은 신뢰할 수 있다. 반면에 자주 입 맞추는 사람은 친한 친구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입맞춤이라면 가롯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른다.

설교 코칭(*), 나의 설교 개선 사례

C. 조언자의 도움의 가치(11:14; 15:22; 20:18;24:5-6)

훌륭한 조언을 따르는 것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11:14.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넘어지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나쁜 결정은 당사자를 고통 속에 온 밤을 지새우게 만든다. 그러므로 훌륭한 조언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조언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때로 배의 키를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만약 키로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배는 곧 가라앉고 말 것이다. 안전을 위해서 지도자는 많은 조언자들의 지혜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는 승리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5:22.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좌절되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된다. 우리가 상담을 받으며 의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우리의 목표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큰 조언자, 사9:6

20:18. 모든 목적인 바가 의논함으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하라.

잠언은 종종 왕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언급은 문자 그대로 다루어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조언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전쟁에 뛰어들려 한다면(전쟁의 준비), 미약한 준비로는 승리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조언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먼저 앉아서 자기를 대적하여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영적 전투에서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엡6:10-13). 24:5-6.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이 구절들은 군사력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역사는 교묘한 작전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물리쳤던 많은 전투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지혜로운 장수는 결코 지식이 많은 참모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결론: 아직 본향 집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한 마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평정심을 갖게 하며, 혼란스럽던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기도 한다. 당신은 아마 간단한 진리의 힘을 실례로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사역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배에 타고 있었다. 그는 사냥 여행에서 돌아오는 중이었고, 군악대가 갑판 위에서 축가를 연주하고 있었다. 많은 고위 인사들과 엄청난 규모의 인파가 그곳에 모여 그를 환영하고 있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선교사가 말했다. "그는 기껏 사냥 여행이나 하러 아프리카에 간 것뿐인데 세상은 이렇게 떠들썩하게 그를 반겨주는군. 하지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환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생각은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알아요, 여보,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 하늘나라 본향 집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상담자들의 능력이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정신을 바로 차리며, 복잡함 속에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각 사람의 발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상담자를 찾으며, 그들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인다.

■ 진리 알기

- 항상 자기 혼자서 판단을 내리고 언제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 때로 지혜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옳다면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 지혜는 결코 성경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다.

삶의 적용: 경고에 주의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의 조언에 마음 문을 여는 것이다. 때로 지혜로운 상담은 세상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직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멀어질 때 경고하는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

1889년에 일단의 토목기술자들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존스타운 상류에 있던 댐을 조사하고 나서 그 댐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 지역 관청에 보고하였다. 그 댐은 유지 보수 관리가 소홀했고, 여기저기 생겨난 균열들은 댐이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언제나 있어 왔고,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우려는 한낱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그 경고는 무시되었다. 그해 5월 31일 오후 4시 7분에 그 댐은 붕괴되었고, 도시로 연결되는 좁은 강줄기를 따라 그 안에 있던 2천만 톤의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엄청난 양의 부유물들로 넘치면서 강 수면은 순식간에 19미터 높이에 육박하였고 시속 70킬로미터의 물살이 마을을 덮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켰다. 30분이 채 되지 않아 존스타운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2,209명이 사망하였다. 그들은 이런 일을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다.

결론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조언과 권고).
유익이 되는 비판을 겸손히 수용해야 한다.
모든 일에 조언이 많으면 안전하다.
조언자: 부모, 교사, 목사, 성경, 좋은 친구

잠언 28: 친구를 사랑하고 우정을 쌓는 교제의 중요성

성경말씀: 잠1:8-9

잠언 27번 강해, 솔로몬의 잠언은 여러 주제를 말한다. 그중 하나가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쁜 친구를 멀리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친구들에 대한 것이며 또 주변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한 것이다.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라 오늘날은 < >, 친구를 사귀는 것,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 인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역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들어가는 글: 바울의 친밀함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개 그를 열정이 있고, 똑똑하며, 독립심이 강하고,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러한 인상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동시에 그는 인간관계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는 그의 저서 「당신의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Restoring Your Spiritual Passion)」에서 바울에게 많은 친구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실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적 목표에 그들이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 감사를 전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분명히 그가 의지하는 힘의 근원이었으며, 그들이 없었다면 그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와 돈독했던 친구들 가운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살았으며(행 18:3), 오네시보로(딤후1:16), 빌레몬(몬1:7), 누가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친구들이 있었다. 바울의 친구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출신 배경을 가졌으며 그는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친구를 사모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으스스하며 남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지를 알 수 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대한 칭찬과 확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많은 좋은 친구들을 갖게 되었다. 우리 역시 많은 친구들을 갖고 싶다면 바울의 자세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 강해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하며, 진실한 친구가 아닌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본문 이해: 사랑과 우정의 조건, 유지

잠언은 지혜에 초점을 두면서도 사랑이 하나님과 가족 혹은 친구들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근본 토대라고 말한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랑은 잠언에서 긍휼로 표현되어 있다.

긍휼은 인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과 가족 혹은 친구들, 성도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다. 진실한 사랑은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상호 교류 속에서 나타난다.

친구는 더할 나위 없이 삶을 풍성하게 한다. 좋은 친구는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선한 친구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귄 때에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친구: 히브리어 '레아'는 친구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구약에서 약 180회 사용되었다. 이것은 '친구'나 '이웃'으로 해석된다(12:26; 17:17; 27:9-10). 욥의 세 친구, 자주 만나 익숙해진 사람(출 2:13; 삿7:13), 아주 가까운 친구, 이웃으로도 번역된다. 레위기 19장 18절,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정의 형제자매, 교회의 형제자매 등

A. 사랑, 우정의 근본 토대

(3:3-4; 10:12; 11:16-17; 12:10, 25; 15:17; 16:6;

17:5; 20:6; 21:10; 24:17-18; 25:19, 21-22)

어떤 관계는 편리성이나 목표의 공유 혹은 사업적인 유익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서로 만족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과 신뢰성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3:3-4. 공홀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하리라.

3장은 일련의 명령과 약속의 관계로 시작되고 있다. 한 구절이 명령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구절이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 얻는 보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홀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공홀은 히브리어 헤세드(chesed)로서 이미 성립된 언약이나 헌신을 지속하게 만드는 충성스러운 사랑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진리는 믿을 수 있는 진실함, 신뢰성을 의미한다. 구약의 핵심적인 두 가지 덕목은 14장 22절과 16장 6절 그리고 20장 28절에서도 나타난다.

공홀과 진리가 왕을 보존하며 그의 왕좌는 공홀로 떠받쳐지느니라(20:28).

이 두 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기도 하다.

그 다음 절은 이 명령의 긴급함을 시각적인 언어로 강조하고 있다. 신명기 6장 8-9절에서처럼 이 구절은 독자에게 공홀과 진리가 삶 속에 영원토록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하면서 이 둘을 단단히 목에 매며 석판 위에 새기듯이 마음판 위에 새겨놓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공홀과 진리가 한 사람의 삶 속에 영원히 나타나는 덕목이 된다면 그 보상은 호의와 선한 명철이 될 것이다. 호의는 때로 '은혜' 혹은 '친절'로도 번역되고, 선한 명철은 문자적으로 현명함 혹은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이러한 자질을 귀하게 평가해주실 것이다.

공홀과 진리가 인간관계 형성의 토대

11:16-17.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니라. 공홀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고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어쩌면 그것이 재물을 얻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 결국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얻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덕하고 은혜로운 여자는 악한 자들이 결코 따를 수 없는 존경을 얻게 된다. 겉으로는 그녀가 영리해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움과 헌신적인 사랑을 가진 남자는 자신의 충성심이 신임과 존경이라는 유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반대로 잔인한 사람은 자신의 잔혹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2:10.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만 사악한 자들의 친절한 공홀은 잔인하니라. 공홀은 의로움과 함께한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짐승의 생명을 돌아보며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홀히 여김을 받고 그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공홀을 베푼다. 반면에 악한 자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학대한다. 그나마 그가 행한 가장 친절한 행위도 사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들이다.

12:25.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때로 불안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 불안은 우리를 불편하게하고, 위축되게 하며, 때로는 우울함에 빠지게 한다. 우리의 내적 자아는 그런 스트레스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친밀한 말(선한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며, 다음 상황에 맞설 수 있는 격려가 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15:17.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은 무엇이 진실로 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일단의 비교 단락 가운데 하나다 (15:16-17; 16:8). 만약 당신이 좋은 음식과 좋은 인간관계 사이에서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잠언은 가난한 가족이라도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채소만 먹는 것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움으로 가득 찬 가족이라면 부자들의 연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살진 소를 먹는 즐거움조차 헛된 일이 될 것이다.

B. 우정, 매일의 사랑 실천

(12:26; 13:20; 14:7; 17:17; 18:24; 24:1-2; 25:16-17; 27:8-10; 29:24)

사랑(공효)은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가? 순수한 사랑은 서로간의 매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드러난다. 진실한 우정은 사랑을 공급해주는 가장 좋은 토대가 된다.

12:26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그들을 유혹하느니라.

우정은 놀랍고 좋은 것이다. 하지만 친구를 선택하고 찾을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악한 자를 친구로 선택하고 그의 길을 따른다면 그는 당신이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들 것이다.

13:20.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우리는 친구를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지대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워지지만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짐차 그들과 같아질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 따르는 문제들을 함께 겪을 것이다. 잠언은 자주 다른 사람들의 치명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1:10-11; 2:12; 4:14-17; 16:29; 22:24-25; 23:20-21; 28:7).

14:7.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거든 그의 얼굴 앞에서 떠나라.

어리석은 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나눌 수 있는 좋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의 말에서 지식이나 지혜로운 조언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현명하다. ‘

17:17.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이 구절의 요점은 친구나 형제가 귀중한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위기 속에서도 진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 친구들(*)

18:24.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느니라.

친구를 얻으려면 다정함을 먼저 보여야 한다. 그러면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

24:1-2. 너는 악한 자들을 볼 때에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악한 일을 말하느니라.

악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 잠언 기자는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가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포악한 일을 계획하려고 하고 그의 말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계획을 내어놓을 것이다.

25:16-17. 네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네게 족한 만큼만 먹으라. 그것으로 배가 차서 네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네 이웃의 집에서 네 발을 뒤로 물리라. 그가 네게 싫증이 나서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이 잠언은 꿀과 친구들에 대해서 동일한 조언을 하고 있다. 이 둘은 모두 좋은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두면 괴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즐길 수 있도록 꿀과 같이 달콤한 먹을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적당히 취해야 한다.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보기도 싫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우정에도 적용된다. 친구들의 방문은 즐거운 일이지만 만약 당신이 너무 자주 친구 집에 방문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은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상대가 되어버릴 것이다.

27:9-10.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기쁘게 하며 달콤한 친구의 애정 어린 권고도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네 재난의 날에 네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향유와 향수는 잔치 때나 즐거운 기념일에 사용된다(계 2:10), 동일한 원리로 좋은 조언을 하는

친구는 기쁨과 만족스러움이 된다.

27장 10절은 가족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친구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재난의 순간에도 친척에게로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형제는 돕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지혜로운 것이다.

29:24.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레위기 5장 1절에 의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죄악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알고 그 일에 대해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그 증언을 해야 한다. 만약 그가 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재판장 앞에서 동일한 죄가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도적과 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엄청난 재난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저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악한 자와 친한 관계를 갖지 않아서 그런 고민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는가!

결론: 대통령보다 친구를 선택함

20세기 중반에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샘 레이번(Sam Rayburn)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의 십대 딸이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친구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문을 열어 보니 거기에는 레이번이 서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뭔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해서 왔네." 그 친구는 큰 슬픔 속에서 대답했다.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 지금 우리는 모든 장례 수속을 다 밟아놨다네." "그렇군." 레이번이 말했다. "그럼 자네 모닝커피는 했는가?" 그 친구는 아직 아침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고, 레이번은 자신이 커피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친구의 집 부엌에 들어가 커피를 끓이는 동안에 그 친구가 다가와 물었다. "여보게, 그런데 자네는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아침을 먹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랬지."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지금 곤경에 처한 친구가 있어서 오늘은 갈 수 없다고 말해놓았네."

솔로몬은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잠17:17)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란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 나갈 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다."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을 때 그의 삶 속에 걸어 들어갈 것을 준비해야만 한다.

꿀은 벌을 끌어들이고, 순수하며 성경적인 사랑은 친구를 끌어 모은다.

이기심은 친구 사이를 망가뜨린다.

좋은 친구 없이는 아무도 온전히 즐겁거나 만족스럽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와 혹은 그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남은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할 것이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삶의 적용: 포로 생활에서의 우정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성공을 이루고자 한다면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이점을 잊어버리거나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자신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포로의 상황에서는 친구가 너무나 중요해서 반드시 친구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정의 소중함을 바로 그들에게서 배우기도 한다. 「인생의 가장 힘든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것(Winning Life's

Toughest Battles)』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줄리어스 시갈(Julius Segal)은 베트남 전에서 전쟁 포로로 2,714일간을 영웅적으로 버티고 살아난 해군 중장 제임스 스타크데일(James B. Stockdale)의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 한 장면으로 스타크데일은 양손이 뒤로 묶여져서 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발에는 철사가 감겨져 수용소 마당의 내리찍는 햇빛 한가운데 던져졌다. 다른 포로들에게 협력하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일을 보여 주기 위해 베크롱들이 한 것이었다.

저기에 누워 있는 3일 동안 뜨거운 열기가 그의 체력을 고갈시켰다. 그가 잠이 들려고 할 때마다 보초들이 가혹하게 그를 때렸다. 그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생명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는 '타월로 딱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포로들이 사용하는 암호로서 'GBUJS'를 의미하는 소리였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였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짐 스타크데일(God Bless You Jim Stockdale).'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메시지였고 그가 다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시갈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의 미국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포로 생활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전쟁포로와 납치 포로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한 의사소통의 생명선에 의해서 생명의 의지를 유지했다. 베트남전에서 교묘한 박수 소리 암호는 박수치는 소리의 숫자와 쉬는 길이로 영어 알파벳을 의미하였는데, 이는 포로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주된 수단이었다. 그것이 바로 짐 스타크데일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한 암호였던 것이다.”

인간적인 관계와 동료애는 주변 환경이 열악할 때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시갈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학대, 강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견디고 살아난 2천 명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과 신뢰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였을 때 더욱 건강할 수 있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은 두통에서부터 폐질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병에 시달렸다.

이 진리에 직면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친구가 없는 외로움에 시달린다. 척 스윈돌(Chuck Swindoll)은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개종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내 삶에서 잃어버린 것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운 것은 선술집에서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서 웃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지요. 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친구 관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술집을 그리워하지 않지만 친밀한 관계는 그리워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된다.

오네시보로 딤후1:16-17

에바브라디도 빌2:25-27

요일2:10, 4:20-21

잠언 24: 위선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기

성경말씀: 잠15:11

잠언 28번 강해, 솔로몬의 잠언은 여러 주제를 말한다. 지혜란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오늘은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기>,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사도 바울의 고백, 고후1:12,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들어가는 글: 진실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진실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위선과 거짓에 분노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불성실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자들: 위선자, 종교 지도자들

예화: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한 중년 부인이 자신의 자서전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 그녀가 고용한 유명한 자서전 작가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살인자였고 유명한 일급 죄수
수용소인 뉴욕주의 싱싱 수용소에서 전기의자(electric chair)에 의해 사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는 그 할아버지가 자서전에서 도저히 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각색하였다. "그녀에게는 여러 명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에서 전기를 담당하는 자리(chair)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결국 그 일을 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 어떻게 해서든 최고의 유익을 누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진실함(순수함, 한결같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잠언의 여러 구절들은
하나님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것과 겉으로 포장된 모습을 꿰뚫어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
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의 불성실함을 간파해낼 것이다.

진실한 섬김: 미모는 오직 한 꺼풀 피부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직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다 진실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꿰뚫어보신다. 그리고 우리는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A.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15:11; 16:2; 17:3; 20:11, 27; 21:2; 27:19)

진실함(순전함)은 숨겨진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표현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열려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실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15:11.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거든 사람들의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리오?

지옥과 멸망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들은 '스올(Sheol)'과 '아바돈(Abaddon)'이다. 구약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특히 불신자들)이다. 아바돈은 '소멸하다, 죽다' 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고, 그 이름 자체가 '멸망'을 의미한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운명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며
그곳의 성격을 어느 정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이것을 사탄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잠언 27장 20절과 욥기 26장 6절에서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신다면 분명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보실 것이다!

개역 음부와 유명(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둘 다 불교, 샤머니즘 용어
16:2; 21:2.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저울에 다시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달아보시거나 시험하신다. 그분은 동기의 근원을 판단하신

다. 단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했는가를 판단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삼상16:7).

17:3.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제련하나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단련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귀금속의 제련 과정을 비유로 사용한다. 도가니와 풀무는 엄청난 열을 통해 금과 은을 제련하고,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이라는 열을 통해 우리 영혼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신다. 그 단련은 힘이 들지만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약 1:2-3; 벰전 1:7).

20:11.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에 의해 그가 행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사람들이 아느니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말미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곤 하였다.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분명하게 진실함과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

20:27.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므로 배의 모든 속 부분들(inward parts)을 살피느니라.

이 구절은 주님이 이 방 저 방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주님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살살이 살피신다. 그래서 주님이 살펴보지 못하시는 은밀한 부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깊은 속 부분은 때로 '마음' 이라고 번역되고,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내적인 전 존재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람' 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담(adam)' 이고, '영'이라는 단어는 또한 '숨쉬다' 의 의미로도 번역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심을 기록하는 창세기 2장 7절과도 놀라운 조화를 이룬다.

27:19. 물 위에서 얼굴과 얼굴이 일치하는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우리가 연못을 구부러 들여다보고 그곳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물속의 영상이 우리의 실제 모습과 들어맞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마음)은 우리의 전 존재(사람)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다. 약 그 사람의 속사람이 선하다면 그는 속과 겉이 동일하게 선한 사람일 것이다.

B. 거짓 희생과 예배를 꿰뚫어보시는 하나님(15:8, 29; 21:3, 27)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나타내는 의식을 거행해 왔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 의식을 실행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

예배 요4:22-24

15:8.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올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악을 키워가고 있는 위선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암5:21-24; 미 6:6-8). 그들이 비록 희생 제사(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한다.

15:29.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멀리하시나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잠 15:8-9, 26)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 사실 그분은 그들로부터 너무나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그분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그들의 속삭이는 기도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시 34:15, 17; 벰전 3:12).

21:3.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주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삼상 15:22; 호 6:6). 그리고 우리는 결코 금으로 그분의 은혜를 살 수 없다. 물론 예배 의식은 우리에게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과 정직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21:27.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인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

느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경배자들의 희생 제사와 헌물은 싫어하신다는 주제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 주님은 그들의 헌물이 악한 의도로 드려질 때(기복 신앙, 샤머니즘, 오순절 은사주의 록음악 등) 더욱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 악한 의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자비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자신의 악한 계획에 하나님을 복을 주시도록 뇌물을 바치는 것일 수도 있다!

C. 이중성의 위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

(6:12-15; 10:10; 11:3; 16:30; 20:14; 23:6-8, 23-26)

이중성은 위선 혹은 비뚤어진 것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선과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거짓 행세를 통해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알아내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6:12-15. 이 단락은 불량배나 악한에 대한 6가지 설명을 보여 준다. 불량배는 문자적으로 '사악한 자'이며 타락한 사람에 대한 지칭어이다(삼상2:12; 왕상 21:10), 그 단어는 한 사람의 타락성을 언급하기도 하고(느 1:11, 15; 시 18:4), 나중에는 사탄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고후 6:15).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는 타락하거나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속이는 말을 많이 하는 자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몸을 언어로 자유롭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눈을 부릅뜨기도 하고(잠 10:10; 16:30; 시 35:19), 발로 강포함을 표시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어떤 의미를 보이기도 한다. 또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신호로도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간교하고도 악은 행동 이면에 그 악한 자는 속임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마음은 악한 술책으로 넘치고 있고, 그의 외부적인 행동은 그 이면에 있는 속마음을 전혀 드러내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불평이 가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더욱 화내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

불량한 사람이 혹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생기는 재난과, 빨리 망하는 재난을 가져오시고 피해를 만회하지 못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1:3.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법자들의 비뚤어짐은 그들을 멸하리라.

이 구절은 도덕적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정직한 사람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자신을 인도해줄 생명의 길을 따른다. 말 그대로 정직한 삶은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 된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 사건,

반면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행한 속임수나 이중성(비뚤어진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16:29-30.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피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나니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피하려고 자기 눈을 감으며 자기 입술을 움직여 악을 이루느니라.

신중한 사람은 누군가를 신뢰하기 전에 매우 주의 깊게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주시한다. 당신이 듣는 말들은 미혹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눈짓을 한다든지 입술을 깨문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그 사람이 간교한 술책으로 당신을 얽어매려 하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20:14. 사는 자가, 형편없다. 형편없다, 하고 말하지만 자기 길로 가서는 자랑하느니라.

사람들이 협상하는 때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면 당신은 곧 사람들이 그 순간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는 자는 가격을 깎기 위해서 그 물건의 가치를 폄하할 것이다. 그런 뒤에 집에 가서는 자신이 좋은 것을 샀다고 자랑한다. 이 구절은 영적 보화에 적용될 수 있는 경고를 말하고 있다. 팔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서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26:23-26

23절은 비유의 형식을 따른 경고를 담고 있다. 그리고 24-26절은 그 개념을 더욱 확장해서 설명한다. 토기장이의 선반에는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그릇이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얇게 은을 입힌 값싼 토기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매우 매력적이거나 말을 유창하게 잘 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의 열정적이고 강렬한 언변은 경계심을 버리게 만든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말들은 악한 마음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

24-25절은 실제로 마음이 악한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그의 악함을 숨긴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의 말은 그럴 듯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신뢰도 없다. 그의 속사람의 실체는 추악함과 가증스러운 성품으로 가득하다(6:16-19 참고).

그런 사람은 악독함이나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얼마 동안은 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그는 회중앞에서 자신이 노출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마 유대 사회에서 회중은 이렇게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던 것 같다.

아름다움은 오직 한 껍질 피부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직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다 진실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꿰뚫어보신다. 그리고 우리는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 저울 위의 손가락들

오래전 <새러데이 이브닝 포스트(The Saturday Evening Post)>지의 표지에 유명한 삽화 작가인 노먼 락웰(Norman Rockwell)이 그린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사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실렸다. 칠면조는 저울 위에 올려져 있었고, 정육점 주인은 저울이 있는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그 여인은 60세쯤 되어 보였는데 저울의 눈금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그림의 중심은 사람들의 얼굴에 있었고, 그들은 만족스런 모습이였다. 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여성은 아래에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저울을 올리고 있었고, 정육점 주인은 엄지손가락으로 위에서 저울을 누르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웃음을 터트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저울 위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그 거래에서 '본전' 만 찾고,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명한 죄를 짓는 것이다.

정직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진리 알기

- 당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정말로 어떠한 사람인지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다. 참된 모습을 숨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를 해야만 한다.

적용하기

-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진리는 삶에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속임수나 깨어진 마음은 이중성의 열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당신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당신의 방식이 될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라. 한 사회에서 부정직이 만연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해를 입게 된다.

잠언 3^마: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돈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성경말씀: 잠3:9-10

잠언 29번 강해, 잠언 31장, 오늘 30번째,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명철의 책, 지혜란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여러 주제를 말한다. 여러 주제 중 돈도 중요한 문제

오늘은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돈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태도 등

역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자체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공허함을 채우는 대신에 공허함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욕심을 다른 방식으로 두 배, 세 배 더 크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벤자민 플랭클린

돈은 끔찍한 굴레이다

미국 남부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어떤 목사가 설교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 되어 점차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절름발이와 같던 우리 교회는 이제 일어서서 걸어야 합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대답했다. 아멘!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여기에 만족한 목사가 다시 외쳤다. "우리 교회는 갈멜산에 서 있던 엘리야와 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같이 날개를 달고 산 위로 날아가야 합니다." "날아갑시다, 목사님, 날아갑시다."

그리고 나서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날고자 한다면 많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냥 걸읍시다. 걸읍시다!"

이 이야기는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난 뒤에 교회 문을 나서던 한 남자가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이야기와 흡사하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올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돈을 내라고 할까 봐 걱정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에 마음을 두고 살기 쉽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돈이 적으면 우리가 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솔로몬은 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보여 준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물질을 바라보게 한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돈을 위해서 산다면 결코 돈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솔로몬은 돈을 위해서 사는 대신에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악한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놀라운 청지기로서의 모습으로 가능하다.

돈에 대한 헛된 노력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는 대개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 일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 물질의 한계와 위험성을 기억해야만 한다. 돈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고, 우리가 그것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은 변질되어 버린다.

A. 돈이 해줄 수 있는 일

(3:9-10; 10:15; 13:8; 14:20; 18:11; 19:4, 6-7)

아무도 재물의 유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낡은 자동차가 멈춰 서 버리면 차를 바꿀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좋은 것이다. 또한 재물은 인생의 수많은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

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10:15). 재물은 어느 한도 내에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실 이 구절의 상반절은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과 같이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은 결코 낭만적으로 생각할 것이 못 된다. 가난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자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돈의 잠재력은 쉽게 과장될 수

있다. 부자들은 재물이 그들과 위험 사이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성벽을 세워 준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유일한 난공불락의 요새란 오직 주님뿐이고, 그분의 이름만이 의인들에게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신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18:10).

2. 사람의 재물은 그의 생명의 대속물이지만 가난한 자는 책망의 말을 들을 일이 없느니라(13:8), 이스라엘에서 부자는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납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값이 지불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 비로소 안도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위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납치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돈을 소비하게 된다.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할 말도 대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책망이나 비난의 말을 들을 일이 거의 없다.
3.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14:20); 19:4. 돈은 또한 사람이 소외당하지 않게 해주기도 한다. 부자는 항상 친구가 많다. 비록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다 하더라도 역시 친구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이웃이나 친구들조차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14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한다. 가난은 그 자체로 힘든 것이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친구를 잃어버릴 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4. 19:6-7. 이 구절은 바로 위의 두 구절에서 나온 원리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6절은 부자들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호의를 구할 것이다.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다. 그의 끊임없는 물질적인 결핍은 그의 가족들을 부끄럽게 하고 화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가 자꾸만 자신을 도와달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점차 그를 피하게 된다.
5. 3:9-10. 부요함은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구절은 명령을 주고 또 순종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 신실한 사람은 소출의 맨 처음 것을 주님께 헌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한다. 이 내용은 모세의 율법에도 나타나 있다(신26:1-3, 9-11). 자기 소출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과 경배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복을 내리시고, 그의 창고가 가득히 차며, 그의 포도즙 틀에 새로운(신선한) 포도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B. 돈이 해줄 수 없는 일(11:4, 28; 15:16; 17:16; 22:2; 28:6, 11)

재물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오직 사람을 미혹에 빠뜨릴 뿐이다. 돈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호전시켜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지도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인격이나 지혜를 강화시켜 주지도 못한다. 그리고 문제로 가득 찬 인생을 변화시켜 주지도 않는다.

1.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는 죽음에서 구출하느니라(11:4). 돈으로는 결코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오직 의로움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10:2 하). 사실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쌓음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 나오는 때 즉 그분이 삶과 죽음을 판단하시는 날에는 재물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가복음 12장, 16장 부자, 마19:24, 막10:25, 눅18:25 말씀을 기억하라.
2.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나뭇가지처럼 변성하리라(11:28). 돈을 갖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그러나 돈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잠언 기자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의 예를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부요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쓰러져 말라 죽어가는 나무 같아서 패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치기를, 돈은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한다(시 62:10; 잠 23:5; 27:24; 약 1:11).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와 같다. 이것은

시편 1편 3-4절, 92편 1215절, 예레미야 17장 7-8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개념이다.

3.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15:16). 이것은 잠언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형식 가운데 하나로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가 가난보다 더 좋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부유하지만 그 속에 많은 문제와 혼란과 괴로움이 있다면 어떨까? 가난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또 어떨까? 여기에 대한 선택은 분명하다.
4.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데 그가 어찌하여 자기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 하는가?(17:16). 재물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결코 지혜를 사지 못한다. 그는 지혜를 가지려는 마음도 없다('관심도 없다'). 그는 그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살 수 있더라도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5.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지만 주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22:2). 재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일 뿐이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만드셨다. 그래서 특별히 자랑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창조주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겸손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물들을 돌아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6. 자기의 올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28:6). 재물은 사악한 도덕성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의롭지만 가난한 사람을 약하지만 부자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 한 사람은 빈 지갑을 가지고 있지만 매일의 삶을 건실하게 살고 있으며, 흠 없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2:7, 21; 11:5; 28:10, 18 참고). 다른 사람은 부자이지만 그의 삶은 패역하고 타락하였다. 그래서 그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주장한다. 이 구절은 거룩함이 세상의 부귀로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좋은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7.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28:11).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이 지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통찰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 허상을 깨닫고 진정한 인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시편 139편 23절, 오 하나님이며,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셔서 제3자적인 시각으로 엄밀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C. 돈에 대한 태도(18:23; 22:7; 23:4-5; 27:7; 28:8, 20-22)

돈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분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 사실 재물은 많은 경우 자만심이나 인색함 그리고 불만족 등 자기 파괴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

1.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하느니라(18:23). 가난한 사람은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가 자비를 구할 때 부자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비 대신에 더 거칠게 대답한다. 그 간청은 빌린 돈의 상환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거나 어떤 종류의 법적 소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서는 정당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2.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22:7). 부유한 사람은 때로 정부 관리의 권력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다스릴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권력에 항의하지도 못한다. 가난은 종종 빚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권력을 갖게 한다. 잠언 기자는 돈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는 채권자의 노예나 종이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왕하 4:1).
3.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27:7). 사람들은 종종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인생을 즐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귀는 너무 많이 갖게 되었을 때 그 매력을 잃어버린다. 꿀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단 음식이었지만 그 맛에 익숙해지면 곧 그것이 지겨워진다. 그러나 주린 자에게는 쓴 음식이라도 달게 느껴진다. 배고픔은 우리가 얻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4. 28:20-22.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을 받는 길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책임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악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러한 비윤리적 편법들이 하나님께 혹은 사회법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22절에서 악한 눈을 가진 사람, 잠 23:6; 마 20:15)은 재물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그 노력이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정직을 팔아버린다면 가난하게 될 뿐이며, 당신 내면의 가난은 물질적인 풍요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복습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는 대개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 일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 물질의 한계와 위험성을 기억해야만 한다. 돈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고, 우리가 그것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은 변질되어버린다.

결론: 돈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험 이야기다(1719년 발표됨).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원래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비유로 쓰였다는 사실이다. 그 이야기는 의도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저자 다니엘 디포(Daniel Defoe)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크루소는 외딴 섬에 고립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그 섬에서 쉽게 탈출할 수 없으며, 어쩌면 영원히 못 나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섬에는 아무도 없었고, 섬을 빠져나갈 방법도 없으며, 지나가는 배도 없었다.

그 절박하고 소망 없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인 크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밝은 면을 더 많이 보고, 어두운 면은 덜 보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내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은밀한 위로를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불평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편안하게 즐길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불평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들이었다.”

빌4:11-13

이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을 효과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딤후6:3-11

만족은 하나의 좋은 덕목이고, 반대로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은 하나의 악덕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우리의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그분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진리 가운데 두라고 한다.

- 당신을 승리하게 만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 것을 결심하라.
-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달아라

교회 사역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당신의 돈에 대해서 관대해져라, '주는 것'은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삶의 적용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는 당대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이 그의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회계사가 말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존 록펠러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수백 만 불을 벌었지만 그 돈은 내게서 행복을앗아가버렸다.”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는 “백만장자들은 거의 웃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헨리 포드(Henry Ford)는 “나는 기계 수리공 시절에 더 행복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은 우리가 미리미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기억하라. 당신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돈은 당신을 더 이상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당신은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당첨되고 난 뒤에 더욱 비참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봤을 것이다.

그들이 꿈꾸었던 재물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가지려고만 하지 않고 주고자 한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면, 그래서 하늘에 우리 보호를 쌓아둔다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두는 보화는 그것이 얼마든 나중에는 다 두고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맡겨두시는 돈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투자 자본이다. 매일의 시간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더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분명, 이것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다.

잠언 31: 생명을 택하고 사망을 피하는 지혜

성경말씀: 잠4:1-27

잠언 30번 강해, 잠언 31장, 오늘 31번째, 잠언을 마치고 전도서를 5-6회 강해하려고 한다.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명철의 책, 지혜란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명철은 분별력 특별히 오늘은 < > 4장 전체 강해, 3가지 주제

A. 다음 세대에 지혜를 전해줌(4:1-9), B. 올바른 길을 선택함 (4:10-19), C. 마음을 지키 (4:20-27),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솔로몬

잠1:1, 솔로몬의 잠언, 나도 많은 것을 배웠다.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당신은 이제까지 들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왕상3장,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왕께 나아와 둘 다 자신이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하였다. 두 여자 다 상대방이 밤중에 자다가 모르고 자기 아기를 등으로 눌렀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 아기가 질식해 죽은 것을 발견한 뒤에 다른 여자의 아기를 훔쳐다가 그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두 여자에게 각각 반씩 나누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첫 번째 여자가 말했다. "저는 좋습니다! 만약 제가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자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트리면서 왕에게 그 아기를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애원하였다.

지혜로운 왕은 이렇게 말했다. "저 아기를 두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진짜 어머니다."

왕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듣고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다!(왕상3:28) 이런 종류의 지혜가 갖는 의미는 사실 굉장한 것이었다. 마치 왕이 그 여자들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은 진정 정직과 고결함이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지혜로운 판단을 후대에 전해준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다. 그는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부귀나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수준의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바로 잠언서를 기록한 저자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할 때는 바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때이다. 이제 그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귀중한 잠언을 준다.

지혜의 긴박성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정확히 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모든 세대가 자신들의 전 세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자신이 열여덟 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너무나 무식해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순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물 한 살이 되었을 때는 겨우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놀라운 정도로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물론 달라진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자신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지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막상 지혜 앞에서는 순종하기를 거부해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부모의 노력을 자녀들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의 조언과 충고를 귀중하게 여길 것이다. 솔로몬은 자기 아이들이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하고 있다. 아마 그 절박함은 자기 가족들에게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형 압논은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였고, 또 다른 형인 압살롬은 그 겁탈한 형 압논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살인자인 그 형은 아버지를 폐위시키기 위해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솔로몬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지혜가 없으므로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았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지혜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로 인해 자녀들이 삶 가운데서 올바른 길에 설 수 있게 된다.

A. 다음 세대에 지혜를 전해줌(4:1-9)

솔로몬은 지혜 얻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다.

4:1-2. 이 장은 아버지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기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주위 환기가 잠언의 처음 여덟 장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특별히 이 구절은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지혜에 대한 교훈이 전해지기를 원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10절에서 그는 다시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아버지는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가르침이라는 선물을 주고자 하였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했다. 여기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2절의 내 법이다. 히브리어로 '토라(torah)' 인데, 대개 '율법' 으로 번역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다(28:9-29:18). 그러나 나의 토라' 와 같은 구절에서는 '가르침' 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선한 교리(2)

4:3.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 받았던 사랑을 그리고 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써 왕의 궁정에서 살았으며 끊임없이 아버지와 유대 관계를 맺으며 자랐다. 어머니 밧세바는 이후에 많은 자녀들을 두었지만(대상 3:5) 처음 몇 년 동안은 솔로몬이 유일한 자식이었다. 분명히 그의 부모는 그를 교육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4:4. 이 구절에서부터 솔로몬은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9절까지 진행되고 있다. 솔로몬은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을 들어 왜 자신이 이러한 지혜의 유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구절은 여러 가지 명령들로 가득 차 있다. 우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온 마음으로 붙들어야 한다(간직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명령들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4:5. 아들은 자신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것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이해하는 것(명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혜를 얻고자 한 다윗의 마음이 나중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왕상 3:5-14). 아들은 또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6, 6-9절에서는 지혜를 자애롭고 친밀한 여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는 잠언 초반부(1-9장)의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방식이다. 주변의 여성들이 아닌 지혜라는 여성에게 열정을 쏟는다면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는가! 6절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 가운데서 보호되리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

4:7. 지혜는 인생에서 으뜸가는 것(최우선)이다. principal thing,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지혜와 명철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므로 인생에서 그것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4:8,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높이라는 것은 경매에서 구매자가 자신의 매매 호가를 계속 높이는 것처럼 가치를 점점 더 높인다는 뜻이다. 당신이 지혜를 높일 때 지혜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위치를 보장하면서 당신을 계속 높일 것이다. 애정을 가지고 지혜를 품으라. 그러면 지혜가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당신을 대할 것이다.

4:9. 지혜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분명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8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녀는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면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당신은 은혜의 표상인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녀는 당신에게 영광의 왕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축복이므로 당신은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 궁에 초대되는 것과 같은 영예나

그런 류의 영광으로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좀 더 사소해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B. 올바른 길을 선택함 (4:10-19)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모세의 유언: 신30:19-20

4:10-11. 아버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자기의 당부를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부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만약 아들이 자기가 들은 바를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즐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아들은 재난이나 신속한 멸망으로 가는 길을 피하게 될 것이다. 11절에서는 인생을 일종의 여행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올바른 길과 행로를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이 존재한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혜에 따라 분명하게 구별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아들이 바른 행로를 따르도록 인도한다. 이러한 길은 도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길이다. 이제 그 아들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 10-13절에서는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4:12.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을 때는 그 길을 걷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언제든지 새로운 유혹이 생길 수는 있다. 그렇지만 올바른 길로 열심히 달린다면 장애물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이다.

4:13. 지혜의 촉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매우 분명하다. 그것은 당신이 받은 은혜를 굳게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지키라! 이 명령은 사실 '그녀를 굳게 지키라'는 인격적인 행태를 띠고 있다. 이는 지혜가 흠모할 만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킨다. 4절과 10절의 강조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되새기게 하는 것은 이러한 교훈이 생명 그 자체를 붙드는 열쇠가 된다는 점이다.

4:14-15, 14-17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바뀌고 있다. 솔로몬은 악한 자의 길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실제적인 주제 그 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험의 근원은 무지함이 아니라 악이다. 이 두 구절은 주로 여섯 가지의 중요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 가지 경고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 뒤를 따라 들어가지 말며 동조하지도 말라. 그 주변으로 걸어가지도 말라. 결코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그 길에서 벗어나라. 악한 길로 나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원래 가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라.

4:16-17. 그 길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의무처럼 되어 있는 완전히 뒤바뀐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들의 쉽 없는 악은 또 다른 천성이다. 그것은 마치 매일 먹는 떡과 술 같은 것이다.

4:18-19. 아버지는 두 가지 길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하나는 빛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어두움의 길이다. 의인들의 길은 마치 새벽녘의 서광과 같아서 처음에는 어두움 가운데 시작되지만 점차 밝아져 태양이 떠오르면 결국 한낮의 넓은 길로 행하게 된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끝없는 어두움 속에서 점차 꾸불꾸불해져서 자신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빛 가운데서 걷는 것에 관한 비유는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요일 1:7),

C. 마음을 지키(4:20-27)

만약 마음이 정결하다면 몸의 나머지 부분들도 동일한 상태가 될 것이다.

4:20-22.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에서 자기가 하는 중요한 말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시금 당부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몇 구절의 내용은 너무나 중대해서 당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어야 한다. 그것을 당신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21절).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라. 솔로몬은 4절과 10절 그리고 13절에서 지혜를 통한 생명을 약속하였고 여기에서 다시 그 주제로

돌아온다. 만약 당신이 생명을 원한다면 지혜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삶을 즐기게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잠언의 다른 약속들처럼 이것 역시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질병이 사실은 어리석은 행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23.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타난다.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다. 영어에서 마음(하트)'은 대개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육체적인 기관이나 감정의 처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약 히브리어에서의 '마음'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음은 정서(mood, 사 16:15)나 슬픔(grief, 느 2:2), 두려움(fear, 창 42:28), 분노(anger, 잠 19:3), 기쁨(joy, 삼상 2:1) 그리고 평화(peace, 창 34:3)와 같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마음은 의지의 근원(잠 11:20; 14:14)이자 양심의 본질(사 59:13)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것은 지성을 의미하기도 한다(잠 3:3; 6:32; 7:7). 마음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은 사실 한 '인간'의 모든 내면세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잠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만 50번 정도 나타나고, 성경 전체에서는 마음에 대해 설명하는 더 많은 어휘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마음은 삶의 모든 것(산물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말과 행동의 근원이다(눅6:45), 행동을 다스리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한 인간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생명 샘물의 근원에 대한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 그에 따르면 마음은 인간의 모든 부분으로 생명이 흘러넘쳐 들어가게 하는 근원이다. 심장의 피를 생각하라.

4:24. 일단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의 관심을 외적인 행동으로 돌릴 수 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특히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언급한다. 우리는 거짓으로 왜곡되거나 혼란스러움으로 점철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4:25 길을 걷는 비유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시선이 똑바로 앞을 향하기를 독려한다. 당신의 시선이 유혹으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4:26-27. 만약 시선이 흔들린다면 발은 곧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악인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평탄케 하다라는 말은 때로 '주의하다, 심사숙고하다'의 뜻을 갖기도 하지만 자신의 길을 주의 깊게 선택하는 장면에서도 쓰일 수 있다. 우리는 주의 깊게 길을 선택할 때 가는 길이 안전한지를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좌로나 우로 치우친다면 우리는 곧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보수도 진보도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
여기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뜻이다.

결론: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 배우라. 당신에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들이. 나의 교훈을 받으라. 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네가 내 말을 따른다면 많은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한 소녀가 아기 너구리를 발견하고서 데려다가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웠다. 그녀는 수의사로부터 그 너구리가 자라면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난폭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너구리는 절대 난폭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다른 너구리들은 다 그렇지라도 자기 너구리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너구리가 갑자기 난폭해지더니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성형 수술이 필요할 만큼의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경고를 무시한다. 우리가 역사를 무시한다면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며 그들이 지혜의 삶을 살도록

촉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배우는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그러한 경고를 들어야 한다. 그런 일은 결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어리석음은 항상 그 주변을 서성이는 자들로 하여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진리 알기

- 삶은 원인과 결과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행동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
-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해볼 필요가 없다.
- 지혜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간절히 얻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솔로몬의 요약: 잠1: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갈림길에서는 하나를 선택하라

맞는 말이다.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솔로몬은 이 장에서 두 가지 갈림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지혜와 조화로운 삶을 위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라고 간청한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항상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이러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여기서 솔로몬은 합리적인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지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영광과 축복과 성공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전 세계를 향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침반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 나침반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에 철저히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전 세계를 자유롭게 향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의 법을 무시하면 어리석음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칫솔질을 꾸준히 하면 충치가 생기지 않지만 칫솔질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하지만 칫솔질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전혀 충치가 생기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러한 종류의 절대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선택하라.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려 깊은 판단을 하라. 당신의 삶과 당신의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것에 달려있다.